

Ministry Focus Paper Approval Sheet

This Ministry Focus Paper entitled

**A STRATEGY OF EVANGELIZATION FOR KOREAN
IMMIGRANT COMMUNITY IN NEW ZEALAND**

written by

KEUN TAEK LEE

and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has been accepted by the Faculty of Fuller Theological Seminary
upon the recommendation of the undersigned readers:

Jeong Kii Min

Moon Sang Kwon

Seyoon Kim

November 1, 2004

**A STRATEGY OF EVANGELIZATION FOR KOREAN
IMMIGRANT COMMUNITY IN NEW ZEALAND**

MINISTRY FOCUS PAPER

SUBMITTED TO THE FACULTY
OF THE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DOCTOR OF MINISTRY

BY

KEUN TAEK LEE

NOVEMBER 2004

뉴질랜드 한인 이민 사회 복음화 전략

이 논문을
풀러 신학교 목회학 박사 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지도
민 종 기 교수

이 근 택

2004년 11월

Abstract

A Strategy of Evangelization for Korean Immigrant Community in New Zealand

Keun Taek Lee

Doctor of Ministry

2004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The Korean immigrant society in New Zealand is a community which has a dual language, dual speculation and bicultural system. To evangelize them brings the raise of the sunken rate of the evangelization in New Zealand.

Evangelism is not so easy in New Zealand, but still worthy. The modern idea of evangelism that Dr. Richard Peace's assertion that the conversion is not only the event but also the process would be useful for evangelizing the Korean community.

One of the strategy to evangelize the Korean community is to educate them individually, instructively, and spiritually through the small group activities. From this point of view, we urgently need a bible study. In order to do that, to offer a bible study programme is very useful.

Additionally, I propose ALPHA course as a strategy to evangelize the Korean community. ALPHA course is sufficient for the requirements of modern idea of evangelism, which is personal, effective and communicational.

The multi-cultural worship and mission network are finally suggested. Korean community is not just a community, but a influential and powerful group to New Zealand. The spiritual revival in New Zealand through the community is possible.

I hope that this paper will have good effects on the evangelization of immigration society, and, from a christian educational point of view, I also hope that there will be an improvement and acceleration of the bible study through this investigation.

Theological Mentors : Jeong Kii Min, Ph. D.

Moon Sang Kwon, Ph. D.

Seyoon Kim, Ph. D.

감사의 글

평생을 자식 사랑에 헌신하신 어머니 김진희 집사님과 언제나 변함없는 모습으로 남편의 위암 수술 후의 건강과 목회생활에 아낌없는 섬김으로 뒷받침하여준 사랑하는 아내 이진숙 사모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날에도 말없이 아빠를 신뢰해주고 기다려준 나의 사랑스러운 아이들, 금희 지희 봉로 경로에게 이 논문을 바칩니다.

본 과정을 시작하고 본 논문이 나오기까지 저에게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위암을 수술하고 적응하여야 했으며, 선교사 훈련을 받고 파송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언제나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에 감사를 드리며 오늘의 영광을 먼저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언제든지 문안 인사를 드리면 반가이 맞아주고, 아낌없는 성원을 베풀어주셨던 대한교회 김삼봉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만일 김 목사님과 대한 교회 당회원들을 비롯한 교우들의 성원이 없었으면 저는 본 논문을 마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부족한 저와 저희 가정을 대한교회의 뉴질랜드 선교사로 선뜻 받아주시고, 파송하여 주신 크신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처음 본 과정을 시작할 때부터 성원하여 주시고, 논문 작성이 이루어지기까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아낌없는 격려를 베풀어주신, 언제나 형님 같고 저의 목회의 스승과도 같으신 임익곤 목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의 논문이 나오기까지 지도하여주신 풀러신학교 박사원 원장 김세운 박사님과 부원장 김태석 목사님,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지막 논문 지도에 사랑을 담아 주신 민종기 박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논문을 쓸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후원하여 주셨던 오클랜드 커뮤니티 교회 교우들께도 감사드립니다.

2004년 9월 이근택

목 차

ABSTRACT.....	ii
감사의 말씀	iii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 목적	1
제 2 절 연구 방법	3
제 2 장 현대 전도론	5
제 1 절 성경에 나타난 전도	5
제 2 절 전도의 정의	8
1. 정의들	8
2. 정의들이 주는 함축	11
제 3 절 전도 방법론	11
1. 전도 방법론	11
2. 피터 와그너의 분류	13
3. 결론 및 제언	14
제 4 절 리차드 피스(Richard Peace)의 전도론	15
1. 피스(Peace)의 ‘회심’ 이론	15
2. 피스(Peace)의 전도 방법의 분류	16
가. 만남중심의 전도	17
나. 과정전도	19
제 5 절 결론 및 제언: 피스(Peace)의 전도론에 따른 적절한 전도방법 모색	22
제 3 장 뉴질랜드 한인 이민 사회 분석	24
제 1 절 뉴질랜드의 이해	24

1. 일반 개황 분석	24
2. 역사적 요인	25
4. 경제적 요인	28
5. 언어적 요인	29
제 2 절 뉴질랜드의 이민 현황	29
1. 뉴질랜드의 인구 변동	29
가. 마오리의 인구 변동	29
나. 비 마오리 인구변동	31
2. 뉴질랜드 인구 변동의 주원인으로서의 이민	33
제 3 절 한인 이민 현황	34
1. 1949년 -1991년	34
2. 1992년 이후	36
3. 한인 이민자들의 오클랜드를 중심으로 한 거주	37
제 4 절 한인 이민 교회의 현황	38
제 4 장 전략으로의 이민교회 일반적 사역	40
제 1 절 한인 이민 사회에 대한 이해	40
1. 한인 이민 사회에 대한 이해 - 정착 초기 단계의 한인 이민 사회	40
2. 오클랜드를 중심으로 한 이민 교회의 사역과 역할	42
3. 이민 교회의 요소	43
가. 전도를 위한 정착 서비스	43
나. 예배	44
다. 교제	44
라. 선교	45
마. 구역모임	45
제 2 절 전략으로서의 이민교회 사역	46
1. 이민 사회 속에서의 기독교 교육 정책 연구 및 개발	46
2. 기독교 교육 교재 연구 및 개발	47

3	기독교 교육 교사 발굴 및 양성	47
4	기독교 교육을 위한 훈련원 설립	48
제 3 절	현지 이민 교회를 통한 섬김과 나눔 사역	48
1.	이민 교회 개척 사역	48
2.	제자 훈련을 통한 예수 제자 만들기	49
3.	훈련과 참여를 통한 성도들의 선교 동력화	50
4.	가정 사역을 통한 이민 성도들의 회복 운동	50
5.	찬양과 기도를 통한 영성 훈련	50
6.	언어 연수를 비롯한 유학생들의 신앙 훈련 및 생활 지도	51
제 4 절	결론과 제언	51
제 5 장	전략으로서의 알파코스	52
제 1 절	알파코스란 무엇인가?	52
1.	알파코스의 역사	52
2.	알파코스의 원리	54
제 2 절	알파코스의 실제	59
1.	알파코스 이해하기	59
2.	알파코스의 진행순서	60
제 3 절	알파코스의 핵심사역	66
1.	소그룹 지도하기	66
2.	목회적 돌봄	67
3.	사역(사역을 위한 가치)	69
제 4 절	알파 성경공부 적용의 예	73
1.	성경 공부 교안 개발의 필요성	73
2.	성경 공부 교안	75
	가. 성경 공부 교안의 개요	75
	나. 성경 공부 교안 내용	77
	다. 효과적인 교재 사용법	80

제 5 절 결론 및 제언	81
제 6 장 다민족 선교 네트워크	82
제 1 절 뉴질랜드의 종교 현황	83
제 2 절 뉴질랜드 복음화 전략	85
1. 남태평양 원주민 및 현지인 복음화 전략	85
가. 다민족 예배 공동체 실현	86
나. 다민족 교회 간의 공동체 형성 및 사역의 공유	87
2. 세계 선교사들과의 네트워킹을 통한 선교 훈련 및 지원 사역	87
가. 세계 선교 훈련 및 지원 센터	88
3. 세계 교회와의 협력을 통한 비전 사역	89
가. 청소년 선교 훈련 사역	89
나. 단기 선교사 훈련 및 지원 사역	89
4. 한국 교회 및 선교 단체와의 연계를 통한 선교 훈련 및 협력 사역	90
제 7 장 결론과 제언	91
부록 1 2004 알파코스 제5기 주간계획서 및 성령수양회	93
부록 2 2004 알파 5기 HOLY Spirit Conference	94
부록 3 성경공부 교재의 예: 아브라함의 생애	97
참고문헌	116
Vita	123

표 목 차

표 1 마오리 인구추계	30
표 2 뉴질랜드의 한국인수(1980-1991)	35
표 3 2001년 뉴질랜드 동포 현황	37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 목적

이민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 뉴질랜드는 세상에 알려진지 불과 200년이 채 되지 않은 나라이지만, 영국과의 관계 속에서 급성장하여 선진국 대열에 어깨를 나란히 하는 나라가 되었다. 뉴질랜드는 10세기 경 유입되었다는 전체 인구의 약 15퍼센트를 차지하는 마오리 원주민과 약 85퍼센트의 이민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이며, 영국과 일본의 1.2배 정도의 땅 크기에 인구 403만 명이 사는 작은 나라이다. 그러나 1980년대에 맞이한 경제 공황을 타개하기 위해 더욱 활기차게 실시되었다는 이민 정책은 천연의 자연 환경과 함께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꿈을 실현하는 나라로 떠오르게 되었다.

그중에 한인들의 이민 역사도 그리 길지 않다. 지난 1991년 새로운 이민법의 발표로 1992년부터의 한인 이민 러시는 활기차게 이루어졌다. 그 이후 10여년이 지난 지금 뉴질랜드의 한인들의 인구수는 타 종족에 비해 제일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그중에 특히 오클랜드 지역 노스쇼어 시의 경우는 두 번째 언어가 한국어가 될 정도로 한인들의 인구 집중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001년 센서스에 의하면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한국인 수는 1991년에 비하여 20배가 넘는 19,023명이나 되었다.¹⁾

한편, 이 나라는 불과 100년 전만 하여도 기독교율 97퍼센트의 높은 복음화율을 가진 나라였지만 2001년 통계에 의하면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말한 사람이 약 56퍼센트, 그러나 현지 목회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리얼 크리스천이 약 7-9퍼센트밖에 되

1) 뉴질랜드 통계청, <http://www.stats.govt.nz/NR/rdonlyres/67F7B223-02B8-4B36-B1B8-AA1A77DCDDCD/0/cssnapl.pdf>

지 않는 나라로 전락해버렸다. 5년마다 실시되는 센서스에 의하면 기독교율은 갈수록 하락하고 있다. 그중에 가장 크다는 앵글리칸 처치는 더 심한 감소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장로교, 개톨릭, 침례교, 감리교 모두 교인수가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그나마 다소 다행인 것은 팬티코스탈 교회에 속한 교회나 하나님의 성회에 속한 교회들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뉴질랜드에는 약 100여 개의 한인 교회들이 있다. 소수의 교회들이 웰링턴과 크라이스트처치를 비롯한 몇 개 도시에 있고, 대부분의 교회들은 오클랜드에 소재해 있다. 급성장한 이민 사회이니만큼 교회 수도 갑자기 늘어났다. 따라서 몇몇 자체 건물을 가진 교회를 제외한 대부분의 교회들은 현지인 예배당이나, 학교 강당, 커뮤니티 센터의 홀을 시간제로 임대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도 상당히 많은 숫자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건강한 교단과 교회로서의 신학과 신앙이 확인된 교회는 50여 교회로 알려졌다. 게다가 자립할 수 있는 교회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같은 상황에서 한인교회의 복음화는 먼저 시대의 절실한 요청이다. 20,000명에 육박하는 한인들에 비해 50여 개의 교회는 점점 늘어나는 숫자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좀 더 한인 복음화에 힘써야 된다는 사실을 시사해 준다. 더욱이 자립할 수 있는 교회는 손에 꼽는다는 것을 감안할 때에 뉴질랜드 지역의 한인 복음화를 위한 건강한 교회는 이 시대의 요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인교회의 사명은 단순히 한인 복음화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뉴질랜드 한인들은 뉴질랜드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한 그룹이다. 같은 원리로 볼 때에, 뉴질랜드 한인교회는 뉴질랜드 교회의 영적인 영향력이 있는 그룹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뉴질랜드 한인 복음화는 결국 뉴질랜드 교회에 대한 새로운 도전을 줄 수 있으며 한인 교회의 부흥은 뉴질랜드 교회의 부흥에 대한 갈망을 일으킬 수 있으리라고 기대된다.

이같은 의미에서 뉴질랜드의 한인 복음화는 단순한 이민교회의 부흥의 차원을 넘어서 전략적인 요충지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면 면에서 매우 중요한 사역이라고 할 수 있다.

제 2 절 연구 방법

본 논문은 뉴질랜드, 특히 한인 밀집지역인 오클랜드 지역의 한인복음화를 위한 전략을 중심으로 전개될 것이다. 그러므로 본 논문의 범위는 뉴질랜드의 독특한 역사적, 문화적 배경 속에서 오클랜드 지역의 한인사회를 중심으로 한 한인교회의 역할과 복음화 전략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2장에서 성경적인 전도론을 정립하고자 한다. 전도의 원래의 의미와 어떤 전도가 형태가 가장 적절하고 효과적인 전도방법인가를 살펴 볼 것이며, 특별히 현대 전도론에 매우 독특한 공헌을 한 리처드 피스(Richard Peace)의 전도와 회심이론을 집중적으로 다룰 것이다.

3장에서는 뉴질랜드의 인구 변동과 영적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자료들을 수집, 정리하였다. 특히 짧은 이민 역사를 가진 한인 사회를 알기 위하여 좀 더 역사적이고 통계적인 자료들을 많이 인용하며, 현지에서 직접 경험하는 많은 이해들을 종합하여 그 연관 관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러한 연구조사를 토대로 한인 이민 사회의 복음화 전략으로 다음의 세 가지 단계를 수립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 제 1 단계 이민교회 일반사역을 통한 전도전략
- 제 2 단계 알파코스를 통한 전도전략
- 제 3 단계 다민족 선교 네트워크를 통한 전도전략

4장은 복음화 제 1 단계를 다루는데, 일반적인 이민교회사역을 중심으로, 이민교회의 일반적인 사역이 어떻게 한인 복음화에 효과적인가를 기술할 것이다. 이민교회의 일반적인 사역이란 교회의 일반적인 사역과 상통하지만 그런 것들이 이민 교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면밀히 분석하고 그러한 사역의 복음화 전략화를 꾀하고자 한다.

5장에서는 복음화 제 2 단계로, 좀 더 특화되고 심화된 사역을 중심으로 기술하되 특별히 1 단계의 일반적인 교회사역을 구체화시키고 불신자들을 전도하며 기존 신

자들의 신앙성숙을 위한 알파코스를 제시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알파는 가장 효과적인 전도 방법 중에 하나이면서 동시에 이민 교회에 적절한 전도 방법임을 설명하고자 한다.

6장에서는 마지막 단계로 열매를 맺기 위한 다민족 예배 및 선교네트워크를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다민족 예배 및 선교네트워크는 이미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에게 비전을 제시할 수 있고, 또한 불신자들에게는 언어와 문화라는 도구로 전도가 가능하면서, 동시에 선교에 대한 교회의 사명을 다하는데 적합하기 때문이다.

제 2 장 현대 전도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도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우리가 전도라고 하면 주로 거리의 전도자들을 연상하고 집집마다 방문하는 전도자들을 모범으로 삼는 경우가 있다. 혹은 소위 전도 집회를 할 때에 교회의 강요나 분위기에 못 이겨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가는 것을 전도라고 생각하는 강박관념이 있을지 모르겠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전도가 예수님이 명령하신 지상명령인 것은 알지만 그것이 전도를 유발하는 강력한 동기가 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전도가 부담스럽고 어렵게만 느껴지기 때문이다.²⁾ 따라서 본 장에서는 본래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란 무엇이며 거기에 전도에 대한 어떤 함축들이 있는지 살펴볼 것이며 이후 전도의 정의들을 살피고 현대 전도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별히 뉴질랜드의 이민목회의 상황에 맞는 전도전략 수립에 그 대안을 적용하고자 한다.

제 1 절 성경에 나타난 전도

성경에는 전도를 의미하는 많은 단어들의 쓰임이 있다. 거의 직접적으로 복음전도라는 말을 가키는 말은 다음의 두 단어와 그 단어와 연관된 파생어들이다. 첫째로, ‘유왕겔리제싸이’(εὐαγγελιζεσθαι)³⁾이다. 주로 “복음을 전한다” 혹은 “말씀을 전파하

2) 레베카 피펫이 느끼는 전도에 대한 부담과 패배의식은 모든 그리스도인으로서 동감할 것이다. Rebeka Peapert, *빛으로 소금으로*, 김성녀 역 (서울: IVP, 2003), 13-27.

3) 마 11:5; 눅 1:19; 2:10; 3:18; 4:18, 43; 7:22; 8:1; 9:6; 16:16; 20:1; 행 5:42; 8:4, 12, 25, 35, 40; 10:36; 11:20; 13:32; 14:7, 15, 21; 15:35; 16:10; 17:18; 롬 1:15; 10:15; 15:20; 고전 1:17; 9:16, 18; 15:1f; 고후 10:16; 11:7; 갈 1:8f, 11, 16, 23; 4:13; 엡 2:17; 3:8; 살전 3:6; 히 4:2, 6; 벧전 1:12, 25; 4:6; 계 10:7; 14:6 등의 용례가 있다.

다”(행 8:4)라고 번역되었다. 는 의미로 구약에서 사자가 전쟁의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것에 자주 묘사되었다. 왓슨의 관찰에 의하면, ‘유앙겔리제싸이’라는 단어는 동사로만 누가가 25 번, 바울서신에서 21번을 사용한 것을 포함하여 총 52 번 사용되었는데 주로 좋은 소식을 전하고 선포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한다. 70인경에서는 승리의 소식을 가져오는 사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한다.⁴⁾ 명사로는 바울서신의 52 번의 사용을 포함하여 총 72 번이 사용되었다고 한다.

둘째로, ‘케리그마’(κηρυγμα)라는 단어가 있다. 케리그마는 ‘복음 선포’를 의미한다. 이에 파생된 단어들은 ‘κερύσσει’(선포하다), ‘κηρυξ’(선포자)로서 신약가운데서 총 61 회 출현한다.⁵⁾ 대개 이 단어들은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와 함께 쓰였다.

위의 두 단어와 더불어 복음 전도를 가리키는 단어들로서는 다음의 세 단어들과 파생어들을 추가할 수 있다.

첫째로, ‘디다스코’(διδασκω)이다. 디다스코는 기본적으로 가르친다는 의미이다. 기본전도학이라는 책을 쓴 어트리(C. E. Autrey)에 의하면 성경에서 예수님이 전도를 묘사할 때에 다른 말보다도 가르침이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되었다고 한다.⁶⁾ 그러나 주로 강론하다라는 말로 사용되었으며 마태의 경우 ‘설교’와는 조금 다른 의미로 사용한다.⁷⁾ ‘선포’라는 단어보다는 조금 논리적으로 잘 설명한다는 의미가 좀 더 강할 때에 이 단어를 사용하였다.

둘째로, ‘말투스’(μαρτυς)가 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증인’이라는 말로 번역되어 사용되어져 왔다. 이 증인이란 말은 “기본적으로 법적인 용어이고, 헬라어에서 한편으로는 사실과 사건들의 증거로 표현하고, 또 한편으로는 진리를 보증하는데 사용되었다.”⁸⁾ 한편 이 단어는 ‘순교자’라는 말과도 연관이 있다. 따라서 이 단어는 증거 및 증인을 나타내는데 사용되었다.

셋째로, ‘마데테스’(μαθητης)가 있다. ‘제자’와 ‘제자삼다’라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선포 혹은 설명이 아니라 전족인 순종을 요구하는 단어로서 로버트

4) Davis Watson, *복음전도 (I Believe in Evangelism)*, 박영호 역 (서울: CLC, 1993), 33.

5) David Watson, *복음전도*, 46.

6) C. E. Autrey, *Basic Evangelism* (Grand Rapids, Zondervan, 1959), 10-15.

7) 마 4:23, 9:35 참조.

8) Michael Green, *Evangelism in the Early Church* (Grand Rapids, Eerdmans, 1970), 70.

슨(Robertson)은 이 단어야말로 진정한 전도라는 단어를 설명하는 말이라고 주장한다. 전도란 그냥 설득하고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순종과 제자도를 요구하는 것을 포함한다는 것이다.⁹⁾

그 외에도 신약성경에 전도를 묘사하는 단어들은 다음과 같이 최소한 11개 단어가 있다.

첫째, 말하다(λαλέω),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라고 했는데 이는 그냥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말함을 나타낸다.

둘째, 혼동하다(συνχεώ), 사도행전 9장 22절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라고 번역되었는데 전도하는 과정에서 적대자들을 혼동시키는 것, 혹은 변증적인 접근을 묘사할 때 사용되었다.

셋째, 설명하다(διανοιγώ), 사도행전 17장 3절에서 “뜻을 풀어”라고 번역하여 복음을 조직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말하는 것을 묘사할 때 쓰였다.

넷째, 증명하다(παρατίθημαι), 사도행전 17장 3절에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라고 증명으로 번역되었는데 확언, 확증의 의미로 쓰인다.

다섯째, 강론하다(διαλέγομαι), 사도행전 18장 4절에서 회당에서 강론할 때에 사용되었다.

여섯째, 논증하다(συζητέω), 사도행전 6장 9절에서 “더불어 변론”하는 모습을 묘사하였는데 격렬한 토론, 논쟁할 때를 묘사한 단어이다.

일곱째, 전파하다(καταγέλω), 사도행전 17장 3절에 전한다는 의미로 쓰였다.

여덟째, 선언하다(γνωρίζω), 고린도 전서 15장 1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알게 하노라”고 표현되었는데 구두로 복음을 알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아홉째, 얻다(κερδαίνω) 베드로 전서 3장 1절에서 구원을 “얻는다”는 말에 사용되었다.

열 번째, 입증하다(συμβιβάζω), 사도행전 9장 22절에서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라고 하여 입증

9) A. T. Robertson, *Word Pictures in the New Testament* (New York: Harper Collins, 1930) Vol. 3, 123.

혹은 증명한다는 말로 사용되었는데 본래 ‘하나로 밀접하게 묶는다,’ ‘엮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굴복시키는 의미를 내포한다.¹⁰⁾

열한 번째, 설득하다(πειθω), 사도행전 18장 4절,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이성이나 도덕적인 사고의 영향으로 압도하고 설득하고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¹¹⁾

이와 같은 성경의 용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내재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복음 혹은 좋은 소식은 전도에 있어서 불가결의 요소이다.

둘째, 선포의 요소가 있다. 다분히 일방적 의사소통이지만 대중을 상대로 주로 복음은 선포되었다.

셋째, 가르침 등 설명과 설득의 요소가 있다.

넷째, 논증의 요소가 있다.

다섯째로, 상대방의 의지적 결단을 요구한다.

이같은 성경의 전도라는 단어의 쓰임은 전도 방법론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제 현대의 신학자들은 전도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제 2 절 전도의 정의

본 절에서는 전도의 정의들을 살펴 볼 것이다. 전도의 정의들을 살펴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질문들에 대해 답하기 위함이다. 첫째, 전도의 정의를 볼 때에 효과적인 전도방법에 대한 어떤 암시가 있는가? 둘째, 전도의 요소들, 즉, 전도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하여 할 점은 무엇인가?

1. 정의들

전도에 대한 정의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사전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10) Robertson, *Word Pictures in the New Testament*, 123.

11) Vine, *An Expository Dictionary of New Testament Words*, Vol. 4 (Grand Rapids: Fleming H. Revell Company, 1981), 179.

전도란,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능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인간들이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좋은 소식을 선포하는 것이다. 12)

전도란 복음을 선포하는 것인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자의 구속사역과 성부의 화해사역, 그리고 성령의 새롭게 하는 능력을 포함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여기서, 사전적인 정의에 의하면, 전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중심으로 정의하고 있다.

*Evangelism and Church Growth*에서는 전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성령의 능력으로 회심되지 않는 자에게 그가 필요로 하는 시점에 복음을 소통시키는 것으로 회심자들이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고 그를 구세주로 영접하며 교회사범(fellowship)에서 주님께 봉사하게끔 인도하는 유효한 회심을 의도하는 것이다. 13)

이 정의에 의하면 전도란 단순한 선포의 개념을 넘어서 “유효한 회심”이라는 개념을 포함시켰다. 이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일방적인 선포나 소개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청중들의 결단을 요하고, 교회의 전통과 신학 안으로 들어올 것을 포함시킨 것이다.

영국의 대주교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구세주로 받아들여지게 하고 그의 교회의 친교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왕으로 섬기도록 하는 일... 14)

여기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 강조되고 있지만 단순한 영적 신분의 변화만이 아니라 회심자의 주되심을 강조하고 있다. 특별히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교회’라는 개념이다. 회심자들이 “교회의 친교” 안으로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

12) Walter A. Elwell ed., *Evangelical Dictionary of Theology* (Grand Rapids: Baker, 1984), 382.

13) Elmer L. Towns ed., *전도와 교회성장의 모든 것 (Evangelism and Church Growth)*, (서울: 서로사랑, 1998), 294.

14) Watson, *복음전도*, 31.

하도록 하는 것이 전도라고 하는 것이다. 즉, 전도라는 것은 단순한 복음의 소개나 회심 유도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 내에 들어와서 다른 신자들과 더불어 동일한 신앙고백을 하는 것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제임스 팩커(James Packer)는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죄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으러 나아올 수 있게끔 하는 일”¹⁵⁾ 이라고 단순하게 정의하였으나, 1974년 로잔 언약은 다음과 같이 총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전도한다는 것은 기쁜 소식을 널리 퍼뜨리는 것인데, 기쁜 소식이라 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죽은 자로부터 다시 살아나시어 통치하시는 주로서 그는 지금도 회개하고 믿는 모든 자들에게 사죄와 성령의 자유케 하시는 은사를 공급하신다는 것이다. 전도에 있어서 세계 속의 그리스도인의 현존은 불가결한 것이며, 또한 이해하기 위하여 주의 깊게 귀를 기울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대화도 없는 수는 없다. 그러나 전도 그 자체는 역사적 성서적 그리스도를 구주요 주로서 선포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그에게 개인적으로 와서 하나님과 화목함을 얻도록 설득하는 일이다. 복음의 초대를 함에 있어 제자된 값을 치러야 한다는 일을 감출 수는 없다. 예수께서는 오늘도 당신을 따르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의 새 공동체에 속하였음을 분명히 하도록 부르신다. 전도의 결과는 그리스도께의 순종, 그의 교회와의 협력, 세상 안에서의 책임 있는 봉사를 포함한다. (고전 15:3, 4, 행2:32-39, 요20:21, 고전 1:23, 고후4:5, 5:11, 20, 눅14:25-33, 막8:34, 행2:40, 478, 막 10:43-45)¹⁶⁾

로잔언약에 의하면 전도라는 것은 단순히 구원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도, 교회 공동체, 세상을 향한 사회적 책임 등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는 전도라는 것은 단순한 한 사람을 예수 믿고 천당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예

15) James I. Packer, *복음전도와 하나님의 주권 (Evangelism and the Sovereignty of God)*, 40.

16) 세계선교협의회, *로잔 언약*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3), 4항 전도의 본질 부분 참고. 본 논문에서는 다음의 문헌을 참고하였다. http://www.sjdch.or.kr/middle/technote/read.cgi?board=data&new=2&y_number=12

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전적으로 그에게 복종하며, 아울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사회적, 영적, 도덕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정의들에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복음 선포 혹은 복음 전달, 둘째, 진정한 회심에의 촉구, 셋째, 교회 공동체로 부르심, 그리고 마지막 넷째, 신자 혹은 교회의 세상에 대한 사회적, 영적, 도덕적 책임이다.

2. 정의들이 주는 함축

그러나 우리가 살펴본 바, 전도의 특정한 방법이나 비법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전통적으로 거리전도를 하거나 방문전도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음을 알 수 있다. 즉, 우리는 전도의 정의와 성경의 쓰임들을 살펴보았으나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전도의 방법에 대한 함축은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전도라고 하는 것은 총체적인 복음의 선포와 전인적인 결단을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제 3 절 전도 방법론

그렇다면 현대의 교회에서 취하고 있는 방법들은 어떠한 방법들이 있으며 그러한 방법들이 얼마나 많은 설득력을 지녔는가를 간략하게 살펴보자. 전도 방법론의 분류는 다양하다.

1. 전도 방법론

지금까지 기독교 내의 전도 방법론은 다음과 같이 분류될 있다. 다음의 분류는 엘머 타운즈(Elmer L. Towns)의 분류¹⁷⁾에 따랐고 우리는 한국적인 역사와 상황을 가지고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 대집회 전도(부흥회 전도)이다. 이 방법은 전통적인 전도방법으로 소위 부흥집회나 전도집회라는 명칭으로 통용되어 왔다. 대상은 많은 불신자들 혹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며 보통 "특별 음악(성가대나 독창)을 통해 구원 받지 않은 자들이

17) Elmer L. Towns ed., *전도와 교회성장의 모든 것*, 311-316.

참석하게 하려는 운동, 조직적인 기도 후원을 포함한다.” 드와이트 무디, 빌리선데이, 빌리 그레이엄, 루이스필라우 등은 이 전도 방법론의 대표적인 인물들이다.

둘째, 대중 매체 전도이다. 그야말로 대중 매체를 이용한 전도방법이다. 라디오, TV전도 등을 통해 복음을 소개하고 결신을 유도하는 방법이다. 우리나라로 예를 들면 CBS나 극동방송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그 외에 문서를 매개로 하는 전도지, 복음을 설명한 소책자들, 기독교 잡지들과 책들, 무료로 주기도 하고 팔기도 하는 성경 등이 있다. 외국 선교 단체들의 경우 비싸지 않은 그리스도교 문서를 팔기도 한다. 나아가 기독교 영화를 통해서 대중들을 불러 모아 복음을 소개하는 것들이 있다.

셋째, 침투전도(교회 총동원 전도)이다. 라틴 아메리카 선교회의 소장 캔 스트러켄이 발전시켰다고 하는 본 방법은 교회가 성경공부들, 방문 전도들, 매체 전도(보통 공적인 장소들에서 기독교 영화들을 상영함), 어린이 전도 등 “모든 가용한 시간 대에 모든 가용한 사람들을 접해 나가는 모든 가용한 수단을 사용함”을 말한다.¹⁸⁾ 팔웰(Palwell)의 “자기 마을을 그리스도를 위해 포위”하는 것이라는 표현을 빌릴 때에, 아마도 한국의 성시화 운동같은 도시를 위한 종합전도대책이 이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초공격적인 전도이다. 이 전도의 방법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들을 접촉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하고(행 5:28), 그들이 구원받도록 설득하는데 있어서(고후 5:11), 열성적이었는데, 전도자들은 믿음을 통하여 무한한 결과들을 성취할 수 있음을 깨달았다”는데 이 운동의 기저를 두고 있다.

다섯째, 생활방식 전도이다. 이것은 대중전도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자 나온 방식으로 나름대로 성경의 전도원리에 근거를 두고 있다. 생활전도의 저자 조셉 알드리치는 단순히 구원을 고백으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삶의 변화와 거기서 오는 전도의 결과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¹⁹⁾

여섯째, 버스 전도이다. 1970년대 초엽 영혼 구령 활동에서 폭발적으로 체험하던 전도 운동이다. 많은 교회들은 버스 사역에 돌입하여 흠석수, 결단자수, 세례자수에서

18) Elmer L. Towns ed., 전도와 교회성장의 모든 것, 313에서 재인용

19) Joseph C. Aldrich, 생활전도 (Life-Style Evangelism), 오정현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3), 27-32.

성장을 경험하였다고 한다. 버스 전도는 사람들이 교회로 가는 버스를 타도록 초청하여(보통 어린이들) 이웃 사회(보통 토요일에)를 누비는 것을 포함한다.

일곱째, 앞문 전도(초청 행사 전도)이다. 이 앞문 전도라는 표현은 교회가 교회 앞문을 통해 사람들을 자석처럼 끌어들이려 하는 모든 노력을 묘사한다. 보통 “초청 전도” 혹은 “행사전도”라고 칭한다. 한국의 경우 연예인이나 스포츠인사 혹은 사회의 명사들을 강사로 내세우고 불신자들을 초청하여 전도하려는 것들을 말한다.

여덟째, 옆문전도이다. 앞문전도와 대조적으로 교회의 대집회나 예배를 통해서 전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그룹 성경공부 혹은 친교모임, 관심사 모임, 레크레이션 등을 통해 전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아홉째, 오이코스(가족) 전도이다. 이 전도 방법은 신자들에게 어떻게 교회에 나오게 되었는가에 대한 질문에 절대 다수가 자기 가족이나 친구를 통해서 나오게 되었다는 통계에 근거한 방법론이다. 헬라이어 오이코스(가족)라는 단어의 개념을 사용하여 전도를 위하여 가족이나 친구들을 접촉하여 전도하는 것인데 단점은, 가족 친지간의 관계가 마치 전도를 위한 관계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

열 번째, 기도전도이다. 일정 지역을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전도를 한다는 이론이다. 에드 실보소가 주장한 이론이다.

열한 번째, 섬김전도이다. 빈야드 교회의 전도방법이라고 하는데 “친절과 사랑”의 삶을 살면서 전도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뉴 호프 커뮤니티교회의 사역과 전도방법이 이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지역과 이웃을 섬기면서 전도의 기회를 찾는 방법이다.

열두 번째, 예배전도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임재로 초청하여 전도하는 방법이다. 새들백교회나 윌로우 크릭교회의 예배방식이 이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열세 번째, 능력전도이다. 존 Wimber(John Wimber), 피터 와그너(Peter Wagner)의 이론으로 기사와 표적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악한 영들과의 영적인 대결을 통해 개인이나 그룹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을 말한다.

2. 피터 와그너의 분류

조은태는 현재 나와 있는 모든 전도 방법론들을 나열하였다.²⁰⁾ 그러나 이러한 분

류들은 단순한 나열식 분류일 뿐이다. 피터 와그너(Peter Wagner)는 이러한 전도의 방법론들을 다음과 같은 P-1, P-2, P-3 각각 유형별로 분류하였다.²¹⁾

첫째로, P-1, presence evangelism, 소위 임재전도 혹은 참여전도라고 한다. 사회 참여를 강조하는 전도방식이다. 기독교 세계관의 우위성을 기반으로 사람들을 복음으로 포용하고 납득시키기 보다는 사회적인 활동들이나 봉사, 참여 등을 통해 섬기는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도록 조장하는 전도방식이다.

둘째로, P-2, proclamation evangelism, 선포전도이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선언'이며 '선포'라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전도하는 방식이다. 대부분의 전도가 이 유형에 속한다. 이 유형은 복음의 선포, 청중의 결단, 하나님의 주권이 각각의 요소로 강조된다.

셋째로, p-3, persuasion evangelism, 설득전도이다. 이 유형의 전도는 단순한 선포나 교회에 나오는 것 이상으로 비회심자에게 제자도에 대해 응답을 하도록 설득시키는 것을 말한다.²²⁾

3. 결론 및 제언

이같은 피터 와그너의 분류는 신약에서의 전도라는 말의 쓰임과 전도의 정의와 더불어 전도개념에 대해서 많은 함축을 준다. 전도라는 것은 일방적인 복음의 소개나 교회로의 인도가 아니라 전인적인 회심과 제자도로의 결단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전도의 방법론이나 유형, 정의를 단순 나열식 분류한 것은 어쩌면 의미가 없을 수가 있다. 왜냐하면 어떠한 방법이 중요하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방법이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효과적이냐가 문제이기 때문이다. 과연 지금까지의 방법론들이 얼마나 실효를 거두고 있는가? 혹시 성경보다는 우리의 통념에 근거한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가? 여기에 대해서 플러신학교 리차드 피스(Richard Peace)는 강력한 의문을 던지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 장부터 리차드 피스(Peace)의 전도론에 대해서 살펴 보면서 현대 전도 방법론이 어떻게 그리고 왜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지 살펴

20) 조은태, 전도학 총론 (서울: 타문화권목회연구원, 1995), 329-289.

21) Peter Wagner, *Church Growth and the Whole Gospel: A Biblical Mandate* (New York: Harper Collins, 1981), 55-57.

22) Donald McGarvan and Winfield C. Arn, *Ten Steps for Church Growth* (San Francisco, Harper San Francisco, 1977), 51.

볼 것이다. 아울러 그의 전도론에 근거한 대안을 제시하고 뉴질랜드의 상황에 접목하고자 한다.

제 4 절 리차드 피스(Richard Peace)의 전도론

리차드 피스(Richard Peace) 교수는 현대 전도론에 있어서 획기적인 공헌을 한 사람이다. 그의 전도론은 '전도'라는 말에서 접근하지 않고 '회심'이라는 말에서 접근한다. 그의 주목할 만한 책, *신약이 말하는 회심*에서 그는 먼저 '회심'이라는 주제를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그의 독특한 공헌은 회심이라는 것이 전통적으로 한 '순간'이라고 생각한 것에 반해 그에게 회심이란 '과정'일 수도 있다는 논지를 가지고 그의 책을 전개시켜 나아간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같이 회심이 과정이라는 것에 근거하여 새로운 전도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회심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전도의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절에서는 그의 전도론의 근거인 회심이론과 그의 전도방법론 분류 그리고 그의 대안인 과정전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우리의 상황에 적용하고자 한다.

1. 피스(Peace)의 '회심' 이론

그는 바울의 회심사건과 마가복음에서 나오는 열 두 제자들의 회심의 형태가 다른 것에 착안하여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의 경우처럼 한 순간일 수도 있지만 열 두 제자처럼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일 수 있다고 말한다.

바울의 경우는 그의 회심을 '사건'이라고 부를 수 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의 모든 것이 바뀌는 놀라운 회심을 경험하였고 이것이 그의 복음과 신앙과 신학의 결정적인 기원이 된다.²³⁾ 피스(Peace)교수는 이 바울의 회심에는 깨달음, 돌아섬, 변화라고 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논증하고 이를 회심의 세 가지 요소라고 하였다.²⁴⁾ 그러나 바울의 경우 이 세 가지 요소가 순식간에 일어났다. 전통적으로 이러한 바울의 회심체험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표본이 되어왔다.

23) 김세운, *바울복음의 기원 (The Origin of Paul's Gospel)*, (서울:엠마오, 2001), 87-96.

24) Richard Peace, *신약이 말하는 회심 (Conversion in the New Testament)*, 김태곤 역 (서울: 좋은 씨앗, 1999), 55-133.

그러나 열 두 제자의 경우, 온전히 예수님께로 돌아서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마가는 그들의 회심을 '과정'으로 묘사한다. 그는 마가복음의 구조와 주제상의 변화를 면밀히 조사한 후,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점진적으로 이해하는 과정을 묘사하려고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²⁵⁾ 마가복음의 제자들 바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깨달음, 돌아섬, 변화를 회심의 세 가지 요소를 다 가지고 있다.²⁶⁾ 그러나 제자들은 그 세 가지 요소들을 '점차적'으로 경험하게 된다.

이같은 회심이론에 근거하여 현대 전도론들을 살펴보자. 기존의 개념에 의하면 회심이라는 것은 한 '순간'이라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어떻게 해서든지 고백하게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 그래서 소위 'Soul Winning' 이라든지 부흥회 후 결신의 시간 등 기존 전도의 개념에서는 그들의 순간적인 결단을 유도할 때가 많았고 그것이 전도의 핵심이라고 대부분 생각해 왔다. 그러나 그와 같은 강조는 성경의 한쪽면만 강조한 것이라고 피스(Peace)교수는 말하는 것이다.²⁷⁾ 그에게 있어서 회심이라는 것은 일정의 혹은 긴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러한 '과정' 끝에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것이라고 한다. 그 '과정'을 지나는 동안에는 회의하기도 하고 방관하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회심의 한 과정이며 그 같은 과정을 겪으면서 결국 온전한 회심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이다.

2. 피스(Peace)의 전도 방법의 분류

이같은 회심이론을 배경으로 피스(Peace) 교수는 전도방법을 다음과 같이 둘로 분류하고 있다. 그의 분류는 단순한 방법론의 나열이 아니라, 회심은 먼저 정의하고 그 정의를 통해서 구분 것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즉, 회심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전도의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기존의 회심이론에 근거한 방법들을 만남전도라고 정의하고 그 자신의 회심이론에 근거한 전도방법론은 과정전도라고 정의한다.

25) Richard Peace, *신약이 말하는 회심*, 162-198.

26) Ibid., 273-353.

27) 존 스타트(John Stott)는 이미 결단주의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다. John Stott, *복음전도 (Our Guilty Silence)* (서울: IVP, 2002), 64.

가. 만남중심의 전도

만남중심의 전도는 피스(Peace)가 만들어낸 개념이다.²⁸⁾ 바울이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서 회심한 것처럼 그러한 만남을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전도방법이다.²⁹⁾ 이러한 만남중심의 전도방식으로 다음의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1) 대중전도

대표적인 만남전도의 유형이다. 대상은 불특정 다수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전도하는 방식을 일방적이다. 대부분의 경우 예수님을 소개하고 교회로 혹은 예수님 앞으로 결신을 유도하는 방식을 취한다. 이러한 방식을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선호하고 취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피스(Peace)는 이러한 방식의 전도에 대해서 분명한 의문을 던지고 있다. 그는 지적하길 스코틀랜드의 빌리 그레이엄 전도대회에서 집회 후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사람들은 7 퍼센트에 불과했고 토론토의 경우 겨우 11 퍼센트라는 통계를 제시했다.³⁰⁾ 영미 지역뿐만 아니라 남미에서도 한 보고에 의하면 대중전도를 통해 교회에 출석하게 된 사람은 집회참석자의 5 퍼센트밖에 안된다고 한다.³¹⁾ 이같은 대표적인 통계에 의하면 대중전도는 분명히 효과적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도 비효율적이다.

물론 피스(Peace)도 이러한 방식이 전혀 무익한 것이라고 말하려는 것은 아니다. 전통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변호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받지 않느냐 하는 것이다. 그러나 결국 대중전도는 교회 안팎의 사람들을 도전하고 구원의 메시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전달하였지만 효과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적은 성과가 있었음을 부인 할 수 없다.³²⁾

(2) 개인전도

이같이 대중전도의 효과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자 1960년대 이후 개인

28) Richard Peace, *신약이 말하는 회심*, 358.

29) Ibid., 359.

30) William McLoughlin, *Modern Revivalism* (New York: Ronald Press, 1959), 516-518.

31) Jerry Reed, 'Lasting Fruit in Evangelism', *Journal of the Academy for Evangelism in Theological Education* 11 (1995-1996), 48-49.

32) Richard Peace, *신약이 말하는 회심*, 384-385.

전도라는 방법이 대두되었다. 대중전도와와의 차이는 첫째, 대상이 불특정 다수 아닌 개인이며, 둘째로, 의사소통이 일방적이지 않고 쌍방 가능하다는 것이다.

개인전도의 주 내용은 구원의 확신에 대한 질문들, 예컨대 오늘 당신이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들이나 자신의 회심경험들이 그 주를 이루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훈련을 통해서 전도인을 양성해 내는 전도폭발, 사영리, 다리예화 전도법등이 이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분명한 것은 이러한 전도방법이 대중전도보다는 확실히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1870년대 무디 전도단의 경우 개인전도, 특별히 방문전도를 통해 33퍼센트가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다는 보고가 있다.³³⁾ 1959년 '전도폭발'훈련과 더불어 시작한 코럴 릿지 장로교회는 18년만에 10여 배의 성장을 하게 되었다.³⁴⁾

이같은 방식은 곧 생활방식 전도라는 방법론으로 발전하는데 생활전도이든 개인전도이든 간에 다음과 같은 한계를 안고 있다.

첫째로, 개인의 관계보다는 일방적인 복음전도에만 초점이 맞추어진다는 점이다. 전도를 목적으로 하는 관계가 형성이 되므로 인격적인 만남은 뒤로 할 때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영적인 필요가 더한 가족, 친지들보다는 눈에 먼저보이는 대상들이 타겟이 될 때가 있다. 이를테면 버스 옆자리 앉은 사람이라든지, 자주 가는 가게 주인같은 사람들에게 좀 무례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소지가 있다.

둘째로, 획일적인 복음제시에서 부작용이 올 수 있다는 것이다. 전도 폭발이나 사영리, 브릿지 전도의 경우 전도 메터리얼에 나오는 내용만을 획일적으로 전달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한 그렇게 훈련받는다. 그러나 복음은 그렇게 획일적이지도 좁은 개념도 아니다.

셋째로, 이러한 방식은 불신자들과 신자들이 평소에 매우 긴밀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때만 가능한데, 전도를 위해 만남을 시작하고 거기서 사권의 깊이가 더해가고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는 과정은 더욱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33) John Mark Terry, *Evangelism: A Concise History* (Nashville: Broadman & Holman, 1994), 185-186.

34) D. James Kenedy, *전도폭발 (Evangelism Explosion)*, 김만풍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0), 3.

(3) 대중매체전도

소위 매스 미디어를 이용한 전도를 말한다. 심지어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전도지 배포, 신문, 잡지, 라디오, TV를 통한 전도 등을 포함한다. 이 방법은 미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비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한다. 조지 바나(George Barna)는 해마다 TV전도 비용이로 2억 달러 이상 지출되고, 라디오의 경우 1억 달러 지출되며, 서적, 음반, 테이프 수익의 10퍼센트가 선교비로 지출(약1억 달러 이상)된다고 보고하고 있다.³⁵⁾ 그러나 이 전도방법으로 회심한 사람은 “극소수”라고 한다.³⁶⁾

혹자는 전도지 10,000장을 뿌려서 한 사람이 구원을 얻으면 그것으로 더 기쁜 일이 없다고 반박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전도 대상이 불특정 다수라는 점이다. 청중의 상황이나 상태는 전혀 알 수 없고 그들의 필요를 알지 못하므로 일반적인 차원에서, 혹은 가상의 상황을 예상하고 전도해야 한다.

둘째로, 의사소통에 대해서 완전히 일방적이다. 사람들의 반응을 알 수 없다. 전도지의 경우 교회나 선교단체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셋째로, 따라서 상대방의 회심은 물론 최소한의 반응조차 알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같은 의미에서 매체전도는 상당히 비효율적인 방법임에 틀림없다.

나. 과정전도

과정전도는 앞서 우리가 살펴 본 피스(Peace)의 회심이론에 근거하고 있다. 기존의 만남전도가 회심자를 얻기 위한 한 ‘순간’에 주목한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랜 기간 예수님과 함께 하다가 변화된 것처럼 오늘날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청중들로 하여금 일정기간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게 하고 영접하게 하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즉,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한 정점이 아니라 지나간 영적인 순례의 과정이

35) George Barna, *Evangelism That Works*, (Ventura: Regal, 1995), 33-35.

36) Richard Peace, *신약이 말하는 회심*, 372.

라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전도방법은 한순간의 “아멘”이라는 대답보다는 그 영적인 순례를 돕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피스(Peace)는 그와 같은 긴 영적인 순례의 과정을 다음과 같이 도식화하고 있다.³⁷⁾ 첫째는, 탐구의 단계이다. 이 단계는 사람들이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 무엇을 열망한다. 심지어는 죄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조차도 그렇다.³⁸⁾ 또한 죄로 인해 파괴된 세상 가운데서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인생의 의미를 찾고 싶어 한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다. 탐구의 단계는 바로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부응할 때에 시작되는 것이다.

둘째는, 의뢰의 단계이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단계이다. 첫 단계에서는 그저 하나님을 원하기만 한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단계이다. 그 동기가 혹시나 하는 요행을 바라는 마음일 수도 있고 혹은 그릇된 동기에서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는 단계이다.

마지막으로, 형성의 단계이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복종하는 단계이다. 일 단계와 이 단계를 거치면서 결국 그 분의 참된 제자로 결단하게 된다. 본 단계에서는 결단과 더불어 적어도 내적, 외적인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이같은 삼 단계 영적인 순례의 과정을 생각할 때에, 회심의 세 가지 요소인 깨달음, 돌아섬, 변화와 깊은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스(Peace)는 이에 걸맞는 전도로 과정전도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이같은 과정전도는 다음과 같은 형태의 전도 방법들이 실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1) 소그룹 전도

소그룹 전도는 “개개인의 필요와 문제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또한 소그룹에 참여한 사람들 간에 인격적인 깊은 교류가 가능하다. 공동체 의식도 각별하게 고양될 수 있다. 특별히 피스(Peace)는 획일적인 소그룹이 아니라 영적인 필요를 자각하고 시작하는 자발적인 소그룹의 형태를 제안한다.³⁹⁾ 그는 마가복음을 전도를 위한 소그룹,

37) Richard Peace, *신약이 말하는 회심*, 388-395.

38) 마우는 *왜곡된 진리* 서론에서 체스터튼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리차드 마우, *왜곡된 진리*, 오수미 역 (서울 CUP, 1999) 9.

영적인 순례자들을 위한 소그룹의 한 방안으로 제시한다. 이같이 소그룹 전도는 과정 전도를 위한 이상적인 방안이라고 단언한다.⁴⁰⁾

(2) 성장중심의 전도

전도를 하다가 직면하는 사람들의 고통스러운 문제들이나 고민, 스트레스 등에 대해서 성경적인 해답을 제시하는 전도방법이다. 피스(Peace)교수는 일례로 신혼부부 세미나를 들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기독교적인 문화를 배경 때문에 상당한 성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⁴¹⁾ 물론 한국적인 상황은 많은 차이가 있지만 비슷한 형태의 모임은 많이 있다. 다만 한국적인 상황에서 자칫 신학적인 기반이 약할 경우에 일회성으로 그칠 우려가 있으며, 피스(Peace)박사가 지적했듯이 혹은 강사가 전문적이지 않은 경우⁴²⁾, 혹은 지역교회와 무관하게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경우는 큰 부작용을 낳을 수는 있다.

(3) 영적훈련을 통한 전도

성장중심이 '의뢰'의 단계에 있는 회심자들을 위한 것이라면 '형성'의 단계로 도약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영성훈련을 통한 전도가 있다.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영성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다. 심지어 기독교 밖에서도 참선, 요가 등에 열을 올리고 있다. 성직자들은 그들 교회 안의 관심뿐만 아니라 교회 밖의 구도자들에게도 관심을 돌려야 한다. 주말수련회나 트레스 디아스(Tres Dias) 등이 이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4) 예배전도

예배자체를 활용한 전도방법이다. 열린예배 전반에 대한 고찰을 하는 것은 본 논문의 범위를 벗어나는 일이다. 다만 여기서는 전도라는 측면에서 몇 가지만 살펴보고자 한다.

39) Richard Peace, *신약이 말하는 회심*, 416.

40) Ibid., 418.

41) Ibid., 419-420.

42) Ibid., 422.

먼저, 열린예배 혹은 구도자 예배에 대한 비판이 적지 않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은 예배라는 것이 본래 목적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인데 '전도'의 도구로 쓰인다는 점이며, 실제 전도에 있어서도 효과적이지 않는데 불신자들보다는 교회내의 형식적인 교인들을 위한 것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예배도 그리스도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성육신이 필요하다. 또한 동시대의 문화와 보조를 맞추어야 한다. 지나치게 초월성과 거룩함만 강조한다면 그 시대와는 유리된 종교로 전락할 것이다. 영적인 갈등함은 하나님과의 만남으로만 해결되며 그러므로 불신자이든, 구도자이든, 예비 신자이든 간에 하나님의 임재로 초청하는 일은 중요하다.⁴³⁾ 또한, 피스(Peace) 교수가 말하는 예배전도는 단순히 주일예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결혼예배, 장례예배, 성례식 등 이 모든 예배 의식들이 전도의 방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⁴⁴⁾

제 5 절 결론 및 제언: 피스(Peace)의 전도론에 따른 적절한 전도방법 모색

우리는 본 장에서 전도의 용례와 정의 그리고 방법론, 마지막으로 피스(Peace) 교수의 긴급 제안을 살펴보면서 전도란 그저 복음을 값싸게, 비효율적으로 전달하거나 일방적인 의사소통이 아니라 인격적이고 실제적이며 결단을 요구하는 것임을 살펴보았다. 게다가 피스(Peace) 교수는 한 사람이 회심하는데는 일정 기간 혹은 긴 기간의 영적인 순례의 길을 걷는 것처럼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하여서 거기에 맞는 전도 방법들을 몇 몇 제안을 하였다.

따라서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한인들에게 좀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고자 다음의 3단계 전략을 수립하고자 한다.

제 1 단계로, 탐구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교회의 일반적인 사역과 정착 서비스를 통하여 전도하고자 한다.

43) Sally Morgenthaler, *Worship Evangelism: Inviting Unbelievers into the Presence of God* (Grand Rapids: Zondervan, 1995), 312.

44) Richard Peace, *신약이 말하는 회심*, 428.

제 2 단계로, 피스(Peace)의 제언에 따라 소그룹 전도의 방식을 채택하되 특별히 알파코스를 그 대안으로 선택하고자 한다. 그리고 알파 소그룹에서 사용하는 성경공부 중 우리의 상황에 맞게 아브라함의 영적인 순례를 한 방안으로 채택하였다.⁴⁵⁾

마지막 3 단계로, 피스(Peace)가 제안한 바 예배 전도의 일환으로, '다민족 예배 공동체'를 활용하고자 한다. 이는 교회의 전도와 선교의 양면을 충족시키면서도 구도자들에게 '영어'라는 매개로 복음초청이 가능하며 혹은 회심자들에게 좀 더 확실한 신앙적인 기반과 제자도에 따른 비전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45) 부록 참조

제 3 장

뉴질랜드 한인 이민 사회 분석

뉴질랜드는 원주민인 15퍼센트의 마오리족⁴⁶⁾을 제외한 모두가 이민자인, 이민자로 구성된 이민 국가이다. 그 안의 한 종족으로서의 한인 공동체는 또 하나의 뉴질랜드인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뉴질랜드의 인구 변동을 살피는 것은 뉴질랜드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것이고, 나아가 그 안의 한인 이민 사회의 변천 과정과 한인 이민 사회의 교회 현황을 이해하는 것은 한인 이민 사회의 복음화 전략을 세우는 데에 필수적인 일이다.

따라서 본 장은 뉴질랜드의 이해와 일반적 이민 현황, 그리고 한인 이민 현황과 한인 이민 교회의 현황을 연구하도록 한다.

제 1 절 뉴질랜드의 이해

본 절에서는 뉴질랜드에 대한 이해를 얻기 위하여 일반적 요인들을 먼저 살펴보도록 한다. 뉴질랜드라는 나라가 일반인들에게 알려진 것은 그리 오래 되지 않았다. 뉴질랜드는 남태평양 많은 섬나라 가운데 하나 정도로 이해되고, 호주에 가까이 붙어 있는 나라 정도로 일반인들에게 알려진 상태이다. 따라서 뉴질랜드 사회의 변천을 이해하기 위하여 먼저 사회 전반적 요인을 살펴보도록 하자.

1. 일반 개황 분석

남태평양의 서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두 개의 큰 섬과 수많은 작은 섬으로 구성

46) 뉴질랜드 통계청, <http://www.stats.govt.nz/NR/rdonlyres/D5079CF0-C744-4133-80CF-5EE2221E37F5/0/cssnap4.pdf>

되어 있는 뉴질랜드는 면적이 영국, 일본과 비슷한 27,534 평방킬로미터이다.

두 개의 큰 섬은 쿡 해협에 의해 남섬과 북섬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북섬과 남섬은 북동쪽과 남서쪽으로 비스듬히 가로 놓여 있다. 뉴질랜드의 행정상 경계는 남위도상 33도에서 53도까지 동경도상 162도에서 173도까지 펼쳐져 있고, 영토는 두 개의 주 섬과 인접한 섬들 이외에 군소 도서들을 포함하고 있다. 외곽에 위치한 영토는 크라이스트 처치에서 동쪽으로 850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카탐 섬과, 베이 오브 아일랜드로부터 북쪽으로 930킬로미터 떨어진 케르마덱 그룹 내의 라울 섬, 스튜어트 섬 남쪽으로부터 590킬로미터 떨어진 캠벨 섬까지 이르고 있다. 또한 뉴질랜드는 토케아우와 로스 속령지구에 대해서도 사법권을 가지고 있다.

뉴질랜드의 길이는 1600킬로미터가 넘으며 폭은 450킬로미터에 이른다. 또한 뉴질랜드는 긴 해안선을 갖고 있으며, 해안선은 수많은 천연적인 항구를 제공해 주는 들쭉날쭉한 형태를 이루고 있다. 내륙은 해발 200미터 이하의 산악지대로 구성되어 있다. 북섬의 산맥은 일반적으로 북동쪽에서 남서쪽으로 뻗어있어 이스트 케이프에서 쿡 해협에 이르는 해안선과 평행을 이루고 있다. 산맥을 따라 북서쪽으로는 4개의 화산이 있고, 남섬은 북섬에 비해 더 많은 산악으로 이루어져 있다. 남알프스에는 많은 산들이 남섬의 길이 방향으로 마치 체인처럼 연결되어 있다. 남섬에는 높이 2,300미터가 넘는 산들이 223개나 되며, 남알프스에는 360개의 빙하가 있다. 남섬에는 이 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인 마운틴 쿡이 있는데 이 높이는 3,754미터로 정상부근은 일년 내 눈이 덮인 만년설로 덮여있다. 그리고 뉴질랜드에서 가장 긴 강은 타스만 해로 흐르는 와이카토강으로 길이가 425킬로미터이다.

2. 역사적 요인

뉴질랜드는 세계에서 인구의 국제 이동률이 가장 높은 국가 중의 하나로 이민이 세운 국가이다. 뉴질랜드에 최초로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은 서기 10세기경, 대략 750년-1350년 사이 폴리네시아 삼각지대(Polynesian Triangle : Hawaii, Maguesas 제도 및 뉴질랜드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지대)로부터 성공적으로 도래한 마오리들이 정착하면서부터이다.⁴⁷⁾ 마오리는 원주민이라는 뜻이다. 이들은 친족을 중심으로 이위(iwi)

47) 김영성, "뉴질랜드의 인구변동" *사회과학연구* 제 9 호, (서울: 1996), 15.

라는 종족을 형성하여 살았다. 이들은 곧 환경에 적응하여 1200년까지는 남섬과 북섬 모두에 정착하였는데 대부분은 기후가 따뜻한 북섬의 상단에 거주하였다.

이곳에 최초로 도착한 유럽 항해자는 1642년에서 43년까지 이 해안을 항해한 네덜란드의 탐험가인 아벨 타스만이다. 1642년 12월 13일 항해 도중 아오테아로아(길고 긴 흰 구름의 나라)의 남섬인 호키티카 지역에 도착한 아벨 타스만은 환상적으로 아름다운 경치와 자연환경을 보고 자기 고향 네덜란드의 해안도시인 “질란드”의 이름을 따서 “뉴질랜드(New Zealand)”라고 명명하였다.⁴⁸⁾ 이후 1769년까지는 다른 유럽인이 이곳에 도착하였다는 기록이 없다. 1769년 10월 7일 영국의 제임스 쿡 선장이 뉴질랜드에 도착하여 6개월 동안 남북섬을 일주하면서 해안선을 조사하여 뉴질랜드 지도를 만들었으며 1792년부터 영국인 고래잡이와 물개잡이들이 뉴질랜드에 들어와 남획을 시작하였다. 이 땅이 영국령으로 선포되어진 것은 1769년과 1774년 사이에 제임스 쿡 선장이 이곳에 세 차례나 상륙하면서 당시 영국왕인 조지 3세의 이름으로 영국령으로 선포되었다. 이후 1800년대에 이르러 상인, 개척자, 고래잡이 및 선교사들의 정착이 쇄도하면서 1840년까지 2,000명의 유럽인들이 이곳에 들어와 살게 되었으며 당시 마오리 인구는 10만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⁴⁹⁾

인구는 공식적으로 영국 식민지가 된 1840년에 원주민인 마오리 인구를 포함하여 불과 10만 명에 지나지 않았으나, 1908년에 100만 명으로 성장하였다. 1952년에는 200만 명을 넘어섰고, 1973년에는 300만 명이 되었으며, 1974년 이래 60여만 명이 증가하여 1996년에는 366만 명이 되었다. 그리고 2004년 2월 현재 403만 명에 이르고 있다.⁵⁰⁾ 이 인구 증가의 오분의 일은 순수한 이민에 의한 것이었다.⁵¹⁾

3. 정치적 요인

1852년 뉴질랜드는 영국으로부터 자치권이 인정되었으며, 1890년 정당정치가 탄생하여 자유당과 개혁 세력인 혁신당이 정치를 주도하였다. 뉴질랜드는 가장 빠른 시

48) 재뉴질랜드 한인회, “뉴질랜드 개요” 2004 뉴질랜드 한인 가이드 북 (오클랜드: 2003), 32.

49) 배성준, 뉴질랜드 경제개혁의 진행과정에 대한 연구 (서울: 서울대학교 대학원, 1999), 4.

50) 뉴질랜드 통계청, <http://www.stats.govt.nz/NR/rdonlyres/33BAC231-A3E9-45D7-80A4-AFEF65769008/0/cssnap7.pdf>

51) 김영성, “뉴질랜드의 인구변동”, 43-44.

기에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입법이 이루어진 나라이다. 1890년 최초의 1인 1투표 제도에 의한 일반선거가 실시된 이후, 1893년에는 미국이나 영국보다 25년 빨리 세계 최초로 여성의 참정권이 인정되었다. 노사관계 및 임금 규제법이 제정되고, 노령연금법이 1898년에 의회에서 통과되었으며, 1911년에는 과부에게까지 확대되었다. 또 1926년에는 저소득층 가족을 위한 가족법(Family Allowance Act)이 시행되었다. 이러한 조치들은 결국 1938년 노동당 정권에 의해 특별소비세에 의해 기금이 조성되는 무료의료서비스의 제공과 연금확대를 규정하는 사회보장법이 도입됨으로써 포괄적인 사회보장제도로 정착하게 되었다. 한편 뉴질랜드는 1907년 9월 27일에 영국의 자치령으로 독립하게 되었으며 현재는 노동당의 당수인 헬렌 클락이 정치의 수반인 총리를 맡고 있다.

뉴질랜드 의회는 하원만 있는 단원제이며 지역구와 비례대표제를 혼합한 형태로 총 의원 120석 중 지역구 64석(마오리 5석), 전국구 56석으로 구성되어 있다(96년 선거부터 변경). 뉴질랜드는 독립국가인 동시에 군주 국가이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인 총독(GOVERNOR-GENERAL)은 총리의 추천을 받아 임명되며, 여왕의 합법적인 권한대행으로서 영국왕실을 대표해 공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총독은 총리의 추천을 받아 임명되며 임기는 5년이다. 그의 가장 중요한 공무는 의회의 다수당 당수가 정부를 구성하도록 조정하고 의회에 제출된 법안이 법으로 명문화되기 전에 사전승인을 하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총독은 정부각료들의 조언을 따라야할 의무가 있으나 정부가 헌법에 명백히 위배된 정책의도가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이 조언을 거부할 수도 있다. 이를 총독의 예비권력이라 한다.

뉴질랜드는 웨스트민스터 스타일의 정부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유일한 입법회의소인 하원만이 존재하는 단원제를 말한다. 총독과 하원은 뉴질랜드 의회를 구성하며 이 의회가 법을 제정하는 입법부가 된다.

정부는 총리를 내각의 수반으로 하고 총리는 정부 각 부처의 장관들을 임명, 내각을 구성한다. 내각에 포함되지 않는 장관들도 있는데 이민성, 산업개발장관, 청소년성, 소비성장관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현재의 총리는 헬렌 클락이며, 1993년 총선 이후 두 번째 구성한 내각으로 총리포함 23명의 장관들이 포진되어 있다. 뉴질랜드 내각의 두드러진 특징은 각 부처의 장관들이 단 한 부처만을 관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관련 부처의 장관 및 차관직을 동시에 겸직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돈 맥키는 부총리의 경우 외무, 무역성, 태평양 관련성 장관을 겸직하고 있으며, 법무성의 그레함장관은 문화성, 군비축소성, 와이탕이 조약 철회성장관직도 함께 맡고 있다.

뉴질랜드의 정부형태는 중앙정부와 지역정부 그리고 지방정부로 되어 있다. 지방 정부는 중앙정부로부터 정치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상당부분 독립, 자율적으로 운영된다. 지방정부는 세 개의 카테고리로 나뉘는데 레지오날(regional), 테리토리알(territorial), 스페셜 오소리티(special authority)가 그것이다.

4. 경제적 요인

역사적으로 뉴질랜드는 농산물과 양모, 육류와 같은 축산물이 경제활동의 주류를 이루어왔다. 1860년대의 골드러시로 인하여 많은 이민자들이 유입되기는 하였지만 경제활동의 주류는 여전히 농업과 축산업에 기초한 것이었다. 19세기 후반의 냉동기술의 발달은 유럽 특히 영국으로 육류를 수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경제를 더욱 확장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뉴질랜드의 수출은 역사적으로 영국 시장에 크게 의존하였다. 2차 세계 대전 이전까지 총수출의 약 80퍼센트가 영국에 대한 것이었다. 1950년대까지만 해도 수출의 삼분의 이가 영국에 대한 것이었지만 점차 감소하여 1973년 영국이 유럽 경제 공동체(European Economic Community)에 가입한 이후 급속히 감소하여 1990년대에는 10 퍼센트 미만으로 줄어들었다.⁵²⁾ 그 대신 태평양연안 국가에 대한 수출이 증가하는데, 오스트레일리아는 최대의 교역국이 되었으며, 그 다음은 미국, 일본, 영국, 한국 순으로 수출을 하고 있다.

한편 뉴질랜드는 1973년 1차 석유파동 이후 경제적 위기에 대응하여 경제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강화하고 경제를 더욱 외부와 고립시키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경제가 더욱 악화되었으며, 1984년 외환위기에서 비롯된 경제적 위기를 맞게 된다. 이후 약 10년 동안 경제 각 분야에 걸쳐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고 시장원리를 무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경제 개혁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선진국 중 가장 규제가 심한 국가에서 이제는 가장 규제가 없는 자유로운 국가로 변신하였다.

52) 김영성, "뉴질랜드의 인구변동", 7.

5. 언어적 요인

공식적으로 뉴질랜드에서 통용되는 언어는 영어와 마오리어이다. 그러나 주된 상용어는 영어이다. 영어는 거의 모든 뉴질랜드인들이 사용하는 언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오리어는 여전히 마오리족들 사이에서 사용되고 있다. 뉴질랜드의 많은 지명, 식물 이름, 새 이름들은 마오리어로 되어 있고, 많은 마오리어가 뉴질랜드의 영어에 차용되어지고 있다.

현재 뉴질랜드의 문맹률은 1926년부터 조사를 중단하였으나, 대부분 이민과 의무교육의 완비로 문자해독률은 99.8퍼센트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제 2 절 뉴질랜드의 이민 현황

뉴질랜드의 인구 변동은 마오리인들의 인구변동과 아울러 비 마오리인들의 변동을 살펴보도록 한다. 특별히 비 마오리 인구의 변동은 뉴질랜드 사회의 구성원들의 변화를 보여주며, 뉴질랜드 사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이끌어준다.

1. 뉴질랜드의 인구 변동

지역 인구는 단순히 생물학적 수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인구는 경제, 사회, 문화, 정치 및 자연적 상황과 상호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이들을 표현한다. 또한 인구는 구성단위의 출생, 사망, 및 이동 등에 따라 그 양과 질이 변동되는 인구운동 내지 인구과정을 겪으며 동시에 사회 경제상의 변동을 일으킨다.⁵³⁾ 뉴질랜드는 선진국 중에서는 인구가 적은 국가이지만 남태평양의 도서국 중에서는 인구가 면적이 대규모인 국가이다. 뉴질랜드의 인구는 유럽 식민 이후 150여 년간 극적으로 성장하였다.

뉴질랜드에서 인구 변동 과정을 파악할 때에는 천년 이상 거주한 마오리의 이주 역사와 19세기 초부터 이입한 유럽인 중심의 식민 역사로 구분하여 이해할 수 있다.

가. 마오리의 인구 변동

마오리는 19세기 전반기까지 그 수와 거주 패턴에 대해서 외부세계에 알려져 있

53) 김영성, "뉴질랜드의 인구변동" 43.

지 않았다. 인류학자나 고고학자는 식민관련 패턴과 경제적 생활수단의 특징에 대하여 추측하고, 인구 규모와 인구 성장에 대하여 추정할 뿐이다. 제임스 쿡 선장은 18세기 중엽에 마오리 인구를 약 40만 명으로 추정하였으며, 그의 두 번째 항해 시 수행하였던 Forster는 북섬의 마오리 인구를 약 10만 명으로 추산하였다. 유럽 식민 초기 마오리 인구는 조사자와 조사 방법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다. 마오리 인구는 1815년에 15만 명, 1835년에 12-20만 명, 1837년에 16만 명, 1840년에 11만-16만 명, 1846년에 11만 명 등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1769년부터 1858년(최초로 마오리 인구를 조사한 센서스 실시 년도) 간 마오리 인구가 감소한 사실이다. 마오리 인구는 1874년에 47,330명, 1878년에 45,452명, 1886년에 43,927명, 1896년에 42,113명 등으로 감소되었다. 마오리 인구의 60퍼센트가 60년 동안 감소되었던 것으로 추산된다.

<표 1> 마오리 인구추계⁵⁴⁾

시 기	인구(명)	추계자비고	시 기	인구(명)	추계자비고
1814-15	150,000	J. I. Nicolas	1841	107,219	Halswell
1835	105,400	W. Williams-북섬	1842	100,000 미만	E. J. Wakefield
1835	200,000	W. Williams	1842	150,000	C. Terry-북섬
1835	120,000	공식문서	1844	114,890	E. Dieffenbach
1835	160,000	W. Yates	1846	109,550	G. Clarke
1837	158,300	J. S. Polack	1853	120,000	G. Grey
1840	160,000	J. Ward	1853	63,000	R. Taylor
1840	114,000	공식문서	1853	60,000	D. Mclean
1840	120,000	N.Z. Colonial Blue Books	1853	56,400	A. S. Thomson

자료 : Dept. of Statistics, 1951 Census : Maori Population, pp.50-1

유럽인의 식민(그리고 아마 유럽인과의 접촉)이 시작된 이래 19세기 말까지 지속된 마오리 인구의 감소 요인은 광범위하지만 주로 질병과 전쟁이었다. 유럽인에 의해 전파된 주요 전염병은 장티푸스, 홍역, 성병 및 결핵 등이었다. 이들 질병은 밀집되고 비위생적인 마오리 취락에서 빠르게 전염 확산되었다. Tasmania에서 들어온 홍역으로 1845년에 4,000명의 마오리가 사망하였다. 성병은 출산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으며, 전통적인 치료는 효험이 없었다.⁵⁵⁾

54) 김영성, "뉴질랜드의 인구변동", 46.

55) G. W. Rice ed., *The Oxford History of New Zealand* 2nd Edition (Oxford Univ. Press:

마오리 인구의 감소는 질병 이외에 화학 무기의 도입에 의한 대살육전에서도 기인한다. 마오리 부족 간 전쟁으로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또한 마오리는 1860년-70년 사이 토지전쟁(일명 마오리전쟁 또는 반유럽인전쟁)으로 약 2,000명이 사망하였으며, 전쟁으로 많은 취락지구는 보건, 위생 환경이 열악해졌다. 그리고 새로운 사고양식과 사고방식, 전쟁 패배 후의 절망감 등이 인구 감소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쳤다.⁵⁶⁾

마오리의 소멸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한 유럽인이 있었지만 마오리 인구는 20세기에 들어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마오리 인구는 1896년부터 제1차 세계대전까지 연간 1퍼센트씩 증가하였으며, 1921년 이후 1950년대까지 연평균 증가율이 2퍼센트로 상승하여 전국 인구 증가율의 두 배가 되었고, 1960년대 초기의 증가율은 연평균 4.4퍼센트에 달하였다. 이러한 높은 증가율은 1970년대 중반까지 계속되었으나, 1980년대에 들어서서는 다소 떨어졌다.

마오리 인구에 대해서는 세 가지의 정의가 있다. 순수한 마오리 혈통을 가진 자를 마오리라고 하고, 스스로 자신을 마오리 인종에 속한다고 말하는 사람을 마오리라고도 하며, 마오리에 속하거나 다른 인종과의 혼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마오리라고 하는데, 인구통계에서는 세 번째의 마오리를 마오리라고 한다. 1996년도에는 전국 인구의 13퍼센트가 마오리였으며, 2002년도에는 약 14퍼센트에 달하고 있다.⁵⁷⁾ 2001년도의 뉴질랜드 인구센서스에 의하면 뉴질랜드 거주 마오리는 526,281명으로 전체 인구의 7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⁵⁸⁾

나. 비 마오리 인구변동

뉴질랜드는 1769년 유럽인에게 재발견된 이후, 공식적으로 영국 식민지가 될 때(1840년)까지 소수의 유럽인이 거주하였다. 유럽인은 1839년에 약 1,000명이었다. 1840-85년간 식민 초기의 이민은 인구 증가에 큰 몫을 하였다. 이민은 남자 중심의

Auckland, 1992) 34-53.

56) Dept. of Statistics, New Zealand Official Year Book (N.Z., 1965), 1185.

57) 외교통상부, *세계각국편람* (서울: 2002), 87

58) 뉴질랜드 통계청, <http://www.stats.govt.nz/NR/rdonlyres/33BAC231-A3E9-45D7-80A4-AFEF65769008/0/cssnap7.pdf>

노동인구가 많았다. 따라서 가족 이민이 많아 인구의 자연증가율이 높았다. 유럽인은 식민초기에 주로 해안지대에 정착하였으나, 그들은 1850년대 초에 새로운 자원개발지와 내륙 평야지대로 거주지를 확대시켰다.

남섬의 인구는 1858년에 전국 인구의 42.6퍼센트를 차지하였으나, 남섬이 북섬에 비해 경제발전이 급속히 진행되며 인구도 따라서 가파르게 증가하였다. 금광의 발견과 이에 의한 인구 이동은 남섬의 인구비를 높였다. 새로운 인구 집중지가 Otago 지방과 West Coast 지방의 금광 지구에 생겨났다. 광부뿐만 아니라 사업가와 농민이 신흥취락으로 이동하여 남섬의 인구는 북섬 인구를 능가하게 되었다. 남섬 인구는 1867년에 전국 인구의 63.4 퍼센트에 이르렀다. 해외로부터의 이민은 1860년대 말부터 금광 쇠퇴와 더불어 줄어들었다. 하지만 해외로부터의 이주는 꾸준히 늘어 1840-1881년 간 해외로부터 이입된 인구수는 30만 명을 넘었다. 1885년경 비 마오리 인구는 약 50만 명으로 이 중 뉴질랜드 태생이 50 퍼센트 이상이었다.

1880년-1890년대는 이민의 변동이 심한 시기였다. 1883년과 1884년에 순이동자는 각 1만 명이었으나, 1888년에는 이입자보다 이출자가 9,200명이나 많았다. 1890년과 1891년 역시 이출자가 많았다. 그러나 1893년에는 이입자가 많았다. 이와 같은 변동은 부정기적으로 발생하였는데, 이는 경제 상태와 이민 장려정책과 관련되었다. 1881년-1926년 사이 이민은 인구 성장에 4분의 1정도 기여하였다.

1880년 이후 남섬의 금광붐이 끝나면서 북섬으로의 인구 이동이 시작되었다. 이는 유럽인의 정착에 대항한 마오리 저항의 종식, 새로운 농업개발, 농경지 확보를 위한 삼림제거, 그리고 타임(Tames)지방에서의 금광개발 때문이었다. 특히 냉동선의 출현은 북섬의 농,목축업 발전을 고무시켰으며, 남섬의 인구를 북섬으로 끌어당겼다. 북섬의 인구는 1881년에 전국 인구의 39 퍼센트였으나 1926년에 63.4퍼센트로 전환되었다. 1921년 자료에 의하면 북섬 태생 인구의 5퍼센트가 남섬에 거주한 반면, 남섬 태생의 24퍼센트는 북섬에 거주하였다.⁵⁹⁾

그 이후 뉴질랜드 인구는 이입되는 이민자들의 수와 함께 급속한 성장을 하게 되었다.

59) 김영성, "뉴질랜드의 인구변동", 46-47.

2. 뉴질랜드 인구 변동의 주원인으로서의 이민

뉴질랜드의 인구 변화는 국제사회 및 경제적 우세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고 있다. 주기적인 경기침체와 회복, 금광붐과 세계 대전, 그리고 뉴질랜드 정부의 이민정책 도입 등이 뉴질랜드 인구 증가에 일정한 변화를 주었다.⁶⁰⁾

뉴질랜드 정부는 1880년대에 이민지원정책을 도입하게 되는데 이로 인하여 뉴질랜드 인구는 5만 명이 증가하였다. 뉴질랜드 인구가 1908년에 100만 명을 넘게 된 것은 1880년대와 1890년대의 공황 이후 경제회복에 따른 여파였다. 세계 2차 대전 이후 뉴질랜드의 인구 증가는 베이비붐과 이민 증가로 인해 1930년대 세계 공황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엄청난 증가를 하였다. 뉴질랜드의 인구수가 200만 명에 도달한 해는 100만 명에 이른 후 44년만인 1952년이었으며, 다시 300만 명에 이른 해는 그 후 21년만인 1973년이었고, 그 후 100만을 더한 400만을 넘는 해는 30년만인 2003년이었다. 이러한 인구 증가의 오분의 일은 순이민의 증가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1926년의 인종구조를 보면, 잉글랜드계 53 퍼센트, 스코틀랜드계 22 퍼센트, 아일랜드계 15 퍼센트, 웨일즈계 1 퍼센트 등으로 영국인이 91 퍼센트이고, 이를 포함한 유럽인이 95 퍼센트 이상이었다. 마오리가 4.5 퍼센트, 기타 비 유럽계는 0.5 퍼센트 미만에 불과하였다. 대부분이 영국인인 백인 중심의 인종구성은 1940년대 초까지 지속되었으나, 제2차 세계 대전 후 태평양 도서국으로부터의 이입이민과 1980년대 후반 이후 아시아인의 대규모 이입으로 유럽인의 구성비는 상대적으로 낮아졌다. 1991년 센서스 결과에 의하면, 유럽인이 78.8 퍼센트, 마오리 9.7 퍼센트, 태평양도서인 3.8 퍼센트, 중국과 인도인 1.9 퍼센트 등이었다.⁶¹⁾ 한국인도 1986년에 154명에 지나지 않았으나, 1991년에 948 명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인종, 민족적 그리고 문화적 다양화는 그 주된 요인이 인구의 국제 이동이지만 인종 간 결혼과 소수 민족의 자연증가도 다양화에 기여하였다.

특히 1987년에 개정된 이민법은 종전에 아시아인들의 이민에 차별적 제한을 두었던 것들을 제거함으로써 아시아인들에게 이민의 폭을 넓혀 주었다. 1986년에 5만 4천 명으로 전 인구의 1.64 퍼센트에 불과하였던 아시아인들은 1991년 10만 명으로 증가하여 전 인구의 2.95 퍼센트로 늘어났다. 이 무렵 전국의 인구는 5년간 3.4 퍼센트 증

6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정보센터, 뉴질랜드 편람 (서울, 1996) 참고.

61) 김영성, "뉴질랜드의 인구변동", 48-49.

가하였지만 아시아인은 86 퍼센트나 증가하였다. 아시아인의 이입은 1991년 이후 계속되어 1992년-1996년 5년 동안 들어온 숫자는 6.8만 명이 들어왔다. 특히 일반이민 정책이 점수제 이민정책으로 바뀌는 1992년 10월 이후에는 아시아인의 이민이 뉴질랜드 이민의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⁶²⁾

2001년 센서스에 의하면 아시아인들은 24만 명으로, 1991년에 비교하여 두 배의 숫자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숫자는 뉴질랜드 인구의 약 7 퍼센트에 달하는 인구이다. 이는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태평양 섬나라 사람들의 숫자인 231,801명 보다 높은 것이고, 뉴질랜드 거주 마오리의 숫자 526,281명과 비교할 때에 상당히 많은 아시아인들이 이주해 왔음을 보여준다. 반면에 1991년 전체 인구의 83 퍼센트였던 유럽인들은 2001년에는 80 퍼센트로 줄어들어 오히려 유럽인들의 증가율은 감소하였다. 한편 아시아인들의 거주지는 전체 아시아인들의 3분의 2가 오클랜드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8분의 1정도가 웰링턴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에 의하면 아시아인들 중에 중국인이 44 퍼센트로 뉴질랜드 거주 아시아인 중에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은 인도인으로 26 퍼센트, 그리고 한국인이 8 퍼센트, 필리핀인이 5 퍼센트, 일본인 4 퍼센트, 스리랑카인 3 퍼센트, 캄보디아인 2 퍼센트, 태국인 2 퍼센트, 그리고 기타 종족으로 8 퍼센트가 거주하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제 3 절 한인 이민 현황

뉴질랜드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 이민 사회의 이민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 하지만 짧은 기간 동안 이민 성장 비율은 2001년 통계로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1. 1949년 -1991년

뉴질랜드와 한국이 본격적으로 접촉하게 된 것은 한국전쟁을 통해서였다. 1949년 7월 한국을 승인한 뉴질랜드는 한국 전쟁이 발발하자 육군과 해군 5,350명을 파병하여 43명의 전사자를 포함해 119명의 사상자를 냈다. 그 후 1962년 3월 외교관계를 수

62) Ibid., 20-21.

립하여 1971년 6월에 주한 뉴질랜드 대사관이, 같은 해 7월에 주뉴질랜드 한국 대사관이 개설되었다. 그러나 1987년 뉴질랜드 이민법이 개정되어 한국인들의 이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까지 일반에게 뉴질랜드는 낯선 나라였고, 실제로 양국의 관계도 주로 무역과 관련된 각종 협정의 수준에서 유지되었다. 사실 1970년대에서 80년대 중반까지 뉴질랜드는 한국인들에게 양이 많은 나라 정도로 인식되었고, 복지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 막연한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정도였다.

1987년 투자이민이 허용되기 이전까지 한국인들에게 뉴질랜드는 낯선 나라였으며 아시아인의 이민이 힘들었기 때문에 뉴질랜드에는 주로 취업, 결혼 등을 통해 이민이 허용된 소수의 한국인들만이 있었다. 1974년 김진영씨가 최초로 취업이민을 한 것을 비롯하여 1984년부터 1986년까지 공식적으로 국제결혼이 4명, 취업 이주가 8명 있었다. 뉴질랜드 인구센서스에 의하면 이들을 포함하여 한국 태생 이민자는 1986년 말까지 162명으로 조사되었다. 1945년 센서스에 의하면 4명의 한국 태생 남자가 뉴질랜드에 거주하였으며, 1961년에는 52명으로 발표되었는데 이중 원양어선 선원으로 추측되는 42명을 제외하면 10명(남자 6명, 여자 4명)이 상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1명이 1911년 이전에 입국하였는데 이 사람이 최초의 한국 태생 이민자일 가능성이 있다. 그 후 한국태생 이민자의 수는 1971년 조사에서 129명으로 나타났는데 이중 어업 전진기지에서 조사된 103명의 남자를 제외하면 상주인구는 26명(남자 14명, 여자 12명)이었으며, 1981년의 선원을 제외한 상주인구는 87명(남자 33명, 여자 54명)이었다. 1980년부터 신이민이 시작되기 전인 1991년까지 한국태생의 대부분을 포함한 교민과 체류자의 현황은 표2에 나타나 있다.⁶³⁾

<표 2> 뉴질랜드의 한국인수(1980-1991)

연도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교민	50	55	38	40	51	66	63	111	98	141	593	722
체류자	54	41	45	38	53	56	91	90	101	101	61	226
선원					356	315	142	341	491	212	294	293
계	104	96	83	78	460	437	296	542	660	454	948	1241

자료: 외무부, 1980-1991, 재외국민현황

63) 구봉규, "이민을 통한 한국 중산층의 지위 재생산 전략" (서울: 한양대학교 대학원, 1997), 18-19.

1987년에 투자이민이 허용되기 전 뉴질랜드에의 이민은 베트남 전쟁 후 철군하던 사람들 중에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주해왔다.

2. 1992년 이후

극히 제한된 형태로 유지되어온 뉴질랜드 이민은 1991년 뉴질랜드의 이민정책이 바뀌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나이, 학력, 경력, 정착자금 등의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는 누구나 이민을 허용하는 점수제 이민이 실시되면서 아시아 각국의 젊은 엘리트층이 대거 뉴질랜드로 몰려들어왔는데, 그 흐름에 한국인들도 동참하게 되었다.

한인들의 뉴질랜드 이민은 1992년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한국인들에게 뉴질랜드가 미국을 대신한 새로운 독립 이민의 대상국으로 부상한 것은 1991년 뉴질랜드의 이민 정책이 점수제로 바뀌면서부터이다. 뉴질랜드 이민은 87년 이전에는 극소수에 불과했으며, 91년까지도 제한된 투자이민이나 취업이민만이 이루어졌다. 인하여 1991년 센서스 조사 자료에 의하면 930명이 뉴질랜드에 거주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일정한 나이와 학력 및 경력만 갖추면 누구나 이민을 허용하는 쪽으로 이민법이 바뀐에 따라 1991년 404명에 불과하던 한국 이민자의 수가 92년 2158명, 93년 2967명, 94년 4708명으로 해마다 급격한 증가를 보였다(그러나 1995년에는 전년도보다 조금 줄어든 3635명이었다).

인하여 급격한 증가로 한인 이민 사회가 뉴질랜드에도 형성되게 되었다. 그러나 현지 정착이 어렵고, 현지에서의 생계수단인 생업을 갖기 위한 환경이 열악함으로 말미암아 그중 상당수의 사람들이 호주로 이주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었고, 고국으로의 역이민을 가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역이민과 또 다른 나라로의 이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민자의 수는 증가하여 뉴질랜드 거주자의 수는 외교통상부의 자료에 의하면 2001년 당시, 18,328명에 이르고 있다.⁶⁴⁾

64) 외교통상부, *재외동포현황* (서울, 2001) 55-57.

외교통상부 통계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뉴질랜드 통계청의 자료에 의해서 볼 때에도 1991년 930명이었던 한인 이민자의 숫자가 2001년에는 19,023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있다.⁶⁵⁾ 이와 같은 통계는 뉴질랜드로의 이민을 오는 나라 중 한국이 최고로 높은 이민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1991년 대비 2001년의 한인 이민 성장률은 1,946 퍼센트라고 하였다.⁶⁶⁾ 이는 뉴질랜드 거주 종족별 성장률 제 1위를 차지하는 것이며, 뉴질랜드를 향한 한국인의 이민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향후 한국인들의 이민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을 보여주는 것이다.

3. 한인 이민자들의 오클랜드를 중심한 거주

오클랜드 지역은 뉴질랜드 거주 아시안들의 3분의 2가 거주하며, 태평양 섬나라 사람들의 3분의 2가 거주함으로, 오클랜드의 8분의 1이 아시안, 8분의 1이 남태평양 섬나라 사람들, 그리고 10분의 1이 마오리인들로 구성된 뉴질랜드 최대의 도시 지역이다. 뉴질랜드 거주 한인들은 주로 오클랜드에 집중하여 살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아래의 <표 3>이 보여주는 것과 같이 웰링턴에 거주하는 수는 700명, 크라이스트 처치가 3,500명, 더니든이 310명, 팔머스턴 노스가 208명이며, 와이카토가 622명, 베이 오브 플랜티가 368명, 그리고 기타 지역의 수가 254명인데 반하여 오클랜드에 거주하는 교민의 수는 11,454명에 이르고 있다.⁶⁷⁾

<표 3> 2001년 뉴질랜드 동포 현황

지역	웰링턴	크라이스트처치	더니든	팔머스턴노드	오클랜드	와이카토	베이오브플랜티	기타
동포총수	700	3,500	310	208	11,454	622	368	254

자료: 외교통상부, 재외동포현황, 2001.7

이는 뉴질랜드의 인구분포와 깊은 연관이 있다. 2003년 뉴질랜드의 인구는 403만 명이었다. 그중 약 100만여 명이 오클랜드에 살고 있으며, 이러한 오클랜드로의 인구 집

65) 뉴질랜드 통계청, <http://www.stats.govt.nz/NR/rdonlyres/33BAC231-A3E9-45D7-80A4-AFEF65769008/0/cssnap7.pdf>

66) Ibid.

67) 외교통상부, 재외동포현황 (서울, 2001.7), 55, 57.

증화는 계속 가속화될 것으로 현지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오클랜드는 거주인구가 많음으로 인하여 생업의 기회가 타 지역에 비해 훨씬 많으며, 주거 형태와 교육의 환경이 타 지역에 비해 상당히 높은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한인 이민자들은 오클랜드를 중심으로 밀집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중에 특히 북쪽 연안(North Shore) 지역은 영어 다음으로 한국어가 제2의 언어⁶⁸⁾가 될 만큼 많은 한국인들이 살고 있으며, 교회 또한 이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제 4 절 한인 이민 교회의 현황

웰링톤 한인교회의 자료에 의하면 1985년 12월 1일 웰링톤 한인교회가 창립예배를 드림으로 정상적인 교회의 형태를 갖춘 한인 교회가 시작되었다. 이 교회는 1980년부터 가정을 순회하며 모였던 기도 모임이, 1983년 김용환 목사가 참여하고, 1985년도에 창립 예배를 드림으로 비로소 규모를 갖춘 교회로 발전하게 되었다. 창립 예배에는 김용환 목사와 7 가정의 한인들, 그리고 삼원 수산 선원 등 30명의 성도들이 참석하여, 외항 선원 선교라는 기치 아래 드러졌다.

오클랜드에서는 1988년 3월 25일 장옥윤 목사의 인도 아래 오클랜드 한인교회가 설립됨으로 비로소 오클랜드에도 한인 교회가 시작되었다. 통계에 의하면 1988년도에 뉴질랜드 전체에 선원 491명을 포함한 660명이 거주하였던 것으로 볼 때에, 뉴질랜드에는 아직 한인들의 거주 숫자가 미약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 후 오클랜드 한인교회는 이민자 수의 증가와 더불어 꾸준한 성장을 이루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91년 변경된 이민정책에 의하여 1992년 이후 급격히 늘어난 한인 이민자의 수는 교회의 부흥과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이 무렵을 전후하여 몇몇 한인 교회들이 설립되기도 하였다. 오클랜드 한인 목회자 협의회와 고명권 목사에 의하면 1996년도에는 15개 정도의 교회만이 오클랜드에 있었다고 한다.

이후 1997년 한국의 경제가 국제통화기금(IMF) 구제 금융체제로의 진입과, 1998년 이민을 위한 점수가 높아지는 뉴질랜드 이민 정책의 변화로 말미암아 뉴질랜드 거주 한인의 숫자는 급격히 줄어들었다. 이 무렵 교회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더불어

68) 뉴질랜드 통계청, <http://www.stats.govt.nz/NR/rdonlyres/76191E04-DBA0-46D2-ABB7-863025170623/0/cssnap6.pdf>

겪어야 하였으며, 교회 수는 정체되거나 혹은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이후 1999년 장기 사업 비자를 허락하는 이민정책으로의 변화는 다시 뉴질랜드 이민을 원하는 한국인에게 문을 크게 열어주었고, 2001년 통계는 뉴질랜드 거주 한인 숫자가 19,000여 명이라는 수에 이르게 되었다.

이민자들의 숫자가 늘어남과 동시에 또 다시 한인 교회의 숫자는 증가하였다. 인하여 2002년 말에는 약 60개의 교회가 오클랜드를 중심으로 주변에 존재하게 되었고, 2003년 말에는 약 90-100여개의 교회가 존재하게 되었다.

이러한 교회 숫자의 증가에는 고국에서 남태평양 선교를 위한 일환으로 파송을 받아 뉴질랜드에 거주한 선교사들에 의하여 설립된 교회도 있고, 고국의 대형 교회들이 지교회를 설립할 목적으로 설립한 교회들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더욱 큰 영향을 주었던 증가의 요소라면 교회의 분립이었다. 어떠한 연고가 되었든, 한 교회에서 담임목사를 도와 섬기던 목회자가 교인들과 함께 교회를 분리하여 교회를 개척하는 사례들이 발생하였고, 같은 교회를 다니던 교인 몇몇이 어울려 교회를 이탈하여 목회자를 초빙하고 새로운 이름으로 교회를 시작하는 일들이 빈번히 발생하였다. 뿐만 아니라 평신도였던 교인이 어느 날 갑자기 교단 소속이 불분명한 목회자가 되어 교회를 설립하는가 하면, 한국에서 이단으로 정죄된 교회들이 해외로의 성장을 도모하며 지교회를 설립함으로써 교회 수는 더욱 증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여러 가지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에 오늘날 오클랜드를 비롯한 주변 도시에 약 100여개의 교회가 설립되어 있다고 하지만 오클랜드 한인 목회자 협의회의 관계자의 말대로 가입 교회 46개 교회를 포함, 그리 많지 않은 교회들만이 신학적으로 또 복음적으로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다.

제 4 장

전략으로의 이민교회 일반적 사역

이민교회는 한인교회도 아니고 그렇다고 뉴질랜드 교회도 아니다. 또한 뉴질랜드의 한인교회는 역사가 깊지 못하다. 따라서 뉴질랜드 이민교회는 독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 독특성을 중심으로 복음화 전략을 세워야 한다. 이에 한인 이민사회를 살펴 보면서 교회의 일반적인 사역을 통한 전도전략을 수립하고자 한다.

제 1 절 한인 이민 사회에 대한 이해

한인 이민 사회를 위한 복음화 전략을 위하여 본 연구자는 기독교 교육적 관점에서 이해를 시도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기독교 교육 센터를 중심한 사역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나아가 교회 안에서의 복음화 전략은 목회적 관점에서 이해하도록 한다.

1. 한인 이민 사회에 대한 이해 - 정착 초기 단계의 한인 이민 사회

뉴질랜드 한인 이민 사회는 아직 새로운 땅에 정착 단계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1991년 930명이었던 뉴질랜드 거주 인구가, 2001년 19,023명으로 20배 이상 성장한 한인 이민 사회는 아직 현지에 뿌리내리지 못한 초기 단계에 있다. 새 땅에 이주해온 이민자들은 아직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거나 정착되지 못한 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훨씬 많다.

이들이 현지에 적응하지 못하는 제일 첫 번째 장애 요소는 언어문제이다. 이는 미국의 이민자들에게도 마찬가지 현상이었다.⁶⁹⁾ 영어를 이미 사용하고 있는 일부 아

69) 정우송, "이민 교회의 다중적 사역을 위한 목회신학적 고찰," 목회학 박사학위 논문, 풀러

시아 국가들에서 온 이민자들은 영어 사용에 있어서 큰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그러나 대부분의 아시아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영어로 인한 문제가 큰 장애 요소로 나타나고 있다. 뉴질랜드에 이민 오기 전에 한국에서 영어를 준비하고 오는 경우들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어를 준비하고 와도 현지에서는 적응하기 어렵다는 것이 실제적인 고백이다. 전혀 익숙하지 못한 문화 속에서 언어가 통하지 않는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는가를 이해하기는 그리 어렵지 않다. 언어는 문화의 한 부분이요, 한 기구이며, 하나의 모형이다.⁷⁰⁾ 따라서 언어는 문화를 전승하는 도구가 된다. 그러므로 이 언어가 불편하다는 것은 사회 속의 고립을 의미한다.

두 번째 현지 적응의 장애 요소는 한국과 전혀 다른 경제 구조적 문제이다. 뉴질랜드에 살고 있는 한인 이민자들의 실제적인 경제활동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뉴질랜드의 한국 이민자들은 이민 생활이 1년이 넘으면 대부분이 뉴질랜드의 삶에 실망하게 된다고 하였다. 실망하는 큰 이유는 직업을 구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크라이스트처치의 한국 이민자들의 경우에도 취업을 하거나 장사를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넉넉히 잡아서 10-20 퍼센트에 불과하다고 한다.⁷¹⁾ 그러나 뉴질랜드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2003년 말 실직율은 45 퍼센트에 불과하다. 아울러 뉴질랜드는 세계적으로 소문난 사회보장제도 국가이다. 따라서 이들이 고용 서비스 센터를 찾지만 하면 얼마든지 고용의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인 이민자들이 이곳을 이용하기를 거부하는 이유는 주로 이들이 소개하는 직업군이 단순 노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한국에서와 다른 경제 구조가 이들로 하여금 현지 적응을 하는 데에 장애 요소로 주목되고 있다.

세 번째 한인 이민 사회가 아직 초기의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장기적으로 거주하는 이민자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뉴질랜드 이민자 중의 많은 사람들이 자녀 교육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민자들과 대화를 나누어보면 그들의 이민의 동기를 자녀 교육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따라서 이들은 자녀 교육의 기회가 충족되었다고 생각되면 또 다른 나라로 떠나버린다. 이들은 호주로, 캐나다나 미국으로 또 다른 자녀교육의 기회를 얻기 위하여 이민을 떠난다. 만약 자녀

신학대학원, 2001, 36.

70) Eugene A. Nida, *Customs and Culture* (Pasadena: W.C.L., 1975), 213.

71) 구봉규, "이민을 통한 한국 중산층의 지위 재생산 전략", 61.

들을 뉴질랜드에 두고자 하는 경우에 있는 부모라면 그들은 자녀들만 두고 경제 활동을 위해 뉴질랜드를 떠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뉴질랜드에 장기적으로 거주한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뉴질랜드 한인 이민 사회는 반복적인 초기 이민자들의 정착으로 말미암은 초기 단계를 답습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원인들에 의하여 한인 이민 사회는 잦은 인구 흐름에 의한 불안정성을 갖고 있다. 고국으로의 역 이민이나 또 다른 나라를 찾아 떠나는 이민자들의 숫자는 결코 줄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입되는 이민자의 수는 늘고 있음으로 인해 뉴질랜드 거주 한인 이민 사회는 성장하고 있다.

뉴질랜드 거주 한인 이민 사회를 위한 이민 교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 이곳의 한인들을 복음화하고 이들로 하여금 이 사회 속에서 영향력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케 하는 일을 하는 것은 이민 교회의 과제이다.

2. 오클랜드를 중심으로 한 이민 교회의 사역과 역할

이민 교회는 짧은 기간이지만 뉴질랜드 사회 속에서 형성되어가는 한인 커뮤니티 사회를 이끌어가는 또 하나의 중심축으로 교회는 자리매김을 하였다. 이민 사회의 정착 단계에서 이민 교회는 이민자들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유지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교회는 이민 사회를 위하여 상담, 교제, 상호 협조, 경제적 도움, 그리고 수많은 크고 작은 서비스를 제공해주며 이민 사회 속의 한 부분으로 자리매김을 하였다. 교회는 이민자들에게 이민에 대한 수속을 도와주고, 직업알선, 집 렌트, 건강 보험, 자녀 교육 등의 업무를 지원하여 주었다.

한인 교회는 정체성을 심어주는 일환으로 한국어를 가르쳤으며, 한국 문화를 알려주고, 한국의 고유 풍습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다.

또한 이미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친인척이 없는 새로운 이민자들에게 정착 서비스를 제공해주며 그들에게 새로운 땅에서의 삶의 길을 열어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고국을 떠나온 이주자들에게 교회는 또 하나의 가정적 분위기를 제공해주며, 그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안식처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오클랜드의 교회 중 소수의 몇몇 교회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은 가정 교회의 형태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형태를 이루면서도 교회로서의 존재가 가능한 것은 이민자들이 고국에서

경험하였던 가정생활의 안락감을 이국에서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필요성을 채워주는 교회는 그들에게 안식처가 될 수 있었다. 따라서 가정적인 역할을 감당해주는 교회는 크든 작든 이민 사회의 한 교회 형태로 존재하게 되었다.

이러한 이민 교회의 역할은 이미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등 뉴질랜드보다 앞선 이민의 역사를 가진 나라에서 초창기 교회에서 나타났던 양상들이다.

미국 이민 교회를 중심으로 연구한 정우송은 이민 교회의 역할에 대하여 가정적인 분위기로서의 교회 역할과 브로커로서의 역할, 그리고 정체성 보존을 위한 역할로 미국 이민 교회를 설명하였으며,⁷²⁾ 이러한 이민 교회의 양상은 뉴질랜드 한인 사회 속의 한인 교회가 안고 있는 오늘의 모습이기도 하다.

한편 뉴질랜드 한인 이민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 중 결코 무시될 수 없는 그룹은 유학생과 그들과 함께 와 있는 가족들이다. 미국이나 여타 지역과 달리 뉴질랜드에 유학을 온 학생들의 연령층은 대학 이전의 학생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유학생들을 위한 사역이 한인 교회에서 감당해야 하는 또 하나의 역할이다. 가족과 떨어져 사는 외로움을 달래주고, 신앙인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해주어 그들에게 성숙된 신앙인으로의 길을 안내해주는 일은 한인 교회가 담당해주어야 할 역할이다.

아울러 그들과 함께 들어온 가족들을 돌보는 사역도 또 하나의 중요한 이슈이다. 자녀 교육의 목적으로 부부가 떨어져 생활하는 소위 말하여 기러기 가족을 이룬 가정들을 돌보는 교회의 가정 사역은 현실 속에서 만나는 또 하나의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

상처 입은 가정을 위한 신앙 안에서의 상담과 치료의 사역은 이민 사회 속에서 교회가 감당해야하는 역할로서의 과제로 남아 있다.

3. 이민 교회의 요소

가. 전도를 위한 정착 서비스

뉴질랜드의 한인 이민 교회는 이민 초창기에 교회가 이민자들에게 정착 서비스를 제공해줌으로 교회가 성장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교회는 이민자들에게 새로운 땅에서의 삶을 위한 방법과 기회를 안내해주고, 그들의 불안한 심리와 생활에 안정감

72) 정우송, "이민 교회의 다중적 사역을 위한 목회신학적 고찰," 25-27.

을 제공해 줌으로 이민자들이 정착하는 데에 도움을 주었고, 이러한 사회적인 요소는 여전히 새로운 이민자들이 이입되는 한 계속될 요소로 남게 되었다. 아울러 유학생들에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 줌으로 교회는 사회적인 영향력을 주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사회적인 요소가 새로운 신자를 얻게 하는 전도의 기회를 제공해 주었고, 결과적으로 교회 성장의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나. 예배

오클랜드에 소재하는 교회 중, 자체 건물을 가진 교회는 2003년 말 현재 100여 개의 교회 중에 10 퍼센트도 되지 않는, 7개의 교회밖에 되지 않는다. 거의 모든 교회들이 현지 교회나, 학교의 강당, 커뮤니티 홀을 시간당 임대료를 지불하고 빌려서 사용하거나, 아니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처럼 주일, 수요일, 금요일을 비롯한 매일의 새벽기도회를 마음대로 가질 수 없는 것이 현지 사정이다. 인하여 주일 혹은 주중에 모이는 예배는 현지 이민자들에게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예배 중심의 교회 사역이 현지 목회 사역의 주가 되고 있으며, 이민 교회 안에서 예배가 갖는 의미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다. 교제

이민 교회가 갖는 가정적인 역할은 이민 교회의 또 하나의 요소를 규정한다. 고국을 떠난 성도들이 함께 어울려 교제를 나누는 것은 외로운 이민자들에게 귀한 나눔의 시간이다. 때로는 성도 상호 간의 아픔을 대화를 통해 해소하고, 생활 속에서 경험하였던 이민 생활들을 이야기함으로 서로에게 정보를 주고받는다. 성도들은 교제 시간을 통하여 이민 사회의 새로운 정보들을 얻으며, 신앙적일뿐 아니라 사회적인 필요들이 충족되기도 한다. 이러한 교제의 시간을 통해 교회 공동체는 하나 됨을 이루어가며, 지체 의식이 함양되게 되었다. 특히 유학생들에게는 이러한 예배 후에 갖는 교제 시간은 그들에게 향수심을 달래주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고국의 음식과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어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고 현지 적응과, 학업의 증진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라. 선교

지난 동안 뉴질랜드는 남태평양의 섬나라 중에 가장 큰 나라로서, 30여 개의 크고 작은 나라들에 복음을 전하는 관문 역할을 하였다. 오클랜드의 서부지역인 헨더슨에 있는 성경대학(Bible College:(BCNZ))는 남태평양 선교를 위하여 80여 년 전에 세워졌으며, 많은 졸업생을 배출하여 남태평양의 선교에 헌신케 하였다. 지난 50년 전만 해도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배출하였던 나라는 뉴질랜드였다. 이러한 현지 교회의 영향을 받은 이민 교회는 해외 선교, 특히 남태평양 선교에 초점을 두고 선교하는 교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선교하는 교회로의 성장은 이민 교회로 하여금 성경적인 교회상을 이루게 하였으며, 성도들로 하여금 주님의 마지막 사명인 선교에의 관심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하였다.

마. 구역모임

교회 내의 크고 작은 구역 모임은 교회를 안정되게 성장하게 하며, 건강한 교회로의 발전을 도모하는 귀중한 소그룹이다. 평신도 지도자를 훈련하여, 그들로 하여금 구역원을 돌보게 하고,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과 삶을 유지하도록 돌보는 일은 매우 중요한 목회 사역의 하나이다. 이민 교회의 요소 중 하나는 이 구역모임이다. 구역 모임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돌보아 즐뿐만 아니라 성도 개개인의 생활을 살피고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아 서로가 서로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아울러 교회가 갖는 가정적인 역할을 개별적인 구역 모임에서 감당해 줌으로 소외감을 느끼는 성도들에게 공동체 의식을 함께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구역 모임은 이민 교회의 또 하나의 요소가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이민 교회의 사역과 역할 그리고 요소에도 불구하고 한인 이민 사회는 여전히 올바른 교회 경신의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새로운 교회상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이상과 같은 뉴질랜드 사회에 대한 이해와 아울러 그 안에 어울려 사는 한인 이민 사회의 변동 속에서 이민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깨닫고 다음과 같은 복음화 전략을 수립하였다.

제 2 절 전략으로서의 이민교회 사역

뉴질랜드의 한인 이민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 길게는 약 14-5년이다. 일반 이민이 활성화된 1992년부터 이주해왔다고 생각할 때에 한인 이민 사회는 이제 이민 10여년밖에 되지 않았다. 그러나 자녀들이 현지에 적응하고, 현지어와 현지 문화에 익숙해져 가면서 잊혀져가는 모국어와 문화들, 그리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모와 자녀들 간의 대화 단절 등은 실제적인 가정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민 1세대와 1.5세대 간의 갈등이 이제 뉴질랜드 한인 이민 사회에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가정에서만 문제가 아니다.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고국 문화에 길들여진 부모들은 한국어 설교가 더 쉽다. 하지만 현지 생활에 익숙해진 자녀들은 고국 문화가 익숙하지 못하며 한국어로 가르쳐지는 교회 교육은 그들에게 낯선 교육이 되어가고 있다. 어느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서 본 연구자는 교회 아이들에게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았다. 그랬더니 상당수의 자녀들이 한국말로 하는 설교가 오히려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이들은 이미 일주일에 5일을 공부하는 현지인 학교생활에 길들여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교육의 방법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한국의 주입식 교육에 익숙하지 못하다. 현지의 창의적인 교육 시스템에 길들여진 이들이 한국식의 교회 교육을 수용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이러한 이민자 자녀들에게 '어떻게 교회 교육을 할 것인가?' 또 '이들을 가르치기 위한 교사는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고, 또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교재는 무엇을 사용하며,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하는 것은 이민 교회가 갖는 큰 과제 중의 하나이다.

이민 교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세워져야 한다. 현지의 교육 제도와 교육 방법 그리고 현지의 자녀들을 이해하는 기독교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 위하여 이민 사회를 위한 기독교 교육 사역이 개발되고, 실현되기 위하여 기독교 교육 사역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주목된다.

1. 이민 사회 속에서의 기독교 교육 정책 연구 및 개발

이민 사회에 대한 꾸준한 이해와 연구, 그리고 자녀들에 대한 연구와 교육 정책 개발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자녀들에 대한 인간 이해가 없는 교육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인간 이해에서부터 교육 목표, 교육 방법, 교육 교재, 교육 정책

등의 제반 사항에 대한 연구와 개발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하여 총체적인 이민 교회의 교육이 이루어질 때에 효과적인 기독교 교육은 이루어질 것이다.

2. 기독교 교육 교재 연구 및 개발

자녀들에 대한 인간 이해가 있었으면 그 성장 과정에 따른 교재가 필요하다. 이중 언어를 사용하고, 이중 사고 구조를 가진 자녀들에게 단순히 한국식의 교육 교재를 사용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 따라서 이들을 위한 교재가 따로 연구되고 개발되어야 한다. 이들이 가진 문화 속에서, 이들이 생활하는 언어로, 그리고 이들이 살고 있는 환경 안에서 이해되고 수용될 수 있는 신앙 교육을 위한 교재가 이민 교회 안에 제공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연구는 단순 과제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민 사회가 발전해 가면서 함께 더불어 성장해가는 과제가 되어야 한다.

3. 기독교 교육 교사 발굴 및 양성

교사는 현지의 언어인 영어에 능통해야 한다. 왜냐하면 아이들과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어야 하고, 대화가 통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대화가 단절된 기독교 교육은 불가능하다.

아울러 교사는 현지 교회에 대한 이해와 학교 교육에 대한 이해가 충분한 자이어야 한다. 자녀들은 교회와 학교라는 이중적인 구조 속에서 생활한다. 따라서 이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신앙 안에서 그들을 성장하도록 가르치기 위해서 교사 또한 현지 학교와 교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기독교 교육 교사는 자질과 자격에 있어서 올바른 신앙과 신학을 겸비한 자여야 한다. 기독교 교육을 담당하는 것은 단순한 지식을 전수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돌보는 일이며, 영혼을 양육하는 일이다. 따라서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사명감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기독교 교육 교사는 말씀 안에서 정상적인 인격을 갖춘 자여야 한다. 이러한 교사를 발굴하고 양성하여 이민 사회의 자녀를 양육케 하는 것은 이민 사회를 위한 기독교 교육 사역 중의 중요한 하나이다.

4. 기독교 교육을 위한 훈련원 설립

이러한 기독교 교육을 위한 각종 사역을 효율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기독교 교육을 위한 훈련원이 세워져야 한다. 단순히 정책이나 교재, 교육 방법 등이 연구 개발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실제로 적용되고 실험되어지는 과정이 없다면 그것은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이다. 따라서 효과적인 연구 개발을 위해서는, 구심점이 되어줄 수 있는 훈련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교사 양육을 위한 과정들이 개발되고 그들을 훈련하기 위해서도 그에 맞는 훈련원은 반드시 세워져야 한다.

제 3 절 현지 이민 교회를 통한 섬김과 나눔 사역

뉴질랜드는 이민자의 나라라는 점에서 민족 간의 갈등이 타 국가에 비해 훨씬 적은 나라이며, 이민자들에 대한 돌봄이 크게 요청되는 나라이다. 위하여 한인 이민사회를 돌볼 이민 교회가 절실히 필요하다. 이러한 이해는 현지의 이민성도 인정하고 있으며, 이들도 또한 한인 목회자들에게 종교의 목적을 가진 비자를 내주고 있다.

현지 이민 사회의 복음화를 위하여 본 연구자는 현지 교회의 사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계획을 갖는다.

1. 이민 교회 개척 사역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한인 사회는 하나님께서 선교 사역을 위하여 보내신 디아스포라요, 그들을 통하여 세워진 교회는 남태평양을 비롯한 세계 선교의 거점이 될 것이다. 오클랜드에는 한국에서 이주해온 약 18,000여 명의 이민자들이 거주하고 있다. 이곳에는 약 100여 개의 한인 교회가 있지만 대부분의 교회가 미자립 상태에 있으며 선교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주는 것이 없는 교회, 나눔과 섬김이 없는 교회,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성장하지 않는다. 오클랜드 커뮤니티 교회(2003년 6월 1일 개척하여 현재 사역 중에 있는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가 될 것이며,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남태평양과 세계 선교의 거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오클랜드 커뮤니티 교회는 다음과 같은 사역의 비전을 갖고 있다. 첫째, 성령 운동, 기도 운동, 말씀 운동이 왕성한 교회가 되고, 복음으로 생명력이 왕성한 교회, 고정관념을 뛰어넘고 새로운 지평을 열어 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둘째,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고국을 떠나 뉴질랜드에 왔으나 새로운 세계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방황하고 갈등하는 이민자들에게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 성공적인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일을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이민 교회는 이민자들에게 안식처요 피난처로서 역할을 충분히 감당해 주어야 한다. 셋째, 선교하는 교회로 성장하기를 원한다. 뉴질랜드의 영혼들을 위하여 보내어진 디아스포라인 한인 이민 교회는 뉴질랜드의 영적 각성과 부흥을 선도해야 한다. 아울러 남태평양과 세계를 향한 선교의 관문으로서 뉴질랜드가 그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오클랜드 커뮤니티 교회는 선교적인 교회로 자라나기를 원한다. 신 사도행전적 선교의 거점, 제2의 안디옥 교회 사역을 위한 거점으로서의 교회, 이것이 오클랜드 커뮤니티 교회가 지향하는 비전이다.

위하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성령 중심의 실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며, 한인 사회 속의 교회로서 뿌리를 내리고 싶고, 헌신의 가치를 알며, 예수의 영성을 실현하는 교회로 성장하기를 원한다.

2. 제자 훈련을 통한 예수 제자 만들기

기초부터 성경 안에서, 성령으로 훈련되어진 성도들은 이 시대의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확신한다. 개인적인 구원뿐 아니라 사회적인 하나님 나라 실현, 못 영혼들에 대한 복음적 부담감은 전도의 열기를 확산시킬 것이며, 헌신된 생활의 멩에를 기쁨으로 감당하는 예수 제자들이 되도록 할 것이다. 위하여 체계적인 과정을 통하여 제자 훈련이 실행되어야 하며, 재생산되어지는 제자들에 의하여 교회는 부흥되어야 한다. 제자 훈련은 단순히 성경공부 과정으로 멈추어서는 안 되며, 생활 속에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사는 예수 영성을 소유하도록 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 예수 제자 만들기는 교회가 존재하는 한 계속되어야 하며,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삶을 위하여 계속되어야 할 하나님의 프로그램이다.

3. 훈련과 참여를 통한 성도들의 선교 동력화

전도와 선교는 궁극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과제이며, 교회의 과제이다. 사랑은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아는 것처럼, 선교는 경험해본 사람이 선교할 수 있다. 선교 훈련과 참여를 통하여 성도들이 자원할 수 있도록 선교 정신을 갖게 해야 한다. 교회는 여러 가지의 방향에서 선교 훈련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성도들로 하여금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로 인하여 교회는 선교 동력화 될 수 있고, 선교에 헌신하는 성도들로 인하여 사역은 더욱 중요로워질 수 있다. 이로 인하여 교회는 더욱 부흥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될 것이다.

4. 가정 사역을 통한 이민 성도들의 회복 운동

상처 입은 영혼들을 치료하고 무너진 가정들을 회복하는 일은 이 시대에 이민 교회가 감당해야 할 과제이다. 이를 위하여 부부 상담을 통한 가정 회복 운동, 아버지 학교 운영, 어머니 학교 운영, 부부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흩어져가는 가정을 되찾게 하고, 무너진 신뢰심을 신앙 안에서 극복하고 회복케 하는 일을 해야 한다. 가정이 살면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면 가정이 산다는 확신 가운데, 교회는 가정을 회복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하며, 가정은 교회가 이러한 사역에 효과적일 수 있도록 개방되어야 한다. 무너져가는 가정 윤리, 부부 관계, 부모와 자녀 관계가 신앙 안에서 정립되고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교회는 세심한 배려를 하고, 성도들은 훈련되어야 한다. 교회 내에서의 가정 사역은 하나님의 최초의 교회 단위인 가정을 살리며 회복하는 사역이다.

5. 찬양과 기도를 통한 영성 훈련

은 성도들이 참여하는 찬양과 기도 집회가 실현되어야 한다. 유학을 온 청소년들로부터 이민 1세대들인 성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함께 예수와 성령 안에서 한데 어우러져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찬양과 기도의 축제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눈물이 있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격하여 헌신이 있는 교회, 성령의 역사 속에 살아있는 생동감이 있는 교회, 이러한 교회됨이 오를랜

드 커뮤니티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이요, 이민 사회 속에서의 한국인들의 바람이라고 믿는다.

6. 언어 연수를 비롯한 유학생들의 신앙 훈련 및 생활 지도

기독교 신앙이란 곧 생활이다. 젊은 시절에 경험한 예수는 일생동안 그들의 삶에 영향력을 갖는다. 날마다의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 사랑, 이는 곧 그들의 생활로 나타나야 한다. 이러한 생활은 고국을 떠난 새로운 환경 속에서도 언제나 변함없이 이루어져야 하며, 젊은 시절에 더욱 훈련되어지고 경험되어야 할 영적 덕망이다. 새로운 문화, 문물을 대함에 있어서 어떠한 시각으로 보느냐, 어떤 가치관을 갖고 그러한 것들을 대하느냐 하는 것은 그들의 인생을 좌우할 만한 중요한 길이 된다. 그리고 이들이 고국과 세계 속으로 들어가 헌신된 삶으로 생활 속에 살아갈 때에 그들을 통하여 나타난 영향력은 매우 크다 할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유학생들을 전도하고 복음화하여 예수의 제자 삼는 일은 중요한 우리들의 사역 중의 하나가 된다.

이러한 여러 관점들을 종합해서 한인 이민 사회 속의 디아스포라로서의 오클랜드 커뮤니티 교회는 다음과 같은 비전을 사명으로 이해하고 있다.

첫째, 예수 영성을 실현함으로 섬김과 나눔을 통한 하나님 나라 실현, 둘째, 위로와 용기, 희망 그리고 비전이 제시되는 예배, 셋째, 제자훈련을 통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의 양육, 넷째 역동적인 찬양을 통한 상처 입은 심령의 치료, 다섯째, 실제적인 새벽기도, 삼일 기도, 심야기도, 중보기도 등을 통한 하나님 체험, 여섯째, 교회성장의 원인이 되는 목회자의 리더십, 일곱째, 다음 세대를 바라보는 주일학교 교육, 여덟째, 교제를 통한 공동체 안의 지체 의식 함양, 아홉째, 선교 동력화 및 거점으로서의 참여를 통한 궁극적인 신앙인의 사명이다.

제 4 절 결론과 제언

일반교회의 일반 사역에 비해 이민교회의 일반 사역은 전도와 직결되는 사역들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사역들이 생명력이 있을 때에 전도의 힘이 발휘되는 것이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제 2단계 전략으로 알파코스를 살펴보고자 한다.

제 5 장

전략으로서의 알파코스

우리는 앞서 다른 이민사회와 마찬가지로 한인교회가 한인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불신자든 신자이든 한인교회를 통해 교류하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시키는 중요한 한 커뮤니티가 될 수 있음을 보았다. 그러나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이다. 모든 이민교회가 거의 이러한 일들은 크고 작게 감당하고자 한다. 다만 여기서 그렇게 형성된 한인 커뮤니티를 어떻게 복음으로 연결시키고 복음화로 연결시키느냐는 또 다른 과제이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과제를 풀기위한 하나의 전략으로 알파코스를 제시하고자한다. 알파는 다음의 두 가지 효과를 노릴 수 있다. 첫째, 한인 커뮤니티의 중심이 되는 교회에 오는 불신자들을 전도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알파는 일종의 전도프로그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구도자 중심의 소그룹이라고 정의해도 좋을 것이다. 둘째, 알파는 기존 신자들을 훈련하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 알파는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구원의 확신으로부터 우리가 품을 수 있는 신앙적인 질문들을 피하지 않고 솔직 담백하게 다룬다. 이는 기존 신자에게 더 확실한 믿음과 성숙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이같은 의미에서 알파코스를 한인 복음화 전략의 두 번째 단계로 제시하고자한다.

제 1 절 알파코스란 무엇인가?

1. 알파코스의 역사

알파는 1976년 영국의 홀리 트리니티 브롬프톤 성공회의 신부였던 찰스 만함(Charles Marnham)의 거실에서 가정모임으로 시작하였다. 찰스 신부는 기독교 신앙

의 간단한 진리를 가지고 주변의 사람들을 전도할 목표를 갖고 있었다. 그는 새로운 교인들에게 편안하고 비공식적인 분위기에서 기독교 신앙의 기본 원리들을 제시할 수단을 찾기 시작하였다. 이런 목표를 마음에 두고, 그는 알파코스의 개념을 고안해 내었다.⁷³⁾

소수의 사람들이 매주 수요일 저녁에 간단하게 식사한 후 대화(강의)를 경청하고, 소그룹 토의를 갖기 위하여 그의 거실에 함께 모였다. 찰스 신부가 다른 곳으로 간 후, 존 어바인(John Irvine)이 1981년 이 코스를 인계받았다. 그는 알파코스를 10주 과정으로 늘리고, 성령의 인격과 사역에 대하여 가르치기 위한 주말 수양회 과정을 추가하였다. 그 후 니키 리(Nicky Lee)가 1985년에 인수 받았을 때는 1년에 3회 실시하는 알파코스 매 코스에 약 35명의 사람들이 참여하였고, 그의 지도아래 매 코스마다 100명 넘게 참석하는 성장을 보였다.⁷⁴⁾

이런 과정에서 1990년대 초 니키 검블(Nicky Gumble)이 인계를 받았다. 그는 알파를 교회생활의 중심이 되도록 기여하였는데, 1년에 3번을 운영하는 매 코스마다(지도자팀을 포함하여) 500명 이상 참석하는 커다란 코스로 성장시켰고, 후에 전 영국을 통하여 교회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초창기 자기가 속한 13명의 멤버들을 돌아보고 이미 기독교인이 된 도우미 3명을 제외하면, 그 밖의 모든 다른 멤버들은 교회에 다니지 않는 불신자들이었다는 사실에 놀라면서 니키 검블은 단순한 프로그래머가 아닌 탁월한 임상사역자로 거듭나게 된다. 특히 성령의 인격과 사역에 초점을 둔 주말 수양회때 10명 모두가 기독교로 회심하는 경험을 통하여 기독교 신앙의 기본적인 것을 가르치는 이 간단한 코스에 전도를 위한 힘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⁷⁵⁾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는 알파코스의 성장은 매우 고무적이다. 현재 130개국 10만 교회 이상에서 알파코스가 진행되고 있으며 40개국의 교도소가 회심의 장소로 변하고 있고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풀러(Fuller)신학교가 목회학 박사과정 정식 교과과정으로 택했으며, 타임지가 성경 프로그램으로는 처음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고 있다고 극찬했다.

73) Nike Gumble, *알파코스 운영방법*, 이인수 역 (서울: 서로사랑, 1998), 24.

74) Ibid., 24.

75) Ibid., 25.

니키 검블(Nike Gumble)은 이 코스를 인수 받은 후 첫 코스에서 6주 동안 복음을 듣고 주말 수양회에서 성령을 체험한 게스트(Guest)들이 예수를 간증하는 것을 보고 너무 놀랐다고 한다. 미국알파 본부에서는 2000년 1년 동안 한 도시의 62개 장로 교회에서 모델로 적용해 본 결과 96 퍼센트가 정착하는 놀라운 열매를 보고 현재 30만의 미국 교회 중 3만여 교회 이상이 시행하고 있는데 2004년 말까지 10만의 교회가 알파코스를 적용하도록 계획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는 알파코스를 통해 새로운 부흥을 경험하고 있다.⁷⁶⁾

2. 알파코스의 원리

알파코스의 원리와 이론적인 기반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도는 개교회를 통해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존 스토틀(John Stott)는 개교회를 통한 전도가 “오늘날 복음을 확산시키는 가장 정상적이고 자연스럽고 생산적인 방법이다”라고 말하였다.⁷⁷⁾ 물론 다른 형태의 전도방법도 역사한다. 선교와 빌리 그래함(Billy Graham) 스타일의 대중 전도집회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해 오셨다. 그들은 교회의 모습을 교양시켰고, 여전히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 오게 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다.⁷⁸⁾

1-1) 당신이 보는 것을 당신은 얻는다.

어떤 사람은 대중 전도집회(Crusade)나 선교대회에서 은혜를 받고 그 후에 그들의 개교회에 소개되어 온다. 그들은 처음에 그들을 매혹시켜 인도하던 집회와 근본적으로 다른 개교회 환경을 발견하고는 실망을 느낀 나머지 종래는 교회출석을 멈추기도 한다. 이것이 커다란 전도집회 후 후속조치가 매우 어려운 이유 중의 하나이다. 반대로 어떤 분이 그들이 다니는 개교회에서 기독교를 소개받아 믿게 되었다면, 그들은 그 장소와 그곳 사람들과 친숙하게 되어 대부분 교회에 머물게 된다.

1-2) 평신도를 전체 군대화하여 동원하라.⁷⁹⁾

76) 2003년 10월, 영락교회에서 열린 <CEN>사역박람회에서 Alpha Korea 대표인 이상준 선교사의 <2004 ALPHA Report> 발표 참고.

77) John Stott, *몬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서울: IVP, 1996), 89.

78) George G. Hunter, *잃은 양, 떠난 양, 버린 양을 찾아서*, 김양석 역 (서울: 프리젠프, 1999), 128.

79) Ibid., 145.

개교회를 통한 전도는 한 위대한 전도자만을 포함하거나 심지어 한 팀에서 한 전도자만 참여시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전도의 역군들을 참여시키는 것이다.

1-3) 우정을 바탕으로 하라.

만일 누가 알파코스 참석 중에 그리스도께 와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들은 자연스럽게 그들의 친구나 가족, 그리고 동료들에게 말한다.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와서 보라! 다음 코스에 오십시오!”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다음 코스에 와서 그들 모두 서로 깊이 친하게 되는 친구의 모임을 갖게 된다. 이것이 하나의 신약성경 전도의 모델이다.⁸⁰⁾ 베드로는 그의 형제 안드레를 데리고 왔고, 빌립은 그의 친구 나다나엘을 데려왔고,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은 마을로 되돌아가 그녀가 사는 마을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그리고 세리 마태는 특별한 파티를 배설하고 그의 모든 직장 동료들을 초청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였다.

이것이 알파가 역사하는(works)방법이다.⁸¹⁾ 하나의 대형 전도집회는 커다란 축복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집회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다. 만일 이 세상의 모든 개교회가 전도 프로그램을 실시하며 매달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 오고 그들이 그들의 친구들을 데리고 오고 또 친구들이 다른 친구들을 데리고 온다면, 얼마나 빨리 이 세계가 그리스도를 향하여 복음화 될지 상상해보라.

1-4) 물건을 사가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단골 손님은 더 많아진다.

이것은 우리가 미국사람들로부터 배운 슈퍼마켓의 한 원리이다. 더 많은 교회가 알파나 혹은 다른 전도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면 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이다.

둘째, 전도는 과정이라는 것이다.⁸²⁾

회심은 어느 한 순간에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과정의 일부분일 뿐이다. 모든 신약성서의 회심에 대한 표현은 과정을 나타내는 단어들이다. 예수님은 영적 삶의 시작을 위한 “거듭남”(born again-요 3:3)이란 표현을 사용하셨다. 그리고 신약성서는 하나님의 어린아이가 되는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한 어린이의 출생이 한 순간의 사건인 반면에 탄생 전후에 그보다 상당히 더 긴 과정이 있다. 성서는 영적 성

80) Larry Crider, *셀그룹 리더쉽* 박영철 역 (서울: 서로사랑, 2001) 129-135.

81) Nike Gumble, *알파코스 운영방법*, 47.

82) Ibid., 49.

장을 나타내기 위하여 다른 많은 이미지를 사용한다. 어떤 이미지들은 농사짓는 일에서 취하였고, 또 다른 이미지는 건축이나 여행하는 개념에서 따왔다. 이런 모든 이미지는 과정을 포함한다.

알파코스는 주말 수양회와 코스 마지막에 있는 축하만찬 시간을 포함하여 모두 15개의 대화(혹은 강의)로 구성된 10주간의 코스이다. 우리는 사람들이 첫 주 지난 후에 복음에 응답하리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들 모두를 환영하나, 어떤 사람들은 알파코스 전 과정을 마치고도 끝에서가는 아직 크리스천이 되지 못한다. 우리는 그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였다는 말을 할 수 없기를 바란다. 또 다른 사람들은 코스 종간의 어느 지점에서 그리스도에게 그들의 삶을 드린다. 그러나 거의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관계에서 한 발자국 앞을 향하여 나가도록 알파는 돕고 있다.

첫째는 이해하는 단계이다. 15번에 걸쳐 함께 모여 대화하는 전도의 과정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한 번 모여 전도하는 대화(혹은 강의)를 듣는 것보다 기독교의 여러 측면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게 한다.

둘째, 나아가서 알파가 하나의 과정이라는 사실은 신뢰를 발전시키게 한다. 이것이 두 번째 단계이다. 크리스천 교회에 대하여 상당히 많은 냉소와 회의 그리고 불신이 존재하고 있다.

셋째, 전도는 전 인격을 포함한다.

전도는 전인격 즉 생각(mind), 감정(heart), 의지(will)에 호소한다. 비록 어떤 대화(혹은 강의)는 이들 중 어느 하나에만 강조를 하기도 하나 각 대화(강의)는 이 세 가지 모두에 호소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넷째, 신약성경에 있는 전도의 모형들은 선포적이며, 총체적이고 능력전도를 포함한다. 옥스퍼드 대학교, 위클리프 홀 신학대학교의 강사인 그라함 톰린(Graham Tomlin)이 세 가지 다른 전도의 모델(유형)에 대한 설명이 우리의 관심을 끄는데⁸³⁾, 분명한 것은 이 셋이 서로 배타적이지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알파의 네 번째 원리는 이 세 가지 모델을 모두 수용하기를 원한다.

83) Ibid., 57.

첫째, 그가 고전적인 전도(말씀)라 부르는 “불변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모델이 있다. 확실히 알파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선포가 있다.⁸⁴⁾

둘째, 총체적 전도(봉사의 일)=사회적 전도가 있다. 존 스토틀(John Stott)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세계에서 전도적 책임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도 주셨다”⁸⁵⁾고 확신한다. 전도와 사회적 봉사활동은 서로 같은 보조를 취한다. 후자는 부정 등과 비인간적인 것을 제거하는 사회정의와 굶주림, 흠리스와 가난같은 인간의 욕구를 해결하는 사회봉사를 포함한다. 즉 알파코스에서의 가르침과 삶의 본을 보임으로써 경건주의의 위험과⁸⁶⁾ 초 신령주의(super spiritualism)의 위험을 피하려고 노력하며, 전도는 근본적으로 사회적 책임과 연결되어 있다고 믿는다.

셋째, 능력전도(기사와 이적)가 있다. 이 능력전도에서는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서로 보조를 함께 취한다(고전 2:1-5). 우리는 알파에서 이 세 번째 요소를 포용한다. 왜냐하면 이 전도의 모델은 신약성경 실제에 확고한 바탕을 두고 있었다고 믿기 때문이다.⁸⁷⁾

실제로 복음서 뿐만아니라(마 4:23, 9:35, 10:7-8, 막 1:21, 16:15-20, 눅 9:1-2, 10:9, 요 14:12) 사도행전에서는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생존하며 계실 시간 후에도 계속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행 3:1-10, 4:12, 5:12-16, 8:5-13, 9:32-43, 14:3-10, 19:11-12, 20:9-12, 28:8-9)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날 그가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의 활동의 한 부분으로써, 그리고 복음의 확증으로써 초자연적인 성령의 능력이 나타남을 기대해야 된다고 본다. 그러나 우리는 표적과 기사에 궁극적인 강조를 하지 않고 오직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사랑의 하나님께만 주목하며 강조한다.

84) 첫 번째의 강의는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하여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에 대한 강의이다. 각 대화마다 크리스찬의 믿음과 삶에 대한 원칙들을 그 핵심으로 취급하고 있다.

85) John Stott, 복음전도, 92.

86) 경건주의의 위험(the dangers of pietism)이란 자기만의 경건을 추구하고, 성령의 은사를 자기만 소유하는 은사의 개인 사유화(the privatism)를 말하는 바 자기 신앙의 유익을 위한 좋은 점이 있으나, 은사를 가지고 남, 교회, 이웃 공동체에는 무관심한 채 개인주의적으로 흐르는 편협성과 폐쇄성을 말한다.

87) Nike Gumble, 알파코스 운영방법, 59-63.

5)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하는 것은 역동적이고 효과적이다.⁸⁸⁾

사도행전 전체를 살펴보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남이 줄어들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런 영적 다이내믹(역동성)은 계속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사도행전 전체를 통하여 우리는 회심, 기적적인 표적, 치유, 환상, 방언, 예언, 죽은 자를 살리심과 악한 귀신들을 쫓아 내는 것을 동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다이내믹한 결과를 보게 된다.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 전도는 아직도 다이내믹하고 효과적이다. 우리는 알파코스에서 이런 경우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있다.

6) 효과적 전도에는 성령의 충만과 재 충만이 요청된다

예수께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 1:8) 오순절 날에 예수님의 약속은 성취되었다. 그리고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행 2:4)

그러나 그것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다. 그 뒤에 우리는 베드로가 다시 “성령이 충만하게”되는 것을 읽는다(행 4:8). 계속해서 그 뒤에 제자들이(베드로를 포함하여) 다시 충만하게 되었다(행 4:31). 성령의 충만은 한때의 경험이 아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의 크리스찬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권면하면서(엡 5:18), 계속해서 충만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결국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성령을 더욱 필요로 한다는 것이고, 예수님만이 측량할 수 없는(풍성하고 엄청난 양의) 성령을 허락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다.

알파에서 중요한 관건의 하나는 그리스도에게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하여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은사를 사용하는 성령충만한 사람들의 팀을 갖는 것이다. 코스 도중에 그리스도에게 오는 사람들은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한 것을 알고 있다.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체험은 그들에게 그 다음에 실시될 알파코스에서 그들의 친구들을 초청할 격려와 힘을 준다.

88) Ken Hemphil, *안디옥 이펙트*, 이명희 역 (서울: 서로사랑, 2000), 236-254.

제 2 절 알파코스의 실제

1. 알파코스 이해하기

초대되어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알파는 기독교 신앙을 실제적으로 소개하는 프로그램이다. 코스를 운영하는 사람들에게는(알파지도자, 운영자, 소그룹 지도자 및 도우미, 예배팀과 준비대책위원들) 우정을 바탕으로 한 전도이다. 알파의 첫 글자들은 알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으며, 알파의 몇몇 주요 내용들을 요약하고 있다:

A - Anyone can come : 누구나 올 수 있다. 크리스찬 신앙에 대하여 좀 더 알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비신자와 초신자들을 위하여 마련된 이 10주간의 기독교 신앙 소개에 초대될 수 있다. 이 코스는 또한 성숙한 크리스찬을 위한 재교육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 많은 교회들에서 첫 코스는 주로 교회 멤버가 참석하고, 나중에 교회에 열심히 다니지 않는 사람들(fringe members), 그리고 나서 불신자들이 참석한다

L - Learning and Laughter : 웃고 즐기며 배운다. 첫 코스는 기독교 신앙의 중심사항에 대한 중요한 질문들을 다루는 15개의 일련의 대화(강의)에 기초를 둔다(이 대화들은 지도자에 의해서 대화 및 강의식으로 제공될 수 있고 혹은 그룹의 크기에 따라 테이프나 비디오 테이프를 사용할 수 있다). 크리스찬 신앙에 대해서 배우고, 기쁘게 체험하는 것은 용이한 일이다. 웃고 재미있어 하는 것이 코스의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므로 모든 장벽을 깨고 누구나 모두 편하게 느끼게 한다.

P - Pasta : 함께 음식을 나눈다. 파스타는 간단히 먹는 서양음식의 일종(밀가루 음식)을 말하지만, 중요한 것은 함께 식사하는 것을 통해 사람들을 서로 알게 하고, 크리스찬의 우정을 발전시키는 기회를 제공한다. 코스가 환영하는 분위기에서 실시되는 것이 중요하다.

H - Helping one another : 서로서로 도와준다. 소그룹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그들이 대화에 대해서 토론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동안 서로 서로 꾸준히 돕고, 참여하도록 격려한다. 지도자들과 도우미들에게는 알파코스가 다른 사람들을 신앙에 이르도록 돕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 사람들은 종종 다시 돌아와

서 다음 코스를 돕는다든지 혹은 친구들을 함께 데리고 와서 코스의 전반적인 것을 알아보게 한다.

A - Ask anything : 무엇이든 물어보라. 알파는 어떠한 질문도 너무 단순하거나 혹은 적의를 가진 질문이라고 여겨서는 안되는 곳이다. 사람들에게 대화(혹은 강의) 후에 소그룹에서 그들의 의문을 제기하고, 적합한 주제를 토의할 기회가 주어진다.

2. 알파코스의 진행순서

알파코스에는 크기, 장소, 코스의 시간, 코스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람들의 수 등을 포함하여 많은 변수가 있다. 알파코스는 크기가 다르다. 어떤 코스는 아주 작고, 어떤 코스는 매우 크다. 코스는 가정, 교회, 교도소, 학교 등에서 실시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코스에는 동일한 원리가 적용되는데 크기, 장소 혹은 시간에 관계되지 않는다. 실제 스케줄이 장소나 주중 어느 날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으나 전형적인(대부분의 사람들이 출석할 수 있는) 저녁모임과 오전모임은 아래와 같다.⁸⁹⁾

<저녁모임>

5:15(30) pm	지도자와 도우미가 기도로 준비한다.
6:00	저녁식사 제공
6:30	환영
6:40	경배 찬송
6:50	대화(혹은 강의)
7:45	커피타임
8:00	소그룹
9:00	마침

<오전의 경우>

9:45	준비모임
10:00	환영
10:05	경배와 찬양
10:20	강의 (토크)
11:05	커피와 다과
11:15	소그룹모임
12:00	점심식사
12:40	집으로

89) Nike Gumble, 알파코스 운영방법, 56.

먼저, <준비모임>은 지도자와 보조자가 모임시간 전에 함께 기도함으로 도우미로 섬기들 이들에게 준비된 마음과 자세를 갖게 하고, 또한 진행 스케줄을 점검하기 위하여 모이는 것으로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 매주 시간에 맞추어 시작하고 끝나는 것도 또한 시간에 맞추어 끝나는 것은 알파코스 및 운영하는 사람들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일이다.⁹⁰⁾

다음으로, <식사> 소그룹모임 후에 갖는 오전모임의 식사와 먼저 저녁식사를 제공하고 시작하는 저녁모임에서 함께 먹는 것은 알파의 중요한 부분이다. 사람들은 종종 방문해서 식사시간을 가질 때 보다 편안한 느낌을 갖는다. 중요한 것은 식사시간에 “종교적”인 대화를 피하는 것이 좋다. 지도자와 도우미들은 개인적이며, 일상적인 일에 관한 대화를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이 때가 초대받아 온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알게 되는 시간이다. 가끔 사람들이 코멘트하는 것은 음식이 그들로 하여금 알파에 계속해서 다시 오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음식 수준을 높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⁹¹⁾ 함께 식사하는 것은 코스에서 필수적인 부분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들에게 편안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알게 하는 기회를 주기 때문이다. 우정이 코스를 지나가면서 성장한다. 특별히 소그룹에서 놀라운 방법으로 자란다.⁹²⁾

셋째로, <환영과 경배찬양> 모든 사람들을 편하게 느끼도록 하기 위하여 유머를 사용하도록 한다. 유머는 코스의 중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이런 유머들은 늘 그들의 진가에 상관없이 환영을 받는다. 이는 밖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크리스찬은 유머감을 갖고 있으며, 웃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서로 조화를 이룬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찬양을 드리는 시간을 갖는데, 코스가 계속되면서 점차적으로 찬양하는 시간을 연장시키고, 곡 선정에 있어서도 친밀감을 위하여 잘 알려진 찬송을 부르면서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현대적인 찬송가를 부르게 된다.⁹³⁾ 중요한

90) 준비모임을 위해 모든 도우미들은 사전 도우미모임(도우미 수련회라 명명)에 3회 이상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Ibid., 108-109.

91) 알파가 작을 때는(12명 내외) 지도자와 도우미로부터 시작해서 각 사람이 돌아가면서 저녁식사를 준비할 수 있다. 알파가 성장해서 약 10개의 소그룹이 되면, 각 소그룹이 돌아가면서 저녁식사를 마련할 수 있다. 참고로 알파코스에는 등록비를 받지 않으나, 매 식사 음식과 주말 수양회시 음식과 숙박료를 위하여 적은 양의 기부금을 요청한다. 음식을 제공할 때 기부금 모금을 위하여 바구니를 놓아둔다.

92) 준비된 식사를 함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ALPHA의 'P'에 대한 해석을 Pasta로 해석하지 않고, People meeting together로 함께 만나서 교제하는 것을 강조하기도 한다.

것은 시작할 때 너무 빨리 움직이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이다.⁹⁴⁾ 그리고 실제로 중요한 것은 알파코스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으로 노래하며 찬송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찬송은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과 의사소통하는(혹은 교제하는) 최초의 체험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또한 사람들이 하여금 알파코스를 수료하고 알파로부터 하나님께 경배(혹은 예배) 드리는 것이 중심인 교회로 발길을 가게 한다.

네 번째로, <대화 혹은 강의> 영국에서는 토크로 알려져 있는데, 일반적으로 주제 강의에 해당된다.⁹⁵⁾ 이 강의(대화)는 알파코스 지도자에 의하여 실시되고, 드문 경우이지만 테이프나 비디오를 이용해서 전달할 수도 있다. 여러 강사를 갖고 있는 것이 더욱 좋은 방법이나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데 익숙한 사람을 제외하는 것이 필요하다. 10주간 15개의 강의를 진행되는데 그 주제는 다음과 같다.⁹⁶⁾

- 1주 예수님은 누구신가?
- 2주 예수님은 왜 돌아가셨나?
- 3주 어떻게 나의 믿음을 확신할 수 있는가?
- 4주 왜 그리고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하나?
- 5주 왜 그리고 어떻게 기도할까?
- 6주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주말 수양회>

- 성령은 누구신가?
- 성령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
-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가?
- 어떻게 하면 남은 삶을 최대로 선용할 수 있을까?
- 7주 어떻게 악을 대항 할 수 있을까?
- 8주 왜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가?

93) 알파코리아에서 주관하는 <알파찬양 컨퍼런스>에서는 제한적인 건전가요를 강조하기도 한다. 비신자의 경우 임상적으로 가스펠이나 CCM에 익숙한 것도 있으나, 건전가요의 경우 매우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음이 증명되었다.

94) 모든 소그룹활동에서 서로를 돌보고 활발하고 역동적인 공동체로 엮어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마인드는 우정의 관계발전을 위한 기다림에서 시작된다. Jimmy Long, 소그룹리더 핸드북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 1996), 65.

95) Nike Gumble, *인생의 의문점들*, 이인수 역 (서울: 서로사랑, 1999)은 알파코스의 15개 강의내용을 저자가 직접 기술한 것이다.

96) 이 주제는 또한 소그룹 활동시 대화하는 주제가 된다.

- 9주 하나님은 오늘도 치유하시는가?
 10주 교회에 대하여
 11주 <축하만찬>
 - 기독교: 지루하고, 거짓말 같고, 나와는 상관이 없는가?

15개의 주제들은 주간모임에 방향성 및 목적을 제시해 주는 것으로 환영에서부터 마감까지 일관된 주제를 가지고 진행해 나간다. 그것은 알파코스 참여자(게스트)들로 하여금 점진적으로 신앙의 깊이를 더해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결국은 계속 참석해 온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생활로 들어가도록 하는데 있다. 한 코스의 알파에 참석한 사람들이 전체 소그룹을 형성해서 동일한 가정모임이나 소그룹을 형성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들은 결국 교회로의 발걸음이 쉬워지고 정착하는데 부담을 느끼지 않게 되는 것이다.

다섯째로, <소그룹> 알파코스가 진행되는 동안에 강의(대화)시간이 끝난 후, 모든 사람은 소그룹 모임에 참석한다. 각 소그룹은 지도자 2명과 보조자 2명을 두고, 이들을 포함해서 모두 12명을 초과해서는 안되는데, 모임의 규모에 따라 인원을 조정할 수도 있다. 소그룹은 지체없이 정해진 시간에 시작하여 정해진 시간에 끝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한사람이 일방적으로 시간을 독점하는 것을 권하지 않는다.⁹⁷⁾ 그리고 소그룹인도자 역시도 무엇인가를 가르치려 한다거나 많은 말을 통하여 그들이 대화에 참여하는 기회를 막는 역할이 아니다. 그들은 대화 촉진자이며 분위기 메이커이고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목자들이고 증보 기도자들이다.⁹⁸⁾

여섯 번째로, <주말수양회(성령수양회)> 이 시간은 이 코스에 참석한 사람들의 개인적인 삶에서 성령의 사역에 관한 가르침으로 쓰여진다. 우정의 관계가 단 하루보다는 전체 주말모임을 통하여 보다 더 쉽게 형성된다.⁹⁹⁾ 사람들은 함께 여행하고, 함께 식사하고, 산보 나가며, 토요일 밤 여흥 순서를 즐기고, 주일 아침에 함께 성찬을 받으면 처음 시작하던 주간부터 형성하기 시작한 우정이 굳건하게 된다. 많은 사람들

97) Nike Gumble, *알파코스 운영방법*, 149.

98) Jimmy Long, *소그룹리더 핸드북*, 104.

99) 주말수양회(성령수양회)는 2박 3일을 권장하고 있으나, 1박 2일 혹은 하루코스로도 행하여진다. 일반적으로 한국교회에서 시행되고 있는 개교회의 알파 수양회는 대부분 하루 코스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알파코리아 주관, 「제1회 알파컨벤션 2003」 안성수 양관, 2003년 10월.

이 나머지 코스의 전체 모임을 합친 것만큼 주말수양회 기간에 영적으로 성장한다. 다음에 소개되는 주말수양회 스케줄은 HTB 교회가 추천하는 전통적인 일정이다.¹⁰⁰⁾

금요일

5:30 pm 도착
 7:00 저녁식사
 9:15 예배와 주말 수양회의 간단한 소개
 (요한복음 15장에 근거하여 짧게 말씀을 전하거나 간증)

토요일

8:00 am 아침식사
 9:00 경배와 찬양의 시간
 (강의 1) 성령은 누구신가?
 10:15 커피타임
 10:45 (강의 2) 성령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
 11:30 소그룹토의 (고전 12:1-11)
 12:30 pm 점심식사
 오후자유시간 몇가지 활동을 계획할 수 있다. 운동, 산보 등등
 3:30 음료와 다과(선택적임)
 4:00 경배와 찬양의 시간
 (강의 3)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가?
 6:00 저녁식사
 8:00 장기자랑(다양한 형태의 여흥)

주일

9:00 am 아침식사
 9:45 소그룹토의
 10:30 경배와 찬양의 시간
 (강의 4) 어떻게 하면 남은 삶을 최대한 선용할 수 있을까?
 성찬식
 1:00 pm 점심식사
 오후자유시간 모든 사람들이 교회의 저녁 예배에서 다시 만난다

일곱째, <축하만찬> 알파의 만찬은 두 가지 목적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한 코스의 마감이요, 그리고 다음 코스의 시작이다.¹⁰¹⁾ 일반적으로 코스를 시작하기 전에 디너파티를 갖는다. 그런 다음 매 코스 마지막마다 디너파티를 갖고 코스에서 배운

100) Nike Gumble, *알파코스 운영방법*, 92

101) Ibid.

게스트들이 그들의 친구를 초청할 수 있도록 한다. 코스 7주차 전후에 축하만찬에 대하여 홍보하기 시작하고, 동시에 그 파티를 위한 재정모금을 시작한다. 모든 사람들은 그들 자신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초청한 게스트들을 위하여 모금에 참여해야 하는 것이다. 축하만찬을 위한 모든 자세한 사항은 도우미와 친구를 초대하지 않은 사람들로 구성된 팀에 의해 실천되도록 하고, 좋은 분위기를 창출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터뷰형식의 간증과 보기만 해도 맛있는 음식, 커피와 디저트, 부담 없는 대화와 격려, 친구들과의 편안한 대화가 알파만찬의 내용이다. 만찬에 참석한 사람들 중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능하면 빨리 알파코스를하기를 원한다. 알파의 만찬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매 알파코스에 오는 여러 이유 가운데 하나이다.

여덟째, <알파 이후> 실제로 알파에서 이루어진 강한 우정은 그 소그룹이 그 후에도 함께 머물기를 원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새로운 크리스찬은 크리스찬 공동체의 생활 속으로 융화되는 것이 필요하고, 이렇게 되는데 알맞은 방법은 다양하다. 현재 수만 개의 알파코스가 전세계적으로 실시되고 있어, 가정그룹이나 소그룹 환경에서 사용할 후속자료에 대해 많은 요구가 점증되고 있는데,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현재 다음의 후속 조치 자료를 포함하는 크리스찬 장년 교육프로그램이 제시되고 있다.

- 1단계 : <인생의 의문점들> 알파코스의 기본교재
- 2단계 : <유익한 삶>¹⁰²⁾ 빌립보서 연구
- 3단계 : <왜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¹⁰³⁾

알파코스 중 가장 많이 질문되는 7가지 문제에 대한 연구

- 4단계 : <삶의 스타일에 도전하기>¹⁰⁴⁾ 산상보훈에 대한 심층연구
- 5단계 : <부흥의 본질>¹⁰⁵⁾ 이사야서에 대한 심층연구

102) Nike Gumble, *유익한 삶*, 27.

103) Nike Gumble, *왜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이인수 외 역 (서울: 서로사랑, 1997)에서 고난, 다른 종교, 혼전 성관계, 뉴에이지, 동성연애, 과학과 기독교, 삼위일체 등 일곱 가지의 의문점들에 대하여 성경적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104) Nike Gumble, *삶의 스타일에 도전하기*, 조병철 외 역 (서울: 서로사랑, 1998), 12.

105) Nike Gumble, *부흥의 본질*, 명성훈 역 (서울: 서로사랑, 1999), 44.

제 3 절 알파코스의 핵심사역

1. 소그룹 지도하기

소그룹 전체의 목적은 사람들을 알파코스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으로 들어오도록 돕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그의 이름으로 두 세 사람이 모인 곳에 그분도 거기에 계시겠다고 약속하셨다.¹⁰⁶⁾ 예수님이 12명으로 된 한 그룹을 택하신 것이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¹⁰⁷⁾

알파의 기본 정신에 의하면 소그룹으로 짜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화가 강의(대화)로부터 야기되는 문제들을 토의하기 위함이다.¹⁰⁸⁾ 사람들에게 그들이 들은 것에 대하여 반응하고 질문할 기회를 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것은 만일 그룹이 아직 크리스찬이 되지 못한 사람들로 주로 구성된 그룹이라면 특별히 그런 경우가 된다. 그러므로 어떤 성경공부가 계획되어 있다 하더라도, 대화로부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질문을 물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먼저 다루는 게 좋다. 그렇지 않으면 그룹 내의 멤버들은 그들의 마음과 생각에 있는 실제적 질문들이 대답되지 않는다는 좌절을 느끼게 된다.¹⁰⁹⁾

둘째, 성경공부의 본이 됨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 읽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두 번째 목적인데,¹¹⁰⁾ 알파가 끝날 때까지 그들 자신이 성경을 공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들에게 성경공부 할 열정과 어떻게 성경공부를 하는가 하는 본을 보이는 것이 알파 소그룹 성경공부이다. 여기엔 여러 가지 주의사항이 있다.

셋째, 기도의 본이 되기 위함이다.¹¹¹⁾ 이것은 소그룹 인도자들의 역할에 큰 민감성을 요구한다. 많은 사람들은 비록 이미 크리스찬이 되었다하더라도 큰 소리로 기도

106) 마태복음 18:20

107) 마가복음 3:13-19

108) Nike Gumble, *알파코스 운영방법*, 150.

109) 첫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실제적 세부사항(의자배치, 실내조명, 환기, 온도등)에 유의하며, 두 가지 공통적 잘못(한사람이 대화를 독점하거나, 인도자가 이야기할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을 피해야하며, 원활한 토론을 위해 간단한 질문을 한다거나 흔히 제기되는 질문들에 준비하는게 바람직하다. Ibid., 151-153.

110) Nike Gumble, *성경읽기 30일*, 홍원팔 역 (서울: 서로사랑, 2000) 참고.

111) Larry Crider, *셀그룹 리더쉽*, 83.

하는 것을 두렵게 여긴다. 그래서 알파코스는 기도로 시작하지 않고, 적어도 5주차인 <왜 그리고 어떻게 기도할까>가 지나면서부터 조심스럽게 시도한다. 적어도 코스 나중엔 기도로 마치는 것이 적절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엔 큰 소리로 소리 내서 기도하는 것에 몹시 겁을 먹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기도에 대해 편안하게 접근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주님의 몸 안에서 지속적인 우정을 발전시키기 위함이다. 관계적인 존재로 지음 받은 인간은 본질적으로 더욱 더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며 관계를 확대하는 것을 즐긴다. 대부분의 경우 알파코스를 참가한 게스트들은 코스가 진행되는 동안에 같은 그룹원끼리 혹은 참가자들 속에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게 되고 관계를 확대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서로의 변화 속에서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으로 형성되는 관계속으로 그들의 우정은 지속되고 발전되어 간다.

다섯째, 서로서로 섬기는 것을 배우기 위함이다. 소그룹은 코스에 참여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서로서로 섬기는 것을 배우는 장소이다. 서로 손을 잡고 또 손을 얹으며,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는 소그룹으로 모이는 분위기에서 종종 사람들은 그들의 신령한 영적은사를 받기도 하고 사용하기도 한다.

여섯째, 다음 코스를 지도할 도우미를 훈련시키기 위함이다.¹¹²⁾ 마지막으로 소그룹인도자의 여러 목적 가운데 하나는 다른 사람들을 훈련시켜 그들로 하여금 지도하도록 하는 것이다. 아마 알파가 크게 성장할수록 더 많은 지도자를 필요로 할 것이다. 그들은 섬김을 경험한 것 이상으로 직접 알파코스가 진행되는 동안에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하게 될 것이다.

2. 목회적 돌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첫 말씀은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막 1:17). 베드로와 마지막으로 그분이 말씀하시는 중에(요한 복음에서) 예수님은 같은 말씀을 반복하셨다. “나를 따르라”.¹¹³⁾ 그리고 베드로에게 권

112) 참고로 셀교회의 리더, 가정교회의 목사, 알파코스의 소그룹인도자는 역할과 기능면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알파코스의 소그룹인도자는 잘 훈련된 목자라기보다는 촉진자에 가깝다. 그들은 알파코스 수료 후 소정의 도우미 훈련을 마친 뒤 다음코스의 도우미로서의 활동이 가능하다. 반면에 셀그룹리더 및 가정교회의 목사는 안수 받지 않은 사역자로서 그 역할과 기능면에서 지도자요 관리자며 목자(pastors)이다.

면하시기를 양과 어린양을 먹이며 돌보라고 하셨다. 제일 우선적인 일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이다. 두 번째의 일은 다른 사람들과 우리와의 관계이다. 그러므로 목회적 돌봄은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손으로 하는 것이다. 우리는 마음의 성실함을 갖고 있어야 한다. 사람들에게 대한 우리의 사랑과 그들과 함께 하는 우리의 우정은 “손의 공교함”과 결합될 필요가 있다.

바울의 목적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다”(골 1:28) 다른 번역판에는 완전한 자(perfect)를 ‘성숙한 자’ (mature)로 번역한다. ‘전하다’는 것 (perfection)은 우리가 현재의 삶에서는 도달할 수 없는 것이다.¹¹⁴⁾ 그러나 성숙하게 되는 것은 가능하다. 세 가지 중요한 것을 이 구절에서 배울 수 있다.

첫째, 모든 참석자를 섬기기 위한다는 정신이다. 바울의 관심은 모든 사람 (everyone)을 향한 것이다.¹¹⁵⁾ 훌륭한 목자는 자기 양떼 중 어느 하나라도 잃기를 원치 않는다. 알파의 목적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돌보는 것이다. 이것 때문에 그룹마다 2명의 지도자와 2명의 보조자가 있는 것이다. 그 개념은 지도자 혹은 보조자들 중에서 어느 누가 그룹의 각 멤버들을 위한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것은 유연하고 매우 느슨한 제도이나, 분명한 목적은 코스에 참석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돌봄과 기도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둘째, 각 사람의 영적성장을 이루게 하기 위한다는 정신이다. 이런 목회적 돌봄 (양육)에서 우리의 목적은 영적성숙이다. 물론 이런 성숙이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거나 혹은 심지어 10주 코스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도자와 보조자의 목적은 초기단계에서 사람들을 도와서 그 다음에 그들이 좀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교회 생활 내에 있는 그룹에 그들을 융화시키는 것이다.¹¹⁶⁾

셋째, 각자가 그리스도를 찾도록 격려하기 위하는 정신이다. 바울의 목적은 그리스도안에서의 성숙(maturity)이다.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붙어있기를 원하지 않고, 그리스도에게 붙어있기를 원한다. 좋은 부모들은 그들의 자녀가 독립할 것을 권한다.

113) 영어성경에는 마가복음 1:17과 같이 follow me이다

114) Larry Crider, *셀그룹 리더쉽*, 205에 나타난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지도자들의 공통적인 역할중 하나는 바로 ‘사람을 세우는’ 일이다.

115) Howard Hendricks, *사람을 세우는 사람*, 박경범 역 (서울: 디모데, 1997), 135.

116) Ibid., 136-137.

그들은 그들의 자녀들을 먹여줌으로써 시작한다. 그러나 가능한대로 빨리 그들 스스로가 먹도록 자녀들을 가르친다. 우리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건강치 못하고 우리에게 의지하는 것에 대해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그리스도에게 의지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19세기 전도자 토레이(R. A Torray)는 목회적 돌봄에 관한 주제의 글을 쓰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어느 개교회의 성도들이 돌보는 것에 대한 그들의 의무와 특권을 잘 이행하면 그 교회의 모든 성도와 새신자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게 되어 커다란 부흥이 그 교회가 처한 그들의 공동사회에 가까워 올 것이다. 이것은 사람에게 칭찬받을 일은 별로 없으나 승리하는 일이며, 하나님을 향한 위대한 일을 성취하는 것이다.”¹¹⁷⁾

3. 사역(사역을 위한 가치)

알파를 그렇게도 감격스럽게 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사역(work)이다.¹¹⁸⁾ 대화를 전달하시고, 그룹 토론을 진척시키고, 성경 공부를 하게하며 목회적 돌봄, 운영, 그리고 알파의 모든 면을 가능케 하시는 것은 성령님의 활동이다. “사역”이란 말이 오늘날 신약성경과 교회에서 몇 가지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¹¹⁹⁾ 어떤 의미에서 사역은 교회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것과 알파의 모든 측면을 포함한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능력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일어나는 사역에 관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¹²⁰⁾

알파코스는 다음의 것들을 믿고 기대한다.

첫째, 성령의 사역을 믿고 기대한다. 여기에서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일은, 이것은 성령의 사역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라고 요구하신 것은 매우 간단하다. 그는 소리를 지르거나 춤을 추거나 필 필요가 없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지도자들이 자기 자신들이 되기 위하여 전적으로 자연스럽고 단순하게 될 것을 원하고, 믿음으로

117) Nike Gumble, *알파코스 운영방법*, 177.

118) Ibid., 179-181.

119) John Stott, *복음전도*, 95.

120) 존 Wimber(John Wimber: 제3의 물결, 성령운동의 창시자, 그의 사역방법은 전세계 성령운동의 사역자들에 의해 채택되었다)는 사역을 “하나님의 자요를 바탕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한발자국 나아가 그들의 손을 내밀어 그분의 성령을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권면한다.

둘째, 성경의 권위를 믿고 기대한다. 똑같이 중요한 것은 모든 사역을 성경의 권위 아래서 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과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서로 갈등하지 않는다. 그들은 서로서로 보완한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나타난 그분의 계시된 의지와 특성에 일치하지 않고 어떤 말이나 행동을 결코 하지 않으신다. 말씀과 성령이 손잡고 나란히 보조를 같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지도자들이 사역의 한 부분으로써 성경적 진리와 약속에 깊이 젖을 것을 권면한다.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것은 진리이다(요 8:32).

셋째, 개인의 존엄을 믿고 기대한다. 사역에 있어서 세 번째로 우리의 큰 관심은 개인의 위엄이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하면 우리는 그들에게 존경을 표할 것이다. 이것은 먼저 개인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¹²¹⁾ 만일 사람들이 그들의 삶에 대해서 어떤 비밀스러운 내용을 우리에게 말한다면, 그 말이 다른 데로 새어나가지 않는 것을 확실히 하고자 원한다. 그것은 “공동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보조자 도우미모임에서 의논해서도 안 된다. 그 다음, 우리는 정죄하기보다 오히려 긍정해야 한다. 만일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지 못한다 해도 우리는 “그것은 당신의 잘못입니다” 혹은 “당신은 충분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결코 어느 개인에게 믿음이 결핍되어서 병고침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가끔 그분은 그의 제자들이 믿음이 없는 것을 보시고 나무라셨다(그래서 우리도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지는 않은가 하고 우리 자신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분은 결코 이런 식으로 병든 자를 정죄하지 않으셨다.

우리는 누구에게나 추가적인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 환자에게 더 고통을 주지 말아야 한다. 만일 그들이 낫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그 상태에서 믿으라고 조언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는 그들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자유를 주어 다시 기도하게 한다.¹²²⁾

121) 이 부분에 대한 좋은 안내서는 Alice Pryling,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 편집부 역(서울: IVP, 1999), 125.

122) Nike Gumble, *알파코스 운영방법*, 183-184.

넷째, 관계와 조화를 기대한다. 가치 있는 일은 조화 있는 관계이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다.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은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요 17:23). 하나님의 백성들의 연합은 예수님의 일정에 높은 우선순위를 차지하였다. 그러므로 그것이 우리들의 일정에도 그와 같아야 한다. 팀 내에 연합, 사랑과 용서의 결핍은 성령의 사역을 방해하고, 알파에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나쁜 본을 보이게 된다.

각 그룹 지도자와 도우미들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마련해서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기도는 사소한 갈등을 뿌리 뽑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다섯째,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길 기대한다. 알파의 다섯 번째 가치는 그리스도의 몸에 지극한 중대성을 두는 것이다.¹²³⁾ 크리스천 공동체는 교회의 권위의 우산 아래 보호를 받으며 장기적 치유와 영적 성장이 일어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곳이다.¹²⁴⁾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가 그들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그룹을 찾도록 노력하라고 강조한다. 지도자와 보조자들은 그들의 돌봄(양육) 아래 각자가 그런 그룹을 찾도록 도울 책임이 있다.¹²⁵⁾

결론적으로 알파코스는 다음의 요구에 부응한다. 첫째는, 현대인들에게 교회를 영적인 집으로 돌아가게 한다. 오늘의 교회가 잃어버려진 영혼을 구원하는 책임에 여전히 성실하면서 교회를 집으로 회복하는 유일한 대안은 소위 seeker들에 대한 목회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 보인다. 주일의 예배만을 유일한 교회의 마당으로 고집하는 현대인의 영혼은 결코 집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종래의 전통적인 구역예배가 있지 않느냐고 말씀하실 분이 계실 것이다. 그러나 솔직히 대부분의 구역예배가 주일예배의 복사판이 되고 있는 한 거기에 집은 존재하지 않는다. 투명하게 열린 대화, 서로의 영혼을 진하게 책임지는 돌봄이 있기 위해서는 단순한 예배모임이나 소그룹 모임이상의 교회이어야 할 필요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여기에 대안목회로서의 알파코스의 긴박한 시대적인 요청이 있다고 믿는다.

123) John Stott, *중심되신 그리스도*, 박성호 역 (서울: 여수론, 1989), 71.

124) Ibid., 75.

125) Nike Gumble, *알파코스 운영방법*, 185.

둘째는, 종교개혁의 이상인 만인제사장의 이상을 실현한다. 누군가가 첫 번째 종교개혁은 사제의 손에 있던 성경을 평신도의 손으로 넘겨주었지만, 평신도의 손에 있어야 할 사역(ministry)은 아직도 사제들의 손에만 있다고 진단한 것은 정확하다고 생각한다. 오늘의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을 향한 넘쳐나는 비판 가운데 어떤 것들은 매우 불공정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비판의 밑바닥 평신도 정서는 “이제 우리에게도 사역의 기회를 달라”는 외침으로 들려온다.

본 연구자는 이런 요구에 대한 응답으로 교회 내 평신도 사역기회의 극대화를 위해 진지하게 노력해본 한 때가 있었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 아무리 그와 같은 기회 창출을 위해 노력해도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바로 이때에 이런 딜레마의 해답으로서 필자의 영혼을 두드리며 다가온 환상이 알파코스과 같은 대안목회 프로그램이었다.

전통적인 교회의 경우 아무리 평신도 사역이 활성화 되어 있어도 일꾼은 20 퍼센트에 불과하고 80 퍼센트까지 일꾼을 세울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12명 이내의 인원이 모이는 알파코스 소그룹 구조 안에서는 구성원들의 은사가 쉽게 관찰되고 은사에 따라 적절하게 일감을 나누어 배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때 우리의 동역자들은 모두 진실로 그들이 제사장됨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셋째는, 초대교회적 코이노니아의 회복을 위해서이다.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구호의 허실을 이제는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초대교회는 결코 완전한 모델교회일 수는 없었다. 오늘의 교회 못지 않은 만만치 않은 대내외적 갈등과 문제를 안고 있었음을 사도행전을 진지하게 연구하는 사람마다 쉽게 간파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이노니아에 관한 한 초대교회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동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 코이노니아는 단순히 교제라는 낱말로 번역될 수 없는 깊이를 안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단어이다. 코이노니아는 실로 진지한 삶의 나눔, 혹은 삶의 참여를 뜻하는 말이다. 오늘의 교회는 벌써 오래 전에 이미 이 코이노니아의 영성을 상실했다라고 지적한다면 지나친 말일까?

스코틀랜드 국교회 내에서 평신도 운동을 주도한 톰 알렌(Tom Allen)은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메마른 교회 안에서 오아시스처럼 물을 내뿜는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살아있는 소그룹들 - 이 밀접한 공동체 그룹들만이 모든 문제와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진지한 관심으로 삶의 처방을 나누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교회가 참되고 역동적인 공동체의 생활, 즉 신약적 코이노니아를 드러내 보일 때에만 비로소 온전히 그 교회 된 기능을 발휘하고 교회로 하여금 세속적인 세상에 성공적으로 침투하게 할 것이다.” 세상을 이기는 교회의 능력은 바로 함께 모여 떡을 떼며 교제하던 그 역동성에 있었음을 그는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지상명령의 온전한 성취를 위해서이다. 소그룹의 구성원들은 생명의 기본 단위이며 가장 작은 단위이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소그룹의 존재 이유는 단순한 성장이 아닌 증식에 있다. 그것은 계속해서 자신을 재생산하는 것이다. 소그룹은 일정한 숫자가 되면 반드시 나누어짐을 그 특성으로 해야 한다. 그리고 그 나눔의 이유가 전도를 통한 나눔일 때 교회는 가장 건강한 방식으로 주님의 지상명령을 성취해 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생명의 존재이유가 증식인 것처럼 알파 소그룹의 존재 이유도 증식, 곧 전도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주님이 제자를 부르신 이유가 그들을 통해 또 다른 제자를 부르시고자 함이셨다. 그래서 주 예수님은 마지막 부탁으로 제자들에게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너희를 택한 이유가 너희로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제 4 절 알파 성경공부 적용의 예

1. 성경 공부 교안 개발의 필요성

본 연구자는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의 복음화 전략 중 하나로 성경 공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다. 이유는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근본이기 때문이며, 모든 복음화 전략의 뿌리이기 때문이다. 성경을 떠나서는 교회를 생각할 수 없으며, 성경을 떠나서는 복음화 전략을 말할 수 없다. 맥가브란(Donald McGavran)은 “교회는 성경적 원리를 중요시하는 것만큼 성장한다”¹²⁶⁾고 하였다.

성경 공부는 영혼을 치유하는 역할을 한다. 상처 입은 영혼들은 성경 안에서 말씀을 통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성령으로 말미암은 치유가 일어난다. 또한 성경 공부를 통해 성도들의 신앙은 성장하게 된다. 기독교 교육을 통하지 않고 신앙이 성

126) Donald McGavran, *Understanding Church Growth*, 49.

장하고 성숙하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벤튼 이비(Benton Eavey)는 “성경에서 무언가를 얻은 사람과 얻지 못한 사람 사이에서 경험을 교류한다는 것은 거의 모든 생활에서 그러하겠지만 특히 성숙으로 발전하는데 있어서 본질적이다”¹²⁷⁾라고 하였다.

성경 공부를 통하여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신앙적 원리를 얻게 된다. 성경은 전 세대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삶의 길과 방법을 제시해준다. 따라서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오늘의 삶 속에서 재해석하여 이해하는 것은 현대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필수요소이다. 성경 공부를 통하여 개인들은 다양한 성품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성장하는 공동체를 향한 목표를 지향할 수 있다.

이러한 성경 공부의 방법, 곧 기독교 교육의 원리는 예수께서 제자들을 세우신 사역 안에서 확연하게 드러나며, 마지막 하늘로 올리 우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대 위임령은 이러한 성경 교육의 중요성을 더욱 확고하게 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성경 공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도구임에 틀림이 없다.

한편, 성경 공부 교안들은 많이 있다. 하지만 이민 사회라는 독특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는 이들에 대한 이해와 이들을 위한 관점에서의 성경 공부 교안은 많지 않다. 유대인들의 바벨론 포로 시절, 그들이 유대인으로서의 독특한 교육 방법과 과제들을 가졌었으며, 그로 인하여 그들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결국에는 본국에 돌아와 다시 하나님 안에서의 유대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은 이미 우리들에게 잘 알려져 있다.

오늘 이민 사회 속에서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고, 과제가 주어진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또 하나의 길이 제공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나아가서 이러한 성경 공부 교안이 제공되는 것은 이민 사회의 복음화 전략으로서 마땅한 또 하나의 기회라고 확신한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한 이민자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았던 성경 속의 인물, 우리들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성경 공부 교안을 작성하도록 하겠다.

127) C. B. Eavey, *기독교 가르침의 중심 원리들 (Principles of Teaching for Christian Teaching)*, 박영호 역 (서울: CLC, 1984), 35.

2. 성경 공부 교안

가. 성경 공부 교안의 개요

이민 사회 속의 한인들을 복음화하는 전략으로서 성경 공부 교안 개발은 필수적이다. 특히 이는 신앙 안에서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한 지침서로서 반드시 필요한 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1) 제목

본 교재의 이름을 본 연구자는 “아브라함의 비전 여행”이라 하였다. 이유는 본 교재는 성경 속의 아브라함의 일생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그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안에서의 비전을 따라 살아가는 여행으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목적

기독교 신앙이란 ‘하나님께서 날마다의 우리의 삶의 정황 속에서,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하고 계심을 몸으로 체득하고 마음으로 깨달아, 그것으로 인하여 감동되고 감격하고 감사하며 사는 삶 곧 생활’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기독교 신앙은 언제나 현재의 삶이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 신앙이란 ‘하나님을 생활 속에서 인식하고 그분의 말씀들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기독교 신앙은 미래지향적인 삶이다. 한편 기독교 신앙이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제시해주는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삼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생활’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기독교 신앙은 비전 여행(Vision Trip)이라고 할 수 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다. 신앙생활은 언제나 ‘관계’라는 속에서 이해되어진다. 먼저는 수직적인 관계 곧 하나님과의 관계이며, 다음은 수평적인 관계, 이웃과의 관계이다.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신 후에 하와를 만들어 주심으로 더불어 사는 사회를 이루게 하셨다. 하나님(엘로힘)이라는 단어 속에는 이미 복수적 개념이 들어 있으며 그의 형상대로 인간이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신앙생활은 언제나 더불어 하는 것이다. 특히 사회의 최초 단위로 최소 단위인 부부는 신앙생활에 가장 기초가 되는 관계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한 가족으로서의 부부의 동시적 신앙 성장은 매우 중요하다. 부부의 신앙적 균형은 더 나은 신앙으로의 발전을 위한 필요충분요소이다. 우리는 가운데 축을 중심으로 양쪽에 바퀴가 있는 수레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만일 두 수레바퀴의 크기가 다르다면 그 수레는 앞으로 전진 할 수 없을 것이다. 똑같은 힘으로 수레를 밀면 그 수레는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어있다. 부부 중 한쪽의 신앙은 높은 성장을 이루었지만 다른 한쪽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였을 때, 그 가정의 영적 고통은 당연한 것이다. 앞서가는 자도 성장할 수 없고, 뒤따라가는 자도 스트레스만 받을 뿐 언제나 그 가정은 영적 갈등으로 말미암아 매일을 아파해야만 할 것이다.

한 가족의 신앙은 함께 성장해야 한다. 부부는 같이 믿음의 성장을 도모해야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신앙인의 인생을 비전여행이라고 한다면 그 여행이 즐겁고 행복한 여행이 되기 위해서는 두 부부는 같은 눈높이의 신앙을 가져야 한다.

위하여 우리의 신앙 성장의 모델을 성경에서 한 가정을 택하기로 하였다. 그 가정이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정이다. 아브라함은 갈데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후 에브론의 밭에 장사될 때까지, 그는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았고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삶을 살았던 비전 여행(Vision Trip)의 대표자이다. 아브라함의 생활은 우리의 생활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 그의 생각, 언행, 그리고 삶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우리의 생활 모습과 너무도 흡사한 부분이 많이 있었다. 앞으로 20주 동안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을 성경을 중심으로 살펴봄으로 우리의 가정은 어떠한 신앙생활, 비전 여행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보도록 한다.

우리가 본 프로그램에서 목적하는 바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신앙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만나며, 그분은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사하시고, 우리는 그 안에서 어떠한 신앙생활을 영위해야 할 것인가를 얻도록 하는 데에 있다. 특히 본 교재는 다양한 삶의 현실 속에서 적응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며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신앙인을 양육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본 프로그램은 교육과 치료를 통한 성장을 도모하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좀더 지혜로운 신앙인의 삶이 되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나. 성경 공부 교안 내용

본 교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제 1 과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아브라함 (창 12:1-4)

- (1) 아브라함의 비전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 (2)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비전은 미지의 세계를 보는 믿음의 눈이었습니다.
- (3)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삼았습니다.

제 2 과 하나님에 의해 양육 받는 아브라함 (창 15:1-11)

- (1)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비전에 미달하였습니다.
- (2)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릇된 믿음을 수정하여 주셨습니다.
- (3)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겨 주셨습니다.

제 3 과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언약의 표징 (창 17:1-14)

- (1) 할례는 믿음의 고백이 수반되어야 했습니다.
- (2) 할례는 하나님의 구원의 인침이었습니다.
- (3) 할례는 아브라함과 그 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었습니다.

제 4 과 하나님의 관심 안에 있는 아브라함 (창 13:14-18)

- (1)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형편을 잘 아셨습니다.
- (2) 아브라함은 다시 제시된 비전으로 용기를 얻었습니다.
- (3) 아브라함은 회복된 영성으로 비전 여행을 계속하였습니다.

제 5 과 이삭을 품에 안은 아브라함 (창 21:1-7)

- (1) 이삭은 하나님의 비전의 씨앗이었습니다.
- (2) 하나님의 비전은 때가 있습니다.
- (3) 아브라함의 순종은 성장을 위한 필요조건이었습니다.

제 6 과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는 아브라함 (창 19:23-29)

- (1) 롯의 선택은 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 (2) 롯의 아내는 소돔의 생활에 길들여져 있었습니다.
- (3)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심판을 목도하였습니다.

제 7 과 시험을 통하여 성장하는 아브라함 (창 22:1-19)

- (1) 하나님의 시험은 아브라함을 향한 연단이었습니다.
- (2) 아브라함의 행함은 믿음의 외적 표현이었습니다.
- (3) 시험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하였습니다.

제 8 과 하나님의 보호 속의 아브라함 (창 12:10-13:4)

- (1)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 (2) 하나님은 애굽에서도 함께 하셨습니다.
- (3) 환난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또 하나의 기회였습니다.

제 9 과 하갈을 취하는 아브라함 (창 16:1-14)

- (1) 사라의 생각은 제법 합당하게 보이는 계획이었습니다.
- (2)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행위를 절제했어야 했습니다.
- (3) 사라의 마음의 고통은 이미 예고된 것이었습니다.

제 10 과 부지중에 천사를 대접한 아브라함 (창 18:1-10)

- (1) 하나님은 마므레 상수리 수풀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 (2) 아브라함은 기쁨으로 천사를 대접하였습니다.
- (3) 역시 남을 섬기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제 11 과 하나님께 속한 사람 아브라함 (창 20:1-18)

- (1) 아브라함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 (2)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세워주십니다.
- (3) 인간의 연약함이 하나님께는 영광의 기회입니다.

제 12 과 감사로 하나님을 섬긴 아브라함 (창 21:22-34)

- (1) 외로운 지경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힘이었습니다.
- (2) 아브라함은 지혜롭게 행동을 하였습니다.
- (3) 아브라함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제 13 과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아브라함 (창 14:17-24)

- (1)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 승리를 하였습니다.
- (2)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십일조를 드렸습니다.
- (3) 아브라함은 철저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렸습니다.

제 14 과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아브라함 (창 15:6-21)

- (1) 아브라함의 제사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랐습니다.
- (2)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과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 (3) 아브라함의 비전은 하나님에 의해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제 15 과 이스마엘을 보내는 아브라함 (창 21:8-21)

- (1) 먼저 태어난 것이 하나님 앞에 우선한 조건은 아닙니다.
- (2) 아브라함의 근심은 비신앙적인 행동이었습니다.
- (3) 하나님은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씨로 여겨주셨습니다.

제 16 과 소돔을 위하여 간구하는 아브라함 (창 18:16-33)

- (1) 소돔은 하나님 앞에 타락의 도시였습니다.
- (2)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미리 알려 주셨습니다.
- (3) 아브라함은 소돔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제 17 과 믿음을 생활로 보인 아브라함 (창 17:1-6, 15-16)

- (1) 이름은 지은이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 (2)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름은 신앙고백이었습니다.
- (3) 믿음은 현실 속에서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제 18 과 긴 안목을 가진 아브라함 (창 23:1-20)

- (1) 사라의 죽음이 아브라함을 애통하게 하였습니다.
- (2) 아브라함은 땅의 대가를 지불하였습니다.
- (3) 아브라함의 행동은 내일을 바라보는 안목을 가진 자의 행동이었습니다.

제 19 과 하나님의 인도를 신뢰하는 아브라함 (창 24:1-9)

- (1)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순수성을 지키기 원했습니다.
- (2) 아브라함은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 (3)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응답하십니다.

제 20 과 임종을 맞이한 아브라함 (창 25:1-11)

- (1) 아브라함은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졌습니다.
- (2) 아브라함은 자기의 열조에게로 돌아갔습니다.
- (3) 하나님의 비전은 아브라함에서 이삭에게로 이어졌습니다.

다. 효과적인 교재 사용법

효율적인 신앙 안에서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 본 교재를 좀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 시간을 산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특별한 시간을 정하여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 이때에 중요한 것은 시간에 쫓기듯이 바쁘게 진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충분한 대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인도자는 참석자들이 자기 속에 가졌던 지난날의 비신앙적인 것들을 토해내고, 서로를 이해하며 함께 어우러지는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도록 기다림도 필요하다. 그리고 본문 속에서 깨달았던 점을 말하게 함으로써 말씀 속에서 만난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며 나누게 한다.

첫째, 반드시 부부가 함께 앉아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고, 기도하게 한다. 본 교안은 신앙 안에서 하나 됨을 목적으로 하며, 지난날의 분산되었던 마음들을 하나님의 비전으로 하나 되게 하는 치료의 효과를 목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조용한 시간을 따로 마련하고 한적한 장소를 택하게 한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교통을 위하여 다른 주변의 상황들로부터 장애되지 않도록 하는 배려가 요청된다.

셋째, 함께 찬송을 부르고, 기도한 후 성경 본문을 읽게 한다.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영접하는 자세로서의 찬송과 기도가 있어야 한다.

넷째, 교재를 함께 읽고 개인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잠시 개인적인 묵상의 시간을 갖는다. 말씀에 대한 묵상은 개인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는 중요한 방법이 된다.

다섯째, 성령의 임재를 깨달으며,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는다. 신앙 훈련 가운데 중요한 것은 듣는 훈련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었으면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여섯째, 부부가 함께 자기가 깨달은 하나님의 비전을 내놓고 대화를 하게 한다.

일곱째, 이때에는 충분한 신뢰심을 갖게 해야 하며, 상대방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는 대화가 되도록 해야 한다. 은혜 받은 말씀을 서로에게 말하며 신앙 고백을

하게하고,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나누는 것은 우리 안에 신앙을 생활화 하는 중요한 작업이 된다.

여덟째,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신앙생활의 부족한 점들을 말하고, 함께 신앙 안에서 결단을 하며,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한 신앙 여행을 하게 한다. 혼자 결단하고 행동하는 것보다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격려하며 함께 신앙 여행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의 중요한 목적이기도 하다.

아홉째, 서로 마주 앉아 서로를 섬기는 기도를 하게하고, 공동의 비전을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한다. 섬김과 나눔은 서로를 신뢰하게 하고, 같은 의식 안에서 같은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공동체로서 하나의 유니티를 형성하게 해준다.

열째, 이때에는 언제나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필요하며, 주님의 음성을 구하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는 동안 참석자는 모두 계속해서 성령의 임재와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하고, 서로에게 임하신 성령의 역사를 섬김의 자세로 수용하여야 한다.

제 5 절 결론 및 제언

우리는 알파코스의 이론과 실재를 다루었다. 알파는 전도라고 하는 말의 원래의 의미에도 충실하면서 동시에 현대 전도론에 가장 적합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충분히 인격적이고 충분히 효과 있는 알파코스는 소그룹과 논리적인 설득, 그리고 의지적인 결단이라는 모든 요소를 두루 갖추었다. 현재 뉴질랜드의 상황에서 알파코스의 적용은 많은 성과를 기대한다.

이제, 이렇게 성숙한 신앙으로 인도된 사람들과 아직도 앞서의 두 단계의 전략에 동화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다민족 예배공동체를 살펴보고자 한다.

제 6 장

다민족 선교 네트워크

뉴질랜드의 한인 이민 사회는 또 하나의 선교지로 규정된다. 이민 교회 사역은 언어가 같고 동질 문화권 속에서의 사역이기는 하지만 이민 사회는 한국인의 문화와 가치관 그리고 생활상을 가진 또 하나의 뉴질랜드인들의 사회라고 이해할 때에 이민 목회는 단순히 1차적인 전도의 개념으로만 볼 수 없는 선교적 이해가 필요하다. 뉴질랜드 현지에 살고 있는 한인 이민자들의 사고방식은 현지인들의 사고방식을 닮아가고 있다. 이들의 가치관이나 생활양식 등은 현지인들의 생활상을 받아들여 많은 부분에서 현지화 되어진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물론 언어도 마찬가지이다. 한국에서 이미 장성해버린 장년들은 한국어에 대한 부담이 훨씬 적다. 하지만 뉴질랜드에서 어린 시절부터 학교를 다닌 자녀들은 한국어로의 대화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학교생활은 전혀 한국적이지 않은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훨씬 더 뉴질랜드인에 가깝다. 이들에게 한국어로만의 설교와 교회 생활을 강요하는 것은 실제로 어려운 현실이며, 이러한 이질적인 문화와의 갈등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커질 전망이다.

이러한 뉴질랜드에서의 사역을 본 연구자는 선교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뉴질랜드의 한인 이민 사회를 다민족이 살고 있는 이민 국가 속의 한 종족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따라서 뉴질랜드 한인 이민 사회의 복음화 전략을 뉴질랜드 전반에 걸친 종교적 이해와 그 안에 함께 생활하는 한인으로서의 이민자들의 복음화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 1 절 뉴질랜드의 종교 현황

통계청의 2001년 센서스 자료에 의하면 기독교인의 숫자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전체인구의 약 55 퍼센트 정도인 약 200여만 명의 뉴질랜드 거주인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하였다. 이를 교파별로 구분하면 앵글리칸이 584,793명으로 전체 인구의 17 퍼센트를 차지하고, 개톨릭이 486,012명으로 14 퍼센트, 장로교가 417,453명으로 11 퍼센트가 된다. 그중 1996년과 2001년 사이에 개톨릭은 12,900명이 증가한 반면, 앵글리칸은 46,971명이 줄었고, 장로교는 38,895명이 감소하였다. 지역별로 분석하면 오클랜드는 개톨릭이 가장 넓게 분포되어 있고, 오타고와 사우드 랜드는 장로교가 가장 넓게 분포되어 있으며, 그 외의 모든 지역에서는 앵글리칸이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다.¹²⁸⁾

이러한 종교적인 변화는 1901년 센서스와 비교할 때에 매우 큰 변화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1901년도 센서는 전체 인구 중에 영국 교회가 41퍼센트, 장로교회가 23 퍼센트, 개톨릭 교회는 14 퍼센트였으며, 감리교회는 11 퍼센트였다. 그리고 삼십분의 일 정도의 사람들만이 종교적 교단적 성향을 표시하지 않았다. 다시 말하여 1901년도의 뉴질랜드는 97 퍼센트의 기독교율을 가졌던 나라였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는 1971년과 1981년의 자료에 의해서 보면 크게 떨어져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71년 센서스에 의하면 앵글리칸은 895,839명으로 전체 인구의 31.3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고, 장로교는 583,701명으로 20.4 퍼센트를, 개톨릭은 449,874명으로 15.7 퍼센트, 감리교는 182,727명으로 6.4 퍼센트, 그리고 침례교는 47,350명으로 1.7 퍼센트를 유지하였으며, 기독교율은 전체 인구의 82.7 퍼센트였다. 나아가 1981년도의 통계는 그보다 더 떨어진 기독교율을 보이는데, 앵글리칸은 전체 인구의 25.7 퍼센트로 807,132명을 나타냄으로 10년 전과 비교하여 약 6 퍼센트의 감소를 보이고 있으며, 장로교는 521,040명으로 10년 전보다 약 4 퍼센트가 떨어진 16.6 퍼센트를, 감리교도 2 퍼센트가 감소된 147,195명이었다. 그중에서도 개톨릭은 조금 나은 편으로 다른 종파들이 크게 감소한 반면 개톨릭은 약 1 퍼센트 감소한 452,871

128) 뉴질랜드 통계청, <http://www.stats.govt.nz/NR/rdonlyres/67F7B223-02B8-4B36-B1B8-A1A77DCDDCD/0/cssnap1.pdf>

명이었다. 이러한 전반적인 기독교율의 감퇴는 1981년에 720 퍼센트라는 숫자를 나타내었다.¹²⁹⁾

기독교율의 감퇴는 갈수록 더욱 심화되어 2001년도에는 약 55 퍼센트의 기독교율만을 소유하는 국가가 되었으니, 45 퍼센트나 되는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아닐 뿐 아니라 그들의 교단적 성향여부를 자세히 말하지 않음으로 그들의 비기독교적 성향을 분명히 하였다¹³⁰⁾. 이는 뉴질랜드의 기독교율이 더욱 급속히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자료에 의하면 뉴질랜드는 비기독교 종교인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 힌두교는 39,798명으로 1996년도 대비 56 퍼센트의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불교는 41,634명으로 48 퍼센트, 이슬람교는 23,631명으로 74 퍼센트, 영매술(spiritualism)은 16,062명으로 64 퍼센트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¹³¹⁾

이상의 자료 분석에서 보는 바와 같이 뉴질랜드는 급격히 기독교율이 떨어지고 있고, 타 종교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이다.

주일에 교회에 참석하는 진정한 기독교인의 비율을 말한다면 이는 더욱 우리를 놀라게 해준다. 오클랜드의 호윅에 위치한 엘림교회의 루크 목사에 의하면 뉴질랜드는 현재 매주일 약 7-9 퍼센트의 교인들만이 교회에 참석하고 있다고 하였고, 나사렛 교단의 존 베넷 목사는 주일이면 전 국민의 약 3 퍼센트만이 교회에 출석한다고 하였다.

날이 갈수록 더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이탈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 현직 나사렛 교단의 비폴(Beepool) 목사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이유로 설명을 하였다. 성도들이 교회를 빠져나가는 큰 이유 중 하나는 성도들의 경제적인 생활이 전보다 넉넉해지면서 돈이 하나님을 대체해버림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신앙이 무너진 것이라고 하였다. 그는 성도들의 생활이 넉넉해지면서 신앙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 5일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매 주말이면 가족과 함께 레저를 즐기려는 성도들이 도시 밖으로 나가는 바람에 교회는 자리가

129) Leonard Mosende Douglas ed., *World Christianity Oceania* (C.A. 1986), 214-215.

130) 뉴질랜드 통계청, <http://www.stats.govt.nz/NR/rdonlyres/67F7B223-02B8-4B36-B1B8-A1A77DCDDCD/0/cssnap1.pdf>

131) Ibid.

비게 되었다고 하였다. 매주 금요일 토요일이면 도시 밖으로 나가는 도로는 레저를 즐기려는 가족들로 번잡해지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로는 이민자들이 늘어나면서 생활 패턴이 바뀌면서 교회를 이탈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였다. 그중에 특히 중국과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로부터 이민 온 사람들은 서양인들의 생활 습관과 다르다. 서양인들은 주말이면 쉬었다. 하지만 아시안들은 주말이면 쇼핑을 하고, 외식을 한다. 따라서 전에는 주일이면 쉬고 교회에 참석하던 성도들이 주말의 소비문화를 이끌어가는 아시안들의 패턴에 맞추어 1주일 내내 상가 문을 오픈으로 그들은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다. 따라서 상가들의 7일 근무가 생활화 되어지는 지역일수록 갈수록 교회는 자리가 비어가고 있다.

이러한 생활 문화의 변화와 아울러 기독교율은 더욱 가속화되어 감소하고 있으며, 지난날 선교사 파송 1위 국가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뉴질랜드는 갈수록 더욱 비기독교화 되어가는 나라가 되었다.

우리는 이러한 종교적인 현황을 이해해볼 때에 뉴질랜드는 영적 각성이 요청되는 새로운 선교지로 규정되는 것이 옳으며, 그 안에 세계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디아스포라로서 보내어진 한국인계 뉴질랜드인, 뉴질랜드 한인 이민 사회를 위한 복음화 전략을 다음과 같이 수립한다.

제 2 절 뉴질랜드 복음화 전략

먼저 본 연구자는 세계 선교를 향한 전초 기지로서의 뉴질랜드 센터 구축에 초점을 둔다.

1. 남태평양 원주민 및 현지인 복음화 전략

뉴질랜드에는 많은 다민족들이 함께 살고 있다. 뉴질랜드는 약 15 퍼센트의 원주민인 마오리를 제외하면 남태평양 섬나라 사람들과 유럽인, 아시아인 그리고 아프리카인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이민 국가이다. 지금도 이 나라는 이민자들에게 열려있는 나라이며, 수많은 민족들이 계속 유입되고 있다.

마오리인들은 뉴질랜드 전역에 살고 있으나, 제일 많이 거주하는 곳은 마누카우 시티이다. 마누카우 시티에는 44,274명의 마오리인들이 살고 있는데 이는 뉴질랜드 전체 마오리인들의 전체 십이분의 일에 해당되는 숫자이다. 그 다음으로 많이 사는 지역은 오클랜드시가 29,139명, 크라이스트처치가 21,960명, 파 노드 디스트릭트가 21,729명, 로토루아가 21,609명 그리고 기스본이 19,362명이다. 뉴질랜드에서 마오리가 가장 작게 사는 도시는 넬슨으로 3,219명이 거주하고 있다. 그중 파 노드 디스트릭트는 도시 인구의 이십분의 구에 해당하는 숫자가 마오리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¹³²⁾ 이러한 뉴질랜드 원주민인 마오리인들에 대한 선교적 관심은 뉴질랜드 선교에 대한 중요한 하나의 이슈이다.

뿐만 아니라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인종 중에는 남태평양의 섬나라에 속한 사람들인 뉴질랜드 령에 속하는 쿡 제도, 토켈라우 제도, 나우에 섬의 주민과, 사모아, 통아, 그리고 피지인들이 있다. 이들은 대규모 공동체를 이루어 마누카우, 오클랜드 등의 도시에 주로 거주한다. 특히 마누카우 시티의 경우는 전체 인구의 사분의 일이 남태평양 섬나라 사람들이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오클랜드 시티에 칠분의 일, 포리루아에 사분의 일, 그리고 와이타케레에 칠분의 일이 남태평양 섬나라 사람들인 것으로 나타났다.¹³³⁾

이들도 물론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이민자들이다. 하지만 이들을 복음화할 경우 이들을 통한 2차적인 선교의 열매를 볼 수 있다는 의미에서 이들의 복음화 전략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들을 향한 복음 전파와 예수 제자 삼음의 사역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어야 할 궁극적인 우리들의 과제이다. 그러므로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복음 전파자는 이를 위하여 선교의 접촉점을 찾고 그들 속에 들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여야 한다.

가. 다민족 예배 공동체 실현

132) 뉴질랜드 통계청, <http://www.stats.govt.nz/NR/rdonlyres/67F7B223-02B8-4B36-B1B8-A1A77DCDDCD/0/cssnap1.pdf>

133) Ibid.

모든 민족들이 함께 어우러져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공동체가 세워져야 한다. 대부분의 교회들은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말미암은 종족별 구별이 뚜렷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종족 간 교차되는 만남을 이루기가 쉽지 않고, 서로를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찾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문화와 언어가 다른 다민족이 서로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 예배 공동체를 이룸으로써 좀 더 다양한 선교의 기회를 갖는 것은 타 민족을 향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중요한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나. 다민족 교회 간의 공동체 형성 및 사역의 공유

다민족이 사는 만큼 종족별 교회도 다양하다. 그들은 각자의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신앙적 전통을 가지고 있다. 아울러 그 안에는 신학적인 전제도 다양하게 들어 있다. 따라서 교회들은 서로 다르다는 것으로 인하여 더욱 블록화 되어있다. 이 담을 넘어야 선교의 길은 열린다. 타 민족 복음화를 위한 사역은 그 민족 문화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며,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의 다양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서로가 다른 인습과, 삶의 형태를 가져온 종족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신앙 안에서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하여 교회들은 서로의 사역을 함께 할 수 있는 공동 사역을 개발하고 동역하여야 한다. 다민족 교회들 간의 공동체 형성과 사역 개발, 그리고 동역 사역은 뉴질랜드 복음화를 위한 또 하나의 전략이다.

2. 세계 선교사들과의 네트워킹을 통한 선교 훈련 및 지원 사역

뉴질랜드는 남태평양 섬나라들을 향한 복음의 관문이다. 나아가 세계 선교에 대한 저력을 지닌 나라이다. 언어는 세계 만국 공통어인 영어를 사용하고, 다양한 문화를 품고 있는 다민족문화 사회이다. 인하여 뉴질랜드를 중심한 선교의 훈련과 지원 사역은 단기적인 뉴질랜드의 복음화만이 아닌 장기적인 복음 사역을 위한 프로젝트로 이해될 수 있다.

가. 세계 선교 훈련 및 지원 센터

전 세계에는 교단을 초월하여 약 11,000명의 세계 선교사들이 파송되어 사역하고 있다. 이들은 안식년이 되어도 마땅히 쉼만한 곳을 찾지 못하여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들에게 뉴질랜드는 천혜의 자연 환경을 제공하며 참된 안식의 공간을 허용할 수 있다. 미국이나 영국에 비하여 물가가 싸며, 자녀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선교사들에게 안식년의 다음 사역을 준비하기 위한 기회와 장소로 제공된다면 그들에게는 더 없이 좋은 기간이 될 것이다. 인하여 앞으로의 사역은 선교사 지원 사역을 볼 수 있어야 한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선교사들이 스스로 참여하며 서로 협력하여 자체적인 성장을 도모하게 하고, 새로운 선교 정책의 나눔의 장이 되도록 함으로써 좀더 효과적인 선교 사역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선교 센터를 구축하고 세계 선교의 지원 센터로서의 역할을 확보하도록 한다.

선교사 자녀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선교사 자녀들로 하여금 학업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며, 건강한 영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돌봄의 사역을 해야 한다. 나아가 이들로 하여금 부모의 신앙을 본받아 주를 위하여 헌신된 선교사 2 세대를 살게 한다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복음적 과제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역을 통하여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에게 자녀들로 인한 부담감을 덜어 선교 사역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나아가 세계 선교 센터를 중심으로 남태평양 선교 대회를 유치하고, 현실적인 선교 정보를 나눔으로 선교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함에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이로써 본 세계 선교 훈련 및 지원 센터는 남태평양 선교의 주역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를 정리해보면 첫째, 선교사 훈련 사역, 둘째, 선교사 지원 사역, 셋째, 선교사 자녀 교육 및 지원 사역, 넷째, 선교사 대회 등을 통한 선교 정보 나눔 사역으로 나눌 수 있다.

3. 세계 교회와의 협력을 통한 비전 사역

뉴질랜드는 다민족이 함께 어울려 사는 다민족 국가이다. 따라서 여러 민족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져있다. 이러한 이점을 살려 세계 교회와 협력하여 비전을 나누는 사역을 할 때에 훨씬 효과적인 세계 선교에 동역하는 교회가 될 것이다.

가. 청소년 선교 훈련 사역

이는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남북아메리카 등의 선교사 혹은 선교센터, 교회와의 협력을 통하여 청소년들에게 선교 비전을 심어주고, 그들로 하여금 선교에 헌신케 하여 주를 위한 삶을 살게 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하여 청소년 선교 비전 트립을 개발하고, 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청소년들에게 세계 선교의 눈을 열어주는 기회를 제공한다. 청소년 시절 경험하는 세계 선교 여행은 그들에게 넓은 세계를 향한 자신감을 갖게 해 줄 것이며, 생소한 선교지의 산 경험은 그들에게 새로운 가치관을 형성케 해주어 복음적 삶의 폭넓은 지평을 갖게 해 줄 것이다. 위하여 기도하게 하고, 준비하게 하며, 헌신케 함으로 청소년들에게 신앙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이는 세계 청소년들만이 아니라, 이민 사회 속의 청소년들과 한국 교회 안의 청소년들에게도 열려있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역을 진행함으로써 인하여 이민 사회와 고국의 청소년들 사이에 이해의 간격을 좁혀주고, 나아가 세계 선교를 위한 동역의 동기를 제공해주어 더 나은 삶을 위한 기회를 갖게 해 준다.

나. 단기 선교사 훈련 및 지원 사역

단기 선교 헌신자들에게 현지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실제적인 남태평양 선교 경험과, 세계 선교 사역에의 동참을 통하여 한결음 더 나아간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삶을 살게 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 이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고 주를 위하여 살기로 결심한 자들에게 선교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줌으로 좀 더 넓은 신앙적 삶의 지평을 갖게 한다. 교회의 지체된 성도들에게 주어진 은사들을 사용하여 주를 섬길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하고 또한 그러한 프로그램에 참여케 함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한 선교 사역에 동역자가 되게 하는 일, 이는 또 하나의 세계 선교를 동역하는 일이다.

4. 한국 교회 및 선교 단체와의 연계를 통한 선교 훈련 및 협력 사역

한국 교회와 선교 단체들과의 연계를 통하여 단기 선교 학교, 청소년 비전 학교, 세계 선교 훈련 학교, 영성 훈련 학교, 섬김과 나눔의 사역 훈련 학교 등을 개최하는 일은 뉴질랜드를 중심한 사역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러한 사역을 통하여 뉴질랜드 안과 밖으로의 동시적인 복음화 사역을 이루어냄으로 더욱 폭넓고 깊이가 있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사역을 통해 한국 교회는 선교적 관점에서 더욱 풍요로운 성장을 가질 수 있으며, 선교 단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더 나은 효과적인 사역의 열매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사역은 한국 내의 교회와 선교 단체의 사역을 더욱 풍요롭게 하며, 그리스도 안에서의 폭 넓은 삶에 대한 체험을 통하여 신앙의 맛을 아는 성도, 훈련된 그리스도인을 양성케 하는 기회를 제공해 주게 될 것이다.

제 7 장

결론과 제언

뉴질랜드 한인 이민 사회는 다양한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언어와 문화 그리고 사고 구조에 있어서 이중적인 양상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들을 단순히 하나의 한인 사회라는 동질의 개념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한인계 뉴질랜드인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 따라서 이들을 복음화시키기 위하여 접근할 때에는 이들에 대한 이해가 동반되어야 하며, 방법 또한 좀더 개인적이고, 성경적이며, 영적인 방법이 요청된다.

새로운 환경 속에서 적응하며 형성되어진 기질과 성품들을 하나로 묶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길지 않은 이민 역사를 가진 사회 속에서 이민 사회를 이해하고,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는 복음화의 길을 찾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이들에게는 누구든지 공감하고 인정되는 하나의 비전이 요구되며, 말씀 안에서 치료되고 격려되는 신앙적 과정이 요청된다.

성경은 언제나 모든 사람들에게 신앙 안에서의 삶의 길을 제시한다. 신앙인들은 성경을 공부함으로 신앙인으로서의 자질과 자격을 갖게 되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성경공부는 성도 개인들의 구원과 성장에 깊은 영향을 줄뿐 아니라 공동체로 하여금 하나의 통일성을 갖게 해준다. 특히 가정생활에서 신앙적으로 가족간의 다양성과 통일성을 유지하는 길은 함께 앉아 성경을 공부하고,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다. 성령 안에서의 변화된 생활, 신앙인으로서의 신앙적 가치관은 모든 공동체를 신앙 공동체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한 사회를 복음화 시키는 전략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중에 성경 공부는 구성원들을 하나의 가치관과 신앙관, 그리고 인생관으로 이끌어주며, 사회를 복음화 시키는 전략으로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특별히 이민 사회와 같이 특수성을 가

진 공동체 속에서 이들을 복음화 시키는 전략으로서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하여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한편 전도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인 복음의 선포나 교회출석 강요가 아니라 충분히 인격적으로, 그들의 영적인 갈급함을 알고 거기에 대해서 복음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복음이 좀 더 효과적으로, 그리고 능력있게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리차드 피스(Richard Peace)는 이러한 면에서 매우 독특한 공헌을 한 학자이다. 그는 전도의 방법론으로 접근하지 않고 신약에서 말하는 회심의 정의로 시작하여 순례의 긴 여정가운데 있는 구도자 혹은 회심 중에 있는 자들을 위한 올바른 성경적인 통찰과 실제적인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뉴질랜드 한인 복음화에 적용하였다.

뉴질랜드 한인의 복음화는 단순히 한국인을 위한 교회라는 의미 이상을 지니고 있다. 뉴질랜드 특성상 한인의 이민은 많은 영향력과 관련이 있으며, 그러므로 한인의 복음화는 뉴질랜드 기독교의 부흥과 많은 관련이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같은 뉴질랜드 지역의 한인사역은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열매를 맺을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한다. 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하고, 영적인 관심사들에 대한 확고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을 때에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결과가 있는 것이다. 본 논문의 복음화 전략이 잘 준비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귀하게 쓰임 받을 날을 바라본다.

부록 1 알파코스 주간계획서 및 성령수양회의 예

주제/ (2) 예수님은 왜 돌아가셨나?

일시/

시간	순서	담당자	준비사항	세부공지사항
2주차 만남의 목적 및 주요 진행사항	① 십자가는 기독교 신앙의 중심임을(고전 23-24)알게 ② 하고, 죄의 네가지 특성을 말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죄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이 무엇인지 알도록 한다 ④ 십자가의 네가지 의미가 무엇인지, 네가지 이미지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 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할 수 있고, 신앙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한다			행정팀/ 행사장소 개폐 사전준비/세팅(수요일) 장소열쇠/ 1층 관리실 010-3158-3171 (고등부실) 담당교역자
09:45-10:00 (18:45-19:00)	준비자기도회(전체)	진행총무	점검사항 확인	전체모임후 팀별모임 찬양팀/ 상큼식팀/ 소그룹팀/ 행정팀
10:00-10:30 (19:00-19:30)	팀별로 준비점검	행정팀 소그룹인도자 찬양팀 상큼식팀	세팅확인 및 점검 명찰확인 악보준비/ 영상확인 상큼식소개/운송	영상세팅/환기/온도조절 소그룹유인물준비/ Vip환영 오전/저녁팀 멤버확인/ 상큼식운영
10:30 -10:50 (19:30-19:50)	환영 및 교제 (오늘의 영상)	찬양팀/행정팀 방송팀	악기/앰프 VTR 혹은 CD	오늘의 영상 (학생/ 주제영상)
10:50-11:30 (19:50-20:30)	강 의 (2)	예수님은 왜 돌아가셨는가		강사/ 강사용 생수준비/온도,조명조 절
11:30-11:45 (20:30-20:45)	게스트 적용시간	The Passion of the Christ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그리스도의 수난의 의미와 느낌을 이야기하도록 한다		데모버전 상영(영상팀)
11:45-12:10 (20:45-21:10)	(상큼식소개) 소그룹 만남	소그룹인도자	간식도우미 간식가져오기(상큼식소개) 그룹별미팅 <오늘의 간식>	
- 오후 9:20 (12:20)	마침기도 및 정리	진행총무	다음주 진행소개 및 피드백/	기도회 및 뒷정리
도우미 (공통)	1. 게스트들이 적응하는 가장 중요한 시점이 3-4주간때임을 알고, 밝은 모습으로 허깅하며 인사합니다 2. 인도자 및 도우미 사전모임(주일 오후 3:30/ 목요일 시작 40분전)에 성실을 요구합니다 3. 모임후 팀별로 사용자료를 구비하고, 정돈 및 보관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보관캐비닛)			
소그룹 인도자 공지사항	1. 게스트가 적응할 수 있도록 관심과 사랑을 아끼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허깅으로 꼭 인사합니다 2. 도우미나 소그룹인도자는 반드시 <알파셔츠>를 입고, 사역에 임해주시도록 합니다 3. 알파VIP들에게 전화 및 문자연락은 최소 일주일에 두 번이 되어야하며, 전날 전화는 필수입니다 4. 목양보고서는 소그룹이 마쳐지면 바로 작성하셔서 꼭 당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성령수양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소그룹인도자는 첫 번째 작은선물을 준비하도록 합니다) - 성령수양회팀 (세족례팀을 비롯한 모든 팀)을 중심으로 성령수양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합니다 6. 성령수양회 준비 - 게스트 및 도우미 중 간증자를 준비하도록 합니다 <편지 선발> 7. 성령수양회 감작파티를 위해 생일자 및 기념일되는 분을 찾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2 알파 HOLY Spirit Conference의 예

1. 일 시 :

2 장 소 :

장소	시간	프로그램	준비내용	담당자	진행총무	준비사항(팀별)
메인홀 (5층)	오 후 5:30	전체 도우미 모임	기도회/ 일정확인/ 담당자 점검		팀별 점검사항 준비	
			<p>1) 행정/상침식/찬양 소그룹인도자/세족례 스태프모임</p> <p>2) 팀장들은 각자 준비한 팀별사역을 공지한 후 기도회를 갖는다</p> <p>3) 복장점검하고, 강사목사님 미리 전달해 주실 것(복장 명찰패용)</p> <p>4) 진행: 알파강의자, 소그룹오피미 (기도회), 알파 진행총무</p> <p>5) 조직 (사전준비 차리미 팀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구준비: (꾸미미팀 내부데코) * 장소셋팅: * 상 침 식(만찬포함): ▲ 상침식 봉사 소그룹오피미 9명 <p>6) 모임: 여행연습-10월 31일(주일) 오후 3시(2층 유년부실)/ 11월 4일(목) 교육관 5층 ● 명찰 꼭 확인</p> <p>7) 세족 섬김자 (현재 게스트 53중 6명 남자 47명 여자)</p> <p>소그룹인도자 (남) 1명+ (여) 8명= 9명포함/ 남자 6명 + 여자 48명 = 54명중 6명결원/ 48명 게스트...</p> <p>8) 물품과 조명(꾸미미팀)/ 의자를 ㄷ자 형태로 준비(차리미팀) ● 아이돌봄(3층 유치부실): 아이사랑팀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품: (사전) 온수 담은 대야 (기도중) 수건과 양말 준비 ● 조명: 인도자와 반주만 볼 수 있을 정도의 조명 (초 또는 스탠드, 앞조명) ● 양말공궤(○○○) 		<p>상침식팀(김밥 및 국물 준비)</p> <p>진행총무(유인물 배부)</p> <p>행정팀(사전세팅 및 준비물)</p> <p>아이돌봄팀 점검 - 아이맡기는 곳 표시할 것</p> <p>성령수양회 편지발송 (행사 1주일전)</p> <p>방송팀요원 2인</p> <p><세족도우미> 남 5명 ± 여 34명</p>	

	6:30 - 7:10	환영 및 찬양	악보/ 찬양팀 연습 1) 오전/저녁팀 전원(복장) 2) 악보하고 영상하고 점검해 줄 것	세팅협조	찬양팀/악보(방송실배부) 찬양후 동산지기: 강사 소개	
	7:10 - 8:00	성령 강의	영상준비/ 강의안 1) 성령이란 무엇인가? 2)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 3)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가?	강사접대	행정팀(물/ 물수건 준비) 방송팀(비디오 및 사진)	
	8:00 - 8:30	성령기도회	중보기도시간 인도자 대기 1) 영상(이지선 자매) 2) 사랑의 편지(게스트 2명) 3) 중보 치유기도	비디오/ 사진	방송팀(영상준비/이지선) 행정팀(사랑의 편지준비)	
중 등 부실 (4층)	8:30 - 8:50	상큼식방 이동 및 천국만찬	천국의 만찬나누기 1) 기도회후 한줄씩 서서 4층으로 내려간다(조상진전도사 선두) 2) 소그룹인도자들은 미리 나가서 4층을 지원하고손을 앞으로 내밀어 찬양을 하면서 내려오는 게스트를 환영한다. 3) 천국만찬 후 다시 5층으로 올라온다	4층 세팅/ 앰프	한편 5층에서는... 세족레도우미들에게 세족레순서를 공지하고 실습토록 한다	
			대야 양말/ 수건 각 50세트	세팅 및 물품구비		
메인홀 (5층)	8:50 - 9:30	세족레	<p>【세족레 진행순서】 전체진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게스트 입장할 때 : (게스트입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부르면서 입장(순서)남자게스트 - 여자게스트 ● 세족할 때 : *전체적으로 찬양이 바뀔 때 주의 (영상참고) <p>① (도우미입장) 찬송가 330장을 절을 바꿔부를 때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순서대로 입장 (남자부터)</p> <p>② (발목기도)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니" (1회) 무릎꿇고 기도 (2회) 발목잡고 기도</p> <p>③ (세족진행)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가 시작되면, 양말을 벗기고 한쪽씩 세족한다. 세족후 잘 닦아준다</p> <p>④ (아부라조하면서 기도)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이 시작되면 일어나서 아부라조기도를 한다</p> <p>⑤ (아부라조기도 후) 진행자의 멘트에 따라 찬양을 하면서, 조별기도 허깅 시간을 갖고 마지막 영상을 함께보면서 마칩..</p>			행정팀/ 세족레팀 (대야, 양말, 수건준비) - 온수(미지근하게) 방송팀/ 6주간영상준비 진행부/ 도우미섭외점검 (도우미 명찰준비)
			9:30 -	은혜의 찬양	전원 찬양하며, 허깅으로	

	9:45		인사			
			1) 남은 4주간을 격려하며 <감작파티> 축하의 시간/ 축복 기도			

부록 3 성경교재의 예: 아브라함의 생애

제 1 과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아브라함

성경 본문 : 창 12:1-4

성공적인 인생의 소유자들은 모두가 비전을 가지고 삶을 살았습니다. 비전은 한 인생에 방향성을 갖게 합니다. 이것도 조금, 저것도 조금하며 인생을 낭비한 사람들은 대부분 삶의 비전을 갖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비전은 삶을 더욱 보람 있게 엮어 가도록 하는 원동력입니다. 새로운 삶을 기대하는 사람은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비전은 역동적인 삶을 위한 필수요소입니다.

아브라함은 비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조용한 삶을 깨뜨렸습니다. 기득권이 있는 자기의 모든 삶을 포기하였고, 모든 식구들을 이끌고 새로운 삶을 향하여 출발하였습니다. 그는 어디로 가야할지, 어디가 끝일지 모르는 인생 여정을 떠났습니다. 성경은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인생을 바꾸었던 그의 비전은 어떤 것이었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브라함의 비전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아브라함의 비전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그 비전을 만들어 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 간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먼저 만나주시고, 그에게 비전을 심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비전은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

의 본토 친척 아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1-2).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겠다는 생각은 아마도 그에게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75세가 되도록 아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이 실현 가능한 일에서 희망을 갖습니다. 자기의 영역을 벗어난 일이라고 생각하면 포기하거나, 아니면 생각하는 것조차 사치라고 여기고 무시해 버립니다. 아브라함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우상을 섬기는 문화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직업을 가졌습니다. 오늘날도 그러하듯이 종교적인 용품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라면 그 종교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슬하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그의 주위는 온통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영향권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분으로 말미암은 비전을 갖는다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시지 않는 이상 그가 여호와를 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가진 비전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비전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비전은 분명한 것이었습니다. 실현 가능성이 확실한 비전이었습니다. 우리가 갖는 비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비전이어야 합니다. 나의 생각이나 나의 욕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비전이어야 우리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2.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비전은 미지의 세계를 보는 믿음의 눈이었습니다.

비전의 세계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믿음의 세계입니다. 미지의 세계를 보게 하고 기대하게 하는 것은 비전, 곧 믿음의 눈입니다. 비전을 가진 자만이 새로운 세계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은 비전이라는 믿음의 눈을 가진 자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을 때에 믿음의 눈을 갖게 되었습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깁니다. 아브라함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향한 비전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말씀하신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친히 보증하신 약속이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를 마치 보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는 마치 당장에 소유할 듯이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의 눈이었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그러한 믿음의 눈을 갖지 못했더라면 그는 그러한 무모한 결단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이라고 하시며 정확하게 지역과 방향을 제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길을 재촉하여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눈앞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마치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된 것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곧 실현될 것처럼 미래를 당기어 현실로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자는 믿음의 눈을 가진 자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3.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하고 믿고 순종하는 자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믿음으로 행하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었습니다. 믿고 반석을 칠 때에 물이 나왔습니다. 믿고 장대에 높이 달린 낫뱀을 바라보았을 때에 죽음에서 헤어 나올 수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기드온의 삼백용사는 미디안의 대군을 무찌를 수 있었으며, 어리석어 보였으나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종의 말에 순종하였을 때에 나만장군은 문둥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하나님의 비전은 믿음으로 결단하고 행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가 '믿습니다'해서 '나의 것'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비전을 나의 삶 속에서 추구하고 믿음으로 행할 때에 그 '하나님의 비전'이 비로소 '나의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이 원리를 택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에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본문은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와 말씀들을 좇아갔고"(4절)라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비전이 임했을 때에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자기의 비전으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비전을 자기의 비전으로 누린 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도 무가치한 나의 욕심에서 비롯된 비전이 아닌 하나님의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나아가 아브라함처럼 미지의 세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삼고 성공적인 인생을 열어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상과 나눔

1.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까?
2. 우리 가정은 이 비전을 어떻게 이루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3. 이 비전을 위하여 우리 가정은 무엇을 바라며, 무엇을 추구해야 합니까?

합심기도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 가정에서 이루게 하옵소서

제 2 과 하나님에 의해 양육 받는 아브라함

성경 본문 : 창 15:1-11

비전은 성공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자신을 통제하는 힘이 됩니다. 때로는 지치고 힘들어 연약해졌을 때에도 비전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새로운 용기를 얻게 하고 재도전할 의욕을 갖게 해 줍니다. 특히 하나님의 비전은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있어서 삶의 동기와 애착심을 갖게 해주며, 기도할 의욕을 갖게 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비전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씀에 대한 순종과 헌신을 독려하며, 성장과 성숙을 향한 신앙 여행을 감당하도록 이끌어 주는 안내자가 됩니다.

하지만 비전을 가진 사람도 때로는 그 앞에 보이는 현실이 부정적일 때에, 그릇된 판단으로 상황 분석을 잘못하고 실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한 오류가 깊어지

고 반복되어지면 결국 그에게 있어서의 비전은 한낱 꿈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하나님의 비전이라 할지라도 그 비전이 믿음으로 화(化)하여 그 사람의 안에 정착되어지기 전까지는 그 비전은 하나님의 비전으로만 남아 있을 뿐입니다. 본문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자였습니다.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였으며, 새로운 삶을 위하여 모든 식구들을 이끌고 가나안까지 들어온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도 온전한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인하여 하나님은 그를 믿음 안에서 양육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비전은 하나님의 비전이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비전에 합당한 사람으로 양육해 가셨습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양육하시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비전에 미달하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여기고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나'를 위한 죽음과 부활이었음을 믿는 것이 성도들의 신앙입니다. 비록 경험해 보지 못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의 세계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생활입니다. 성도란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성도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비전과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주어졌을 때에 그것을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성도의 신앙생활입니다. 비록 그것이 인간 이성에 의한 판단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어긋나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대로 믿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마땅한 삶의 태도여야 합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현실은 기대했던 것과 사뭇 달랐습니다. 나이는 더 깊어 가는데 기다리던 아들이 생산되지 않았습니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대로라면 그에게 무엇인가 증상들이 나타나야 할텐데 기대하던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니다. 그렇게 10년을 지냈습니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비전은 먼 것처럼 느껴졌습니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니다. "주 여호와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러온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2-3절). 그는 하나님의 감추어진 계획을 몰랐습니다. 그저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러한 오류를 얼마나 많이 범하는지 모릅니다. 항상 보이는 것에 안주하고, 상황이 예상을 빗나가면 쉽게 실망하고 포기하는 모습이 우리들의 오늘의 현실입니다.

2.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릇된 믿음을 수정하여 주셨습니다.

성도들이 연약하여 넘어질 때 하나님은 붙들어 주셨습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판단대로 백성을 구원하겠다고 흥분하다가 실패하고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를 하나님은 만나주셨습니다. 어찌 할 수 없어 지친 몸을 이끌고 로뎀나무에 의지하여 눈물로 인생을 아파하던 엘리야를 하나님은 찾아 주셨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는 믿음에서 넘어진 자들을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그릇된 길에서 방황하는 모습을 그냥 두지 않는 분이십니다. 친히 찾아가 만나주시고, 먼저 손을 내밀어 화해를 요청하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의 생각이 잘 못 되었습니다. 그의 믿음이 그릇된 길에 들어 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의 몸에서 나온 자를 통하여’ 그의 비전을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여호와와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되리라”(4절).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비밀을 몰랐습니다. 보이는 것에만 길들여진 아브라함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 리 없었습니다. 인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습니다. 믿음의 주인께서 직접 교사로 임하여 주셨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수정하여 주셨습니다. 잘못된 생각을 고쳐 주셨습니다. 아직 익숙하도록 길들여지지 않았던 믿음 생활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에 길들여진 그의 방법을 이용하여 그의 믿음을 독려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같으리라”(5절)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톤으로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3.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겨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양육을 그대로 순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대로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늘의 뭇별들을 보며 자기의 몸에서 나온 후손들이 창대케 되어 큰 나라가 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눈으로 가능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저절로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연이란 불가능한 것입니다. 단세포 아메바가 우연히 진화되어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누군가의 의도, 곧 하나님의 의도에 의해서 창조되었습니다. 발명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은 발명가의 의식 속에서 이미 그림(이미지)으로 존재했던 것들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물건이든지 그것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만드는 자의 의식 속에 그림으로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라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을 보며 '자기의 몸에서 나올 자를 통한 큰 민족'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재시해주신 시각교재를 통하여 그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이루어주실 하나님을 보았고 그분을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보이는 현실이나, 가진 비전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언제나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러한 믿음을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너무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비전이 너무 멀다고 실망하지 않습니까? 보이는 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포기하지는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안에 감추인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고, 우리 함께 믿음으로 비전 여행을 떠나지 않으시렵니까?

묵상과 나눔

1. 우리 가정이 때문에 겪는 오늘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2. 그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3. 우리 가정의 믿음의 양육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합심기도

현실 생활이 부정적인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 맞추어지지 않았음이 문제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게 해 주옵소서.

제 3 과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언약의 표징

성경 본문 : 창 17:1-14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을 때에만 비로소 참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존재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그들은 참된 인간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후 인간은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고, 사단이 왕노릇하는 죄악된 세상에서 종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에덴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의 모습, 그것은 타락한 형상 그대로 하나님 없는 삶이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인간의 하나님이 아니었으며, 인간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했던 인간은 하나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인간들에 대하여 여전히 관심이 있었으며, 하나님의 눈은 변함없이 인간 세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인간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인하여 한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믿음의 자손들을 번창케 하심으로 영적 어둠에 살고 있는 인간 세상에 빛을 비추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비롯한 그의 자손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고, 그들을 통하여 이 세상을 구원코자 하는 하나

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네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나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1-2, 7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스스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 특별히 예레미야 31:31과 33에는 이를 새 언약이라 하였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렘 33:31, 33).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언약이 이미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할례를 행하는 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의 표징으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백성됨을 스스로 고백하는 표시로 할례를 하도록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은 이 할례를 중심으로 말씀을 생각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 할례는 믿음의 고백이 수반되어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은 단순히 외적 표시만을 요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9-11절). 양피를 베는 행위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양피를 베는 일이 신

양의 고백적 행위가 될 때에 비로소 그것이 할례라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이 없는 예배, 찬송, 헌신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믿음의 고백이 곁해야 우리의 신앙적 행위는 의미를 갖게 되고, 하나님 앞에 받으심직한 예배가 됩니다. 하나님은 할례를 통하여 그들의 믿음의 고백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2. 할례는 하나님의 구원의 인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인침이라는 것은 보증을 의미합니다. 어떤 물건을 샀을 때에 주인은 그 물건의 일부를 산 사람에게 먼저 줌으로 전체를 준다는 보증을 삼았습니다. 일군을 부릴 때에도 임금의 일부를 먼저 줌으로 일을 마친 후에는 다 준다는 보증을 삼았는데, 이것을 '인침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구원하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기서의 구원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인침으로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구원하신다는 보증으로 하나님은 그들의 몸에 언약의 표징 곧 할례를 행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신약의 표현처럼 구약의 외적 할례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고백이 함께한 할례 곧 신약의 세례는 구원의 인침의 표시요, 구원의 보증입니다.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13하,14절).

3. 할례는 아브라함과 그 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에게만 국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속한 이방인에게도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속하기만 하였다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을 자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만 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집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무론하고 난지 팔 일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12, 13상반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이방인에게도 열려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속한 자로서 언약의 표징인 할례를 받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들이 비록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셨고, 그들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거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분의 관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비록 신분과 출신, 생김새가 다르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기만 하면 우리는 모두가 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할례는 곧 우리의 하나됨을 고백하는 구약적 신앙 의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의 고백이 함께하는 할례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이 여러분 개개인에게는 어떤 것으로 존재합니까? 먼저는 공통적인 세례가 있어야 하고, 마음의 할례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에 대한 확신이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의 표징이 우리의 삶에서 신앙 고백으로 나타나는 삶이 되어 지시기를 기원합니다.

묵상과 나눔

1. 우리는 세례를 하나님의 백성 됨에 대한 진실한 신앙고백으로 받았습니까?
2. 아직 믿지 않는 우리의 남은 식구들과 이웃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 무엇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3.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가정임을 오늘의 생활 속에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합심기도

우리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같은 믿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제 4 과 하나님의 관심 안에 있는 아브라함

성경 본문 : 창 13:14-18

오늘은 아브라함의 비전 여행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으며, 지치고 피곤한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는지를 본문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형편을 잘 아셨습니다.

“너의 본토 친척 아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창12:1)는 명령을 듣고, 지체하지 않고 순종하여 길을 떠난 아브라함은 언제나 하나님의 관심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자기의 비전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자기의 삶의 근본으로 여겼던 아브라함이기에 하나님은 그를 더욱 관심있게 살피셨습니다. 맨처음 그들이 간 곳은 가나안 땅의 벨엘과 아이 사이였습니다. 그곳에서 기근을 만난 아브라함 일행은 애굽에 잠시 내려갔다가 다시 그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의 재산과, 조카 롯의 재산은 늘어났습니다. 인하여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 사이에는 다툼이 빈번하였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헤어져 살아야 했습니다. 하루는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13:8-9). 그 말에 롯은 물이 넉넉하고 풍요로운 지방인 요단 들을 선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였는고로 여호와와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13:10-12)고 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생각에 의하면 손아랫사람인 롯이 거친 가나안을 택하고, 손윗사람인

아브라함이 기름진 땅을 택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마땅히 자기에게 먼저 있는 선택권을 조카에게 양보하였고, 그로 하여금 먼저 선택을 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롯은 양보하는 마음이 없이, 오히려 자기의 양젓 기름진 땅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길을 떠나버렸습니다. 우리는 그때의 아브라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양보하였으므로 그의 신앙이 크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비전을 이미 가지고 있었으므로 양보할 여유로움이 있었다고 말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러하듯 헤어짐은 쓸쓸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떠나는 롯의 행동이 너무나 염치없어 보이는 것이었기에 우리는 더욱 아브라함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롯은 승승장구하는 기분으로 자신의 선택을 축하했을 것입니다. 그에 반하여 아브라함은 쓸쓸한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비록 '주는 것이 복이 있다'고는 하였지만 그 순간 아브라함의 마음이 결코 편하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외로운 마음, 섭섭하고 허탈한 생각 등이 아마도 아브라함을 온전히 사로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 오셨습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14상반절). 실망감, 배신감, 서글픔 등의 부정적인 요소들이 그의 마음을 가득 메우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하여 애정을 갖고 있던 하나님은 바로 그때가 그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필요한 때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형편을 잘 아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시면서도, 혹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때에는 가장 적절할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십니다. 우리의 형편을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2. 아브라함은 다시 제시된 비전으로 용기를 얻었습니다.

삶에서 지친 영혼이 용기를 얻는 것은 다시 한번 지난날의 비전을 깨닫게 되는 경우입니다.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확신과,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목표가 있을 때에 사람들은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됩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눈을 이 땅에서 들어 하늘로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용기를 얻게 되며, 세

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에 소망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친 아브라함을 만나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아직도 관심이 있으시며 그의 비전에 대해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제시해 줌으로 용기를 얻게 하셨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으로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대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14하-17). 궁극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에 기회주의적이고 현실주의적인 선택을 한 롯은 그 이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모든 소유를 잃게 되었고, 사랑하는 아내조차도 소금기둥이 되는 슬픔을 겪어야 되었습니다. 한 순간의 소유를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자의 삶의 결과가 롯에게서 나타났습니다. 이에 반하여 아브라함에게서는 신앙적 삶을 추구한 자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말씀의 확신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득권을 포기하고, 주를 위하여 자신을 포기한 자를 하나님은 결코 외면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아브라함 같은 사람의 하나님이십니다.

3. 아브라함은 회복된 영성으로 비전 여행을 계속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신앙이 무너지면 모든 삶이 무너집니다. 신앙에서 파선되면 생활이 파선되는 경우가 많고, 신앙이 힘겨우면 삶 자체가 고달프게 느껴지는 것이 신앙인들의 일반적인 삶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신앙인들이 무너지는 것은 어려운 시험에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작은 일에서 미혹되고 넘어지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다윗은 사울왕이 그토록 괴롭힐 때에도 하나님을 인식하고 잘 이겼지만, 우리아의 아내 밧새바를 보는 순간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엘리야는 갈멜 산에서의 큰 영적 싸움에서 대승하였지만, 왕비 이세벨의 독설(毒舌) 앞에서는 작아지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러한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으며,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잠 16:32). 마음

을 지켜야 합니다. 믿음의 좌소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은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하며, 그 비전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며 영성을 유지할 때에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십시오. 보이는 현실이 아무리 부정적이고 우리를 괴롭혀도 우리 그분의 말씀에 삶의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리고 다시 신앙의 여정을 떠나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묵상과 나눔

1. 생활 중에 신앙 때문에 손해를 보았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2. 만약 우리 가정에 룯과 같이 선택권이 먼저 주어진다면 과연 우리는 어느 쪽을 선택하였을까요?
3. 우리 가정은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갑니까?

합심기도

언제나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제 5 과 이삭을 품에 안은 아브라함

성경 본문 : 창 21:1-7

우리는 병원에서 도저히 고칠 수 없다는 진단을 받고 이제는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종종 보고,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정도의 파산지경에 이르렀던 기업들이 마치 거짓말처럼 다시 회생하는 경우들을 접하곤 합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냐고 물으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꿈을 잃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비전을 가진 것이 그들에게 힘이 되고 삶의 동기가 되어 기나긴 투병생활과 내일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을 이길 수 있게 되었노라고 그들은 말을 합니다. 비전이란 우리의 삶의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비결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네 아내 사라가 정녕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창17:19)고 하였습니다. 그 해 어느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다시 만나 주셨고, 다시 한번 그에게 ‘사라가 때가 되면 아들을 낳아 주리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창 18:10). 그때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육체적인 생산 능력은 이미 끝이 난지 오래였습니다. 이때의 그들의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창 18:11-12). 당연히 나이가 많아서 아들을 잉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모든 가능성들은 끝이 난 상황이었습니다. 사라가 웃을 만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일을 경험해 본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당시의 상황에서 어느 곳에서도 백세에 아들을 낳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일이 없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에 사라의 웃음은 지극히 정상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창18:13-14). 희망이 끊어진 자들에게 하나님은 먼저 꿈을 가질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모든 상황이 가능성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상황 하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비전을 가질 것을 원하셨습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느냐?’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일년 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아들을 안겨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을 처음 한 이후 25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동안을 기다렸습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이스마엘을 낳는 어리석음도 저질렀지만 그는 약속하신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아마 실망도 했을 것이고 포기하고 싶은 심정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고비마다 나타나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셨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꿈같은 현실을 맞이하였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상고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 이삭은 하나님의 비전의 씨앗이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비전여행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삭은 오히려 그 비전 여행의 시작이었습니다. 비록 25년이나 걸린 기다림과 쌓아온 믿음의 결과이기는 하였지만 이삭은 아브라함의 비전, 곧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에서는 시작에 불과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 몸에서 나온 씨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 사라의 몸을 통해서 나온 아들은 언약의 아들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비록 하갈에게서 나온 이스마엘도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는 약속을 하셨지만,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아들은 이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창 21:12-13 참조). 이삭에게서 나온 자들을 “아브라함의 씨”라고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백세에 얻은 아들,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 얻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이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행하셨습니다. 한번 발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그냥 돌아가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1)라고 성경은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더 큰 비전을 아브라함에게 제시하시며 이루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가운데 이삭을 낳게 하시는 일은 매우 중요한 결정적인 첫 열매였습니다. 그 이삭을 통하여서만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룬다’는 믿음을 갖게 하는 하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2. 하나님의 비전은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은 때가 있습니다. 낳을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으면 기쁠 때가 있습니다. 헐 때가 있으면 세울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습니다. “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를 때가 있나니”(전3:1)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언제나 때가 차야 합니다. 하나님도 “때가 차매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하시고”(갈4:4)라고 하였습니다. 믿음 생

활에는 언제나 인내가 요구됩니다. 기다림은 또 하나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였으면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그 때를 바라고 참을 수 있어야 합니다. 화분에 씨앗을 심은 자가 그 씨앗이 자라는 모습을 확인하려고 자꾸 캐본다면 어리석은 사람일 것입니다. 심었으면 기다려야 합니다. 그것도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오직 믿음만이 우리의 기다림을 가능케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때가 되면 아들을 낳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 기한이 되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안겨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할 수 있습니다.

3. 아브라함의 순종은 성장을 위한 필요조건이었습니다.

우리의 비전을 좀더 확실하게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성장해야 합니다. 믿음이 성장하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말씀이 떨어지면 의심 없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생활, 이것은 성장을 위한 비결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안고 기뻐하는 중에도 실수하지 않았으니 난지 팔 일된 이삭에게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순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아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표를 남겨 주겠다는 의미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이 있어야 한다는 믿음의 고백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주소서 하는 신앙적 간구의 한 형태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대로 행하였습니다. 이는 그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순종은 성장을 위한 필요조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여러분, 이삭을 품에 안은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축복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비전을 가집시다. 그리고 불가능 중에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에 계시며, 우리 안에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묵상과 나눔

1.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는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입니다. 이를 믿습니까?
2.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허황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비전이라면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까?
3.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했습니까?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위하여 어떻게 성장을 추구할 수 있습니까?

합심기도

중요로운 신앙생활을 위하여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 성장할 수 있게 하옵소서.

참고문헌

1. 국내서적

- 고 훈, *교회 성장을 위한 팀 목회*, 서울: 베드로서원, 1996.
- 곽선희, *목회의 본질과 실제*, 서울: 복된 말씀, 1973.
- 구봉규, *이민을 통한 한국 증산층의 지위 재생산 전략.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체치시의 한국인 이민자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1997.
- 김경재, *그리스도인의 영성 훈련*,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8.
- _____, *영성신학 서설*,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90.
- _____, *종교다원시대의 기독교 영성*, 서울: 다산글방, 1994.
- 김득룡, *주교교육학*, 서울: 정음출판사, 1973.
- _____, *기독교교육사*, 서울: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출판부, 1979.
- 김상복, *교회와 목회자의 리더십*, 서울: 엠마오, 1992.
- _____, *참된 영성이란 무엇인가?* 서울: 도서출판 햇볕, 1993.
- 김연택, *목회와 교회성장*,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6.
- 김영성, "뉴질랜드의 인구변동," *사회과학연구 9*, 서울: 사회과학연구회, 1996.
- _____, "뉴질랜드의 한국인," *해외동포 64*, 서울: 해외교포문제연구소, 1994.
- 김외식, *현대교회와 영성목회*, 서울: 감리료신학대학교출판부, 1994.
- 김우영, *부흥회와 교회 성장*, 서울: 콧잔출판사, 1996.
- 김운대, *이민 가서 뭐해 먹고 살지: 뉴질랜드 편*, 서울: 삶과 꿈, 1999.
- 김진홍, *비견있는 교회*, 대구: 도서출판두레마을, 1991.
- 김진환, *한국교회 부흥운동사*, 서울: 서울서적, 1995.
- 김하태, *제3의 가나안*, L.A.: Light, 1980.
- 김형창, 이은호, *미국 속의 한국인*, 서울: 삼영, 1990.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정보센터, *뉴질랜드 편람*, 서울, 1996.
- 명성훈, *교회성장*, 서울: 서울서적 1992.
- 민병용, *성공이민시대*, 서울: 화산문화, 1998.

- 박근원, *오늘의 목사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1.
- 박성근, *21세기 이민교회의 비전세미나*, L.A: 나성영락교회, 1998.
- 박영률, *리더십과 교회성장*, 서울: 성광문화사, 1991.
- 배성준, *뉴질랜드 경제개혁의 진행과정에 대한 연구*, 서울: 서울대학교대학원, 1999.
- 서정운, *교회와 선교*, 서울: 두란노서원, 1988.
- 송인규,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 서울: IVP, 1992.
- 오석환, *세계 속의 한국인 2세*, 서울: 크리스천 한미연합회, 1998.
- 오인택 외, *기독교교육론*, 서울: 대한기독교교육협회, 1985.
- 오정현, *새천년을 위한 퍼스파인더*, 서울: 두란노, 1999.
- 목한흠, *평신도를 깨운다*, 서울: 두란노서원, 1989.
- 외교통상부 편, *외국의 통상 환경 2001*, 서울: 외교통상부, 2001.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뉴질랜드 청소년 정책과 현황," *청소년연구자료집*, 서울: 유네스코청년원, 1998년 9월호.
- 윤흥기, 임석희, "뉴질랜드 지역 한국인의 생업 분석," *대한지리학회지* 68, 서울: 대한지리학회, 1997.
- 이성희, *교회 행정학*,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4.
- _____, *미래사회와 미래교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7.
- 이은숙, "뉴질랜드 이민 1세대 한국인의 건강관리 실태에 관한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29.1, 서울: 대한간호학회, 1999.
- 장종열, *교회성장과 선교학*, 서울: 성광문화사, 1986.
- 정도량, *성경공부를 통한 이민교회 성장*, 서울: 규장, 1988.
- 정영환, "기독교 교육이 한국교회 성장에 미친 영향," 목회학박사학위논문, 호남신학대학원, 1998.
- 정우송, *이민교회의 다중적 사역을 위한 목회신학적 고찰*, 목회학박사학위 논문, 플러신학교, 2001.
- 조은태, *전도학 총론*, 서울: 타문화권목회연구원, 1995.
- 최협, 박찬응, *세계의 한민족. 세계한민족총서 3*, 서울: 통일원, 1962.
- 현규환, *한국 유이민사 하권*, 서울: 삼화, 1976.

2 번역서적

- Aldrich, Joseph C. *생활전도 (Life-Style Evangelism)*. 오정현 역. 서울: 말씀사, 2003.
- Anderson, Leith. *21세기를 위한 교회*. 황성철 역. 서울: 솔로몬, 1997.
- Barna, George. *비전을 실행하는 지도자*. 조범식 역. 서울: 서로사랑, 1997.
- Crider, Larry. *셀그룹 리더십*. 박영철 역. 서울: 서로사랑, 2001.
- Cully, Iris. *창조적 성서교육법*. 권혁봉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5.
- Eavey, C. B. *Principles of Teaching for Christian Teaching*. 박영호 역. 서울: CLC, 1984.
- Foster, Richard J. *영적 무장을 위한 제자훈련*. 편집부 역. 서울: 보이스사, 1998.
- Gumble, Nike. *알파코스 운영방법*. 이인수 역. 서울: 서로사랑, 1998.
- _____. *왜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이인수 역. 서울: 서로사랑, 1998.
- _____. *인생의 의문점들*. 이인수 역. 서울: 서로사랑, 1999.
- _____. *부흥의 본질*. 명성훈 역. 서울: 서로사랑, 1999.
- _____. *삶의 스타일에 도전하기*. 조병철 외 역. 서울: 서로사랑, 1998.
- _____. *성경읽기 30일*. 홍원팔 역. 서울: 서로사랑, 2000.
- _____. *유익한 삶*. 이인수 역. 서울: 서로사랑, 1998.
- Hemphil, Ken. *안디옥 이펙트*. 이명희 역. 서울: 서로사랑, 2000.
- Hiltner, Syward. *목회신학원론*. 민경배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3.
- 하워드 핸드릭스. *사람을 세우는 사람*. 박경범 역. 서울: 디모데, 1997.
- Hunter, George G. *잃은 양, 떠난 양, 버린 양을 찾아서*. 김양석 역. 서울: 프리젠프트, 1999.
- Kenedy, D. James. *전도폭발 (Evangelism Explosion)*. 김만홍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0.
- Kim, Seyoon. *바울복음의 기원 (The Origin of Paul's Gospel)*. 서울: 엠마오, 2001.
- Kraemer, Hendrik. *평신도 신학*. 유동식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1.
- Maxwell, John. *파워 리더십*. 전형철 역. 서울: 청우, 2000.
- McGavran, D. A. *교회성장학*. 고용원 역. 대구: 보문출판사, 1979.

- Navpress Co. *평생을 위한 개인성경공부 지침서*. 이은주, 최현수 공역. 서울: 아가페, 1986.
- Peace, Richard *신약이 말하는 회심 (Conversion in the New Testament)*. 김태곤 역. 서울: 좋은 씨앗, 1999.
- Peapert, Rebeka. *빛으로 소금으로*. 김성녀 역. 서울: IVP, 2003.
- 엘리스 프라일링.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 서울: IVP, 1999.
- Peursen, Van. *급변하는 흐름 속에서의 문화*. 강영안 역. 서울: 서광사, 1994.
- Powell, Paul W. *교회성장의 실제와 사례*. 천복현 역. 서울: 요단출판사, 1995.
- Sanders, J. Oswald. *무한한 기도의 능력*. 정동섭 역. 서울: 요단출판사, 1996.
- Sanderson L. *신약성서적 새 신자 양육의 원리와 방법*. 정학봉 역. 서울: 요단출판사, 1976.
- Smart, J. D. *교회의 교육적 사명*. 장운철 역. 서울: 대한기독교교육협회, 1987.
- Smith, J. H. *당신의 은사를 확인하고 개발하라*. 김동원 역. 서울: 바울서신사, 1987.
- Snyder, Howard A. *21세기 교회의 전망*. 편집부 역. 서울: 아가페, 1993.
- Spader, Dann and Mayes, Gary. *제자화 전략으로 성장하는 건강한 교회*. 채슬기 역. 서울: 하늘사다리, 1997.
- Stott, John R. W. *현대기독교 선교*. 김명혁 역. 서울: 성광문화사, 1982.
- _____. *복음전도 (Our Guilty Silence)*. 서울: IVP, 2002.
- _____.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서울: IVP, 1996.
- _____. *중심되신 그리스도*. 박성호 역. 서울: 여수론, 1989.
- Stott, John R. W. eds. *로잔 언약*. 조종남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3.
- Towns, Elmer L. ed. *전도와 교회성장의 모든 것 (Evangelism and Church Growth)*. 서울: 서로사랑, 1998.
- Wagner, Peter. *교회성장원리*. 권달천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76.
- Walker, Williston. *세계기독교사*. 강근화 외 3인 공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5.
- Watson, Davis. *복음전도(I Believe in Evangelism)*. 박영호 역. 서울: CLC, 1993.

3. 외국서적

- Anderson, Ray S. *Theological Foundations for Ministry*. Grand Rapids: Eerdmans, 1979.
- Autrey, C. E. *Basic Evangelism*. Grand Rapids: Zondervan, 1959.
- Baker, John. *Can Your Church Afford the Great Commission?* Wheaton: Association of Church Missions Committees, 1989.
- Barna, George. *Evangelism That Works*, Ventura: Regal, 1995.
- Brown, Dennis. *Worldview and Worldview Change*. Pasadena: Fuller Theological Seminary, 1982.
- Cho, Yong Gi. *Successful Home Cell Groups*. Plainfield: Logos International, 1981.
- Conn, Harvie. *Eternal Word and Changing Worlds*. Grand Rapid: Academic Books, 1984.
- Covell, John Carter. *Korea's Cultural Roots*. Granbury: Moth House, 1981.
- Crane, Paul S. *Korean Patterns*. Seoul: Holy Corporation, 1967.
- Dept. of Statistics. *New Zealand Official Year Book*, N.Z, 1965.
_____. Online: <http://www.stats.govt.nz>
- Elwell, Walter A. ed. *Evangelical Dictionary of Theology*. Grand Rapids: Baker, 1984.
- Glasser, Arthur F. *In Contemporary Theologies of Mission*.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83.
- Green, Michael. *Evangelism in the Early Church*. Grand Rapids: Eerdmans, 1970.
- Heijke, John. *An Ecumenical Light on the Review of Religious Community Life*. Pittsburgh: Distinguish Press, 1987.
- Hiebert, Paul G. *Anthropology Insights for Missionaries*.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s, 1985.
- Irving, Roy G. and Roy B. Zuck. *Youth and the Church: An Approach to the Christian Education of Youth*. Chicago: Moody Press, 1974.

- Kane, Herbert, *The Christian World Mission: Today & Tomorrow*.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86.
- Kang, Connie "Church Provides One-Stop Center for Korean's Needs," *Los Angeles Times*, October 23 1992
- Kang, Young Il, *The Grass Roof*. New York: Charles Scribner, 1988.
- Kim, Il Soo, *New Urban Immigrant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1981.
- Kraft, Charles, *Christianity in Culture*. Marynoll: Orbis Books, 1979.
- Leonora Mosende Douglas, Ed., *World Christianity Oceania*, CA: MARC, 1986.
- McGarvran, Donald and Arn, Winfield C, *Ten Steps for Church Growth*, San Francisco, Harper San Francisco, 1977.
- McGarvran, Donald, *Understanding Church Growth*, Grand Rapids: Eerdmans, 1990.
- McLoughlin, William, *Modern Revivalism*. New York: Ronald Press, 1959.
- Messer, Dornald, *Contemporary Image of Christian Ministry*, Nashville: Abingdon: 1989, 47.
- Morgenthaler, Sally, *Worship Evangelism: Inviting Unbelievers into the Presence of God*. Grand Rapids: Zondervan, 1995.
- Nida, Eugene A, *Customs and Culture*. Pasadena: W.C.L., 1975.
- Novak, Michael, *The Rise of the Unmeltable Ethnics*, New York: The MacMillian Company, 1972.
- Pierson, Paul E, *Themes from Acts*. Ventura: Regal Books, 1982.
- Reed, Jerry, 'Lasting Fruit in Evangelism', *Journal of the Academy for Evangelism in Theological Education* 11 (1995-1996)
- Rice, G. W. ed., *The Oxford History of New Zealand* 2nd Edition, Oxford Univ. Press: Auckland 1992.
- Ro, Bong Rin, *Korean Church Growth: Explosion*. Seoul: The Word of Life, 1983.
- Robertson, A. T, *Word Pictures in the New Testament. Vol. 3*. New York: Harper Collins, 1930.
- Rice, G. W. *The Oxford History of New Zealand*, 2nd Edition, Auckland: Oxford

Univ. Press, 1992.

Schutz, Roger. *Parable of Community: The Rule and Other Basic Texts of Taizé*.
New York: Seabury Press, 1980.

Smith, Eric. *The Role of the Local Church in World Mission; Supporting World
Missions in a Age of Change*. Wheaton: Association of Church Missions
Committees, 1984.

Terry, John Mark. *Evangelism: A Concise History*. Nashville: Broadman &
Holman, 1994.

Van Engen, Charles. *God's Missionary People*.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91.

Verkuyyl, Johannes. *Contemporary Missiology*. Grand Rapids: Eerdmans, 1978.

Wagner, Peter. *Church Growth and the Whole Gospel: A Biblical Mandate*. New
York: Harper Collins, 1981.

Wagner, C. Peter. *Your Church Can Be Healthy*. Nashville: Abingdon Press, 1979.

_____. *Leading Your Church to Growth*. Ventura: Regal Books, 1984.

Wilson, Carl. *With Christian in the School of Disciple Building*. Grand Rapids:
Zondervan, 1976.

Zuck, Roy B. and Robert E. Clark eds., *Childhood Education in the Church*.
Chicago: Moody Press, 1975.

Vita of
Keun Taek Lee

Present Position:

Senior Pastor of Korean Auckland Community Church
Missionary of Global Mission Society in New Zealand

Personal Data:

Birthdate: January 31, 1956
Marital Status: Seoul, Korea
Married to Jin Sook Lee
Home Address: 20 Simon Owen Pl, Golflands,
Auckland, New Zealand
Denomination: General Assembly Presbyterian Church
Ordained: Oct, 23, 1990

Education:

B. A.: Chongshin University, Seoul, 1985
M. Div.: Chongshin Theological Seminary, Seoul, 1989
D. Min.: Fuller Theological Seminary, Pasadena, CA, 2004

Personal Experience:

6/2003 to present: Senior Pastor, Korean Auckland
Community Church, Auckland
1/2004 to present: Missionary, Global Mission Society,
Auckland
2/2002 to 5/2003: Senior Pastor, Kwang Myung Presbyterian
Church of New Zealand, Auckland

3/1994 to 12/2001: Senior Pastor, Kirin First Presbyterian
Church, Inje

10/1990 to 2/1994: Senior Pastor, Seong Hyeon Presbyterian
Church, Seongnam

Professional Membership/Academic Honors:

3/1996 to 12/2001: Plural Lecturer, Korea Disciple Training
Institute, Chuncheon